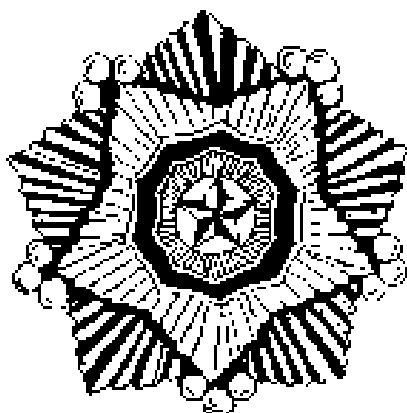


5

주체 90 (200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0(2001)년 제5호

(루계 제 643 호)

◇◇◇◇◇◇◇◇◇◇◇◇

## 차 례

◇◇◇◇◇◇◇◇◇◇◇◇

|                                 |    |
|---------------------------------|----|
|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의 진로를 밝힌 강령적지침 ..... | 4  |
| 어사벌의 봄 .....                    | 7  |
| 백두산의 봄 .....                    | 8  |
| 장군님은 오직 수령님생각뿐 .....            | 8  |
| 열렬한 숭배와 매혹이 낳은 위인송가.....        | 9  |
| 숭고한 정서세계-노래의 철학 .....           | 11 |
| 눈물이 눈물을 씻어 내린다 .....            | 12 |
| 태양(외 2 편).....                  | 13 |
| 하얀 저고리 .....                    | 13 |
| 향산천에 머리를 감네 .....               | 14 |
| 나는 이 땅이 좋다.....                 | 14 |
| 강성대국의 새날도 이렇게 밝아 온다.....        | 15 |
| 교단에 선 작가 석인해 .....              | 17 |
| 명언해설 .....                      | 21 |
| 단편소설 《따뜻한 눈》을 읽고 .....          | 22 |
| 내 노래 불러 대홍단아 .....              | 22 |
| 선군찬가 .....                      | 23 |

|                             |    |
|-----------------------------|----|
| 스물한발의 《포성》 .....            | 24 |
| 강산도 몇번 변했건만(외 1 편).....     | 35 |
| 기억에 남는 이름이라면 .....          | 35 |
| 탄전의 미래는 시작부터 좋다(외 1 편)..... | 36 |
| 룡등천에서 .....                 | 36 |
| 해 후 .....                   | 37 |
| 최악의 역사를 고발한다 .....          | 43 |
| 룡산의 메아리 .....               | 44 |
| 동서남북 .....                  | 52 |
| 아쉬워도 보람 있는 삶 .....          | 53 |
| 해병과 처녀들 .....               | 55 |
| 포옹이 뜨거우면 심장은 사랑한다.....      | 56 |
| 병사들이 돌아 왔다(외 1 편).....      | 63 |
| 조국은 두팔 벌려 그대들을 맞이한다.....    | 63 |
|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 .....        | 64 |
| 추억에 남는 한생 .....             | 73 |
| 학문과 관련한 몇가지 말.....          | 80 |

##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의 진로를 밝힌 강령적지침

최언경

오늘 우리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지》 발표 15돐을 뜻 깊게 맞이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지》는 그 내용의 심오성과 진리성, 혁명성과 위대성으로 하여 당시는 물론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의 지도적지침으로,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7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80년대에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문학예술의 성과와 경험을 총화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매우 높은 단계에 들어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 있게 추진되어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과 문화정서생활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됨으로써 그들속에서는 문학예술에 대한 요구가 비할바없이 높아 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문학예술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날에날마다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벅찬 현실을 작품에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분적이기는 하나 작품창작에서 자연주의, 복고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이색적인 경향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문학예술의 이러한 실태를 명철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예술이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게 하며 현실보다 앞서 나가면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키는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기 위하여 강령적인 과업을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의 문학예술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부진상태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다시한번 창작적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강령적과업은 문학예술의 어느 한 부문이 아니라 그 전반에서 전면적양양을 일으키며 력사의 한 시대가 아니라 전 력사적시대에 걸쳐 영원히 틀어 쥐고 나가며 그 어느 부분적인 혁신이 아니라 문학예술창작에서 근본적전환과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 나가게 하는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형상, 당의 위대성형상주제를 비롯하여 혁명전통주제, 조국주제, 민족적자존심에 대한 주제, 군민관계의 주제, 인민군군인들의 다양한 생활을 보여주는 주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새것을 지향하도록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주제 등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다시금 뚜렷이 명시하시고 그 형상적실현에서 나서는 사상미학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양한 주제방향을 뚜렷이 밝혀 주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은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며 기적과 혁신을 일으켜 나가도록 힘있게 불러 일으키는데 더욱더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 문학예술은 철두철미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내용으로 하여 온갖 반동적인 문학예술, 기회주의적문학예술과 대립된다.

따라서 그 혁명적주제방향을 옳게 선정하는것은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선결조건으로, 그 출발점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혁명적주제방향을 바로 잡고 다양한 주제의 문



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이 우리 문학예술의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보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면 여러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민족성과 주체성을 살리고 주체예술을 더욱 활짝 꽃 피울수 있게 하며 날로 높아 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맛 좋은 음식도 그것을 담은 그릇이 좋아야 구미를 더 돋굴수 있듯이 혁명적인 내용도 그에 맞는 다양한 형식에 담아 질 때 참으로 사상예술성이 높고 예술적감화력이 있는 문학예술로,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든 예술의 사상예술적 기초이며 문학예술발전의 선결조건인 문학을 비롯하여 대중교양의 힘 있는 수단인 영화, 가극과 음악, 무용, 미술과 연극, 교예 그리고 소품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으며 그 때 형태의 창작과 발전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심오하게 밝혀 주시였다.

다양한 형태의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문학예술을 철두철미 민족적바탕우에서, 우리 인민의 정서와 구미에 맞게 주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수정주의적요소와 복고주의적경향들을 철저히 극복반대할데 대한 확고한 혁명적립장으로 일관되어 있다.

우리의 음악은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이 민족적 선율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우리의 미술은 영원히 조선회화를 기본으로 하여 그에 기초해서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미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방도들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주체적문예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으로서 거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의 총적방향과 문학예술작품창작의 근본원칙과 구체적인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적문예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도식주의적인 경향과 류사성을 없애는것이라는것을 명백하게 밝혀 주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이 주체적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

한 명실공히 주체적인 문학예술로 더욱더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해 주시였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민족예술을 위주로 발전시킴으로써 주체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실로 주체문학예술건설에서 영원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또한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하며 로동계급적선을 바로 세우고 자연주의, 형식주의, 수정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사상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생명인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품심의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고 평론활동을 강화하여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나타나는 편향을 극복하고 창작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또한 창작가, 예술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 선 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이 정치적식견과 예술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고 현실체험을 많이 함으로써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맡고 있는 숭고한 사명에 맞게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그들이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서의 값 높은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영원한 지침으로 된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는 그 내용의 심오성과 진리성, 사회주의적원칙성과 혁명성으로 하여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일대 새로운 양양을 불러 온 전투적기치로 되였으며 그 위대한 불멸의 의의로 하여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둘이켜 보면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력사적시기는 일찌기 없었던 격동적인 시기, 준엄한 혁명의 시련기였다.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를 기화로 제국주의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은 미증유의 악랄성을 띠고 집요하고 검질기게 날을 따라 강화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든 메꿀수 없는 민족 최대의 국상을 당하였다. 전례 없는 자연재해의련속으로 나라의 경제형편과 인민생활은 말할수 없이 어렵게 되였다.

하나 조선은 죽지 않았으며 백배, 천배의 힘으

로 일떠섰다.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사회주의 붉은 기치가 더높이, 더 억세게 휘날렸다.

이 신성한 붉은 기치와 더불어 우리 문학예술은 70년대와 같이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변함없이 더 찬란히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 놓았다.

하다면 사람들의 상상을, 적들의 망상을 통채로 뒤집어 놓은 이 문예사적기적의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영원한 대장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압야의 등불과 같이 주체문학예술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독소가 검질기게 접어 들고 사회주의문학예술이 산산이 흩어지고 무너져 내리는속에서도 억년 드놀지 않는 마음의 기둥, 혁명적신념의 기둥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심장에 뿌리깊이 심어 주었다.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 주신 혁명적신념을 안고 주체문학예술의 기치를 더높이 추켜 들었으며 혁명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일대 양양기를 펼쳐 놓았다.

우리 문학예술은 무엇보다도 수령형상작품창작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영생》을 비롯하여 최상의 사상예술적높이에 이른 혁명소설들이 수많은 창작발표되었으며 특히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와 같은 수령영생문학의 새력사를 개척한것은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최대의 성과로 된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예술은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를 비롯한 총서 《불멸의 향도》중 혁명소설들과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등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높이 모신 성과작들을 내놓음으로써 수령형상문학예술의 새로운 가장 빛나는 장을 펼쳐 놓았다.

참으로 수령형상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펼친것은 대를 이에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 우리의 주체문학예술만이 이룩할수 있는 최대의 궁지이며 영광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다음으로 일찌기 인류문예사가 알지 못하는 세계적인 명작들을 세상에 내놓아 세인을 경탄시켰다.

세상사람들이 《조선에서만 만들수 있는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찬탄해 마지 않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련속편들이 거둔 경이적인 성과가 그것을 웅변으로 확증해 준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그것은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예술적완벽성에 있어서 주체예술의 정화이고 최고의 대표작이며 단연 세계적인 걸작이다. 이 거창한 세계적대작을 우리 창작

가, 예술인들은 시작하여 단 한해사이에 1~7부까지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으며 그 련속편들을 끊임없이 창조완성하였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라는 심오한 철학적종자를 쥐고 민족의 자주성문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우리 시대가 제기한 근본적인 인간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일찌기 수천년인류문예사가 해결할수 없었던 력사적과제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가요 《내나라 제일로 좋아》를 내용으로 하여 다부작예술영화를 만들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 주시고 친히 그 종자를 심어 주시였으며 창조의 전 과정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고 세심히 보살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로동당창건 55돐에 즈음하여 진행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은 주체예술의 위력으로 다시한번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형상작품들을 비롯하여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한 시대의 명작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문예사상의 크나큰 승리이며 민족최대의 국보인 동시에 인류공동의 고귀한 재보이다.

우리 문학예술은 다음으로 일찌기 세상사람들이 듣고 보지 못한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새 시대를 펼쳐놓았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가 불러 온 인류문예사적승리이다.

선군혁명문학예술,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문학예술, 군대이자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장군님의 총대철학을 구현한 혁명적문학예술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기본정치방식인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력하고 리상적인 완성된 정치방식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시고 백전백승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위대한 선군정치의 빛발아래 선군혁명문학예술로 태어나고 총대와 운명을 같이 하여 자랑스런 선군혁명문학예술의 력사를 아로 새겨 왔다.

선군혁명문학예술로 20세기의 마감을 빛나게 장식한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에는 총대중시철학, 혁명적군인정신이 세차게 맥박치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시대의 명작들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인들을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기 위한 투쟁에

로, 강성대국건설에 힘 있게 불러 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되었다.

참으로 다난하고 곡절 많은 인류문예사는 조선의 선군혁명문학예술로 하여 20세기 인류문예사를 빛나게 결속하였으며 21세기를 맞이한 인류문학예술앞에 밝은 전망을 열어 놓았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의 탄생과 승리, 그것은 조국의 운명을 지켜 끊임 없는 전진시찰의 길을 이어 나가신 선군혁명령도의 그 성스러운 나날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쪽잡과 켜기밥마저 뒤로 미루시며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친히 지도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로고의 산아이다.

오늘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앞에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갈데 대한 새해 공동사설을 받들고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보다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의 과업은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또 셋째도 우리 문학예술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문학예술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드는 장군님의 문학예술로 더욱 힘 있게 전진시켜 나가는것이다.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선군혁명문학예술로선을 생명선으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여기서도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붉은기수호전에서 편전편승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절대의 위대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가장 빛나게 형상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는 철령을 넘어 몇천리, 강계를 찾아 또 몇천리, 1년 365일을 쉬임없이 전진시찰,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와 함께 일찌기 사회주의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완성된 리상적정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완성하시고 비범한 선견지명과 천재적예지, 무비의 담력과 의지, 불멸의 혁명실천으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고 걸음걸음 승리를 마련해 나가시는 장군형의 령도자, 실천가형의 령도자, 세계정치의 원로로서의 위대성을 부각하는데 형상의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선군혁명문학예술발전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고무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문학예술작품마다에 차넘치게 하는것이며 그 중심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억세게 뿌리 박히게 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21세기 조선의 강성부흥이 있고 인류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와 력사가 부과한 성스러운 사명감을 가슴깊이 새기고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21세기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문학예술로 찬란히 꽃 피워 나가야 할것이다.

## 어사벌의 봄

오필천

가물가물  
새로 정리한 논벌끝에서  
아지랑이 피여 나고  
물매질한 논두렁에서  
냉이 민들레썩 뽕족이 움 터나라

어사천 건너 앞논벌에서  
파아란 밀보리들 춤을 추는데  
유정도 해라 마을에서 들려 오는  
2모작 감자종자 고르는  
농장원녀인들의 노래소리

왔구나  
토지정리한 농장벌에 찾아 온 봄이여  
새해농사 지으려 벌에 들어서는데  
장군님 보내주신 새 트랙터의  
발동소리도 봄노래에 젖었구나

돌개바람을 일구며  
차량마다 화확비료 싣고 달려 오는

기관차의 무쇠발굽도  
봄바람을 안았구나

아, 봄이여  
어사벌에 찾아 오는 새 세기의 봄이여  
봉건의 마지막유물로 남아 있던  
그 논 그 지경 그 두렁을 밀어 내고

장군님 펼쳐 주신 규격포전 그 어디나  
기계화의 보습날을 대이는  
기쁨의 봄  
강성부흥의 새 씨앗을 뿌리는  
행복의 봄

아, 봄이여  
전변의 봄이여  
21세기의 첫봄  
어사벌의 봄은  
내 가슴에 깃들었어라  
금나락 설레는 풍요한 가을로

# 백두산의 봄

리창식

새 세기를 맞이한 봄의 강산  
사랑하는 내 나라 삼천리를 품 안고  
희망의 지붕으로 오늘도 서 있구나  
백두산  
아버이의 산

살아 높뛰는 겨레의 피줄을  
그 넓은 품안에 이어 놓고  
조국해방의 첫꿈을 키웠던  
백두의 봄 기슭을 삼가 더듬노라

울울창창한 태고의 밀림속을  
심연 깊은 사색의 불길로 태우며  
백두의 주인이 지새우신  
예순다섯해전  
5월의 동강의 밤이여

한자 또 한자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천마디 만마디  
심중의 말 다 담으시며  
온 한밤  
2천만 겨레와 마주하신분  
아 그이는  
백두산의 주인 **김일성** 장군!

얼마나 많았으랴  
품안에 껴안고  
손수 녹여 주고 싶으신 아이들의 손은

얼마나 많았으랴  
우등불가에 모두 불려  
맘껏 풀어 주고 싶으신 어머니들의 그 설음은

밤 깊도록  
그이는 밝아 보시였다  
비란에 떠는 조국땅  
마지막마을길까지  
그이는 다 듣고 계시였다  
철사에 묶이면서도 백두산에 전하는  
겨레의 피 타는 목소리를

캄캄한 세월에  
빛을 주기 위하여  
얼어 붙은 강토에  
봄을 주기 위하여  
백두의 밤은 잠들줄 몰랐나니

황 황  
일어 번지는 장군의 시선이  
내 조국의 하늘을 향해 번쩍일 때-  
우수수 천연거목이 머리를 들었다  
거창한 은하수가 쏟아 져 내렸다

민족대단결의 대강을 펼치여 준 동강의 5월  
2천만을 품어 안은 위대한 심장이  
민족의 크나큰 힘을 부어 주고  
백두산의 품에  
해방3천리가 안겨 있었다!

가사

## 장군님은 오직 수령님생각뿐

오재일

토지정리 시원한 논벌을 보시면서  
장군님은 뜨거운 생각에 젖으시네  
기계화의 노래 넘친 드넓은 대평원을  
수령님 보시면 그 얼마나 기뻐 하시랴  
아 장군님은 오직 수령님생각뿐

새로 만든 양어장 찾으신 그날에도  
장군님은 감회깊이 걸음을 못 떼셨네  
인민에게 물고기를 먹이시려 마음 쓰신

수령님 보시면 그 얼마나 기뻐 하시랴  
아 장군님은 오직 수령님생각뿐

강성부흥 내 조국 그 어디 찾으셔도  
장군님의 생각은 한곳으로 굽이치네  
수령님 바라시던 평생소원 꽃 피워 갈  
뜨거운 그 마음 한없이 불 타시네  
아 장군님은 오직 수령님생각뿐



## 열렬한 숭배와 매혹이 낳은 위인송가

-가요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에 대하여-

김일수

이 세상 천만사람을 무한히 매혹시키며 심장의 노래를 터치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걱정을 자아내는 절세의 위인세계는 노래가 노래를 낳고 노래에 노래로 이어 지는 무한대의 원천이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위인송가의 장엄한 흐름속에 가요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김건일작사, 작곡)도 있다. 이 가요는 백두광명성 솟아 민족의 대통운이 뿜었다고 이끼 푸른 백두의 거목에 신념의 글발을 새기던 혁명의 첫 세대들의 심장에서 시작된 또 한분의 백두령장찬가, **김정일**장군송가의 계속이며 오늘날 우리 송가문학이 거둔 귀중한 성과들 보여 주는 또하나의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 나가는 령도자로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 칭송을 받고 있는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온 누리의 심장을 하나로 합치며 힘 있게 울려 퍼지고 있는 위인송가, 그 끝 없는 열원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절감하는 인민의 심장에 있으며 그 심장이 스스럼없이 이끌린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매혹과 숭배, 그로부터 우리나라 오는 충동과 열망에 있다.

이 땅에 수많은 위인송가가 다 그러하듯이 가요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도 **김정일**시대의 새날과 더불어 인민들의 심장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 충동과 열망의 오션지우에 칭송의 열정으로 삼가 엮어 저 선물이 되고 박자가 된 불멸의 위인송가이다.

이 노래가 오늘도 무궁한 생명력과 비상한 정서적감화력을 가지고 천만의 심장을 그토록 뜨겁게 울려 주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끝 없는 흠모와 칭송의 사상감정을 폭 넓고 격이 있게 노래한 데 있다.

우리가 이 송가에서 보게 되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에 대한 폭 넓은 개괄과 정론적인 분석이다.

압록강기슭에서 남해의 끝까지  
인민은 노래하네 친근한 이름  
조선을 책임지신 **김정일**동지

천만년 따르리 길이 받들리

이 땅에 락원을 펼쳐 주시여  
인민은 노래하네 친근한 이름  
조선을 빛내시는 **김정일**동지  
천만년 따르리 길이 받들리  
...

여기에는 주체의 태양의 빛발아래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의 모습과 꽃 피는 락원을 압록강기슭으로부터 남해끝까지 이르는 삼천리강산우에 부각하면서 태양민족이 높이 받들어 올린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폭 넓은 세계가 있다. 이 함축된 정론적 형상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모에서 밝히며 그 위대성을 만민칭송의 한마음이 어우러진 송축과 레찬의 절정우에서 정서깊이 밝히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조선을 책임지신 **김정일**동지》! 가사 1절의 3행에 씌여 진 이 시구절은 형상전반에 일관하는 칭송의 열정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천명하는 사상정서적책으로, 근본바탕으로 되고 있다. 포괄력이 큰 이 시구절은 단순한 경모나 신뢰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 그 전부로 여기는 절대적인 믿음, 완전무결한 숭배의 정화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다함 없는 송축과 레찬의 감정이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 믿음, 투철한 숭배와 매혹의 경지에서 솟구쳐 그와 하나로 융합된것임을 확인하는 위력한 형상세계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살고 우리의 생활이 흐르며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전진한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하늘 같은 믿음은 우리의 모든 투쟁과 삶의 절대적 근원이고 우리 식의 생존방식, 생활신조이며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철학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드리는 노래가 바로 장군님에 대한 하늘 같은 믿음에서 분출하는 믿음의 환희이고 숭배의 격정이며 신뢰의 찬가로 되는 근거가 여기서 밝혀 진다.

이 땅우에 락원을 펼쳐 주시여 조선을 빛내이시고 주체의 해불을 높이 드시여 자주 앞길을 밝히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 이것이 시대가 칭송하고 인민이 격찬하는 위대한 운명의 태양, 하늘 같은 믿음의 절정에 계시는 위인의 모습이

다. 가요는 이러한 위인의 모습을 **김정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의 위대함과 령도의 위대성을 절감하는 무한한 격동과 흥모의 정, 칭송의 열정 속에 부각함으로써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와 매혹에 기초한 전 인민적인 레찬의 사상감정을 폭넓고 격이 있게 일반화할수 있었다.

가요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의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은 다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흥모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맹세, 장군님을 천만년 따르며 받들어 나가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강조하면서 수령송가의 형상적 요구를 훌륭히 해결한데 있다.

가사의 매절 마지막행에서 력점 찍고 있듯이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려는것은 우리 인민이 간직한 철석의 각오이며 시대와 혁명앞에 다지는 엄숙한 맹세이다. 이러한 각오와 맹세의 주도적감정세계가 이 세상에 오직 한분이신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살며 투쟁하는 생활과정에 느낀 체함에 토대하고 있다는것을 밝히면서 가요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천명하고 전 인민적칭송의 감정을 담아야 할 혁명송가형상의 두 측면을 조화롭게 결합시키고 있다.

송가의 정서적흐름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따르며 충성 다하려는 인민들의 주도적감정에 바탕을 둔 수령숭배와 흥모의정이 맥박치고 송축과 레찬의 열정이 굽이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칭송의 열정이 장군님 한분만을 절대화하는 충성의 열정과 결합되어 송가의 감정정서를 더 고조시켜 나가는 시형상! 어디서 어디까지가 칭송의 열정이고 충성의 열정인지 구분할수 없이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어 세차게 소용돌이치는 시형상!

칭송의 감정과 충성의 감정의 유기적이며 조화로운 통일, 바로 이것으로 하여 가요는 수령송가로서의 면모와 성격을 완벽하게 보여 줄수 있었다. 이것은 이 가요가 칭송의 감정을 형상전반에 구현하는데서 수령송가가 의거하고 있는 독특한 일반화의 방식과 면모를 뚜렷이 특징화하고 있다는것을 말해 준다.

어떤 시련과 난관이 닥쳐 와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그이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며 영원토록 받들려는 우리 인민의 각오와 맹세, 신념과 의지를 시대적사상감정의 높이에서 칭송의 열정과 결합시켜 개방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가요는 송가의 형상적요구를 가장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된것이다.

이처럼 가요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 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영원토록 그이만을 모시고 받들어 가려는 우리 인민의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함으로써 위인송가로서의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가사는 위대성형상을 위하여 요구되는 형상의 폭과 깊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운률형식면에서 7. 5조의 음수율을 기본으로 하여 절가의 음악성과 민족적특성을 풍만하게 살리고 있다. 이 경우 7. 5조는 3. 4. 5조로 순차적으로 폭 넓게 확대되는 공간적인 폭을 가지고 긴 음조를 형성하면서 불멸의 위업을 격조 높고 절절하게 송축하며 맹세의 감정을 장중하면서도 깊이 있게 담아 내는 데서 그리고 송가의 보다 서정적인 양상을 돋구는데서 매우 효과적인 운률형식으로 되고 있다.

가사의 서정적형상은 또한 소박하고 생활적이며 폭 있고 깊이 있는 언어표현에 의해 빛나게 실현되었다. 업적의 위대성과 전 인민적인 거대한 감정을 집약해야 할 시적일반화의 요구를 반영하여 가사는 생활적이면서도 폭과 깊이가 있는 언어표현을 적극 살려 쓰고 있다.

매절의 2행에서 반복되는 **《인민은 노래하네 친근한 이름》**이라는 시구절은 단 한행을 통하여 친근한 정으로 맺어 진 수령과 인민의 혈연적연계를 그 어떤 천만마디 말보다 더 힘 있게 정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친근한 이름》**이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인민의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하여, 그이에 대한 친근감과 혈연성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있는 가장 적중한 표현이다.

가사는 이와 함께 **《이 땅에 락원을 펼쳐 주시여》**, **《주체의 해불을 높이 드시여》**, **《조선을 빛내시는》**, **《자주의 앞길 밝히는》**과 같은 폭이 있고 무게 있는 언어표현들을 탐구하여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송가가 담고 있는 내용을 간결하게 함축된 절가의 형상공간에 집약적으로 구현할수 있는 위력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선률형상도 가사의 사상적내용을 잘 살려 낼수 있도록 송엄하면서도 절절한 정서의 흐름으로 일관되어 있다. 약박자로 시작되는 선률은 리듬이 평이하고 음진행이 비교적 순탄하면서도 사색적이며 흥모적인 정서를 안고 무게가 있고 폭 넓게 전개되고 있다. 이것으로 하여 선률은 전 인민적송가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내고 가요의 품위를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다.

참으로 가요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열렬한 수령숭배와 흥모의 정, 충성의 열정이 낳은 위인송가로서 세월을 넘어 끝없이 울려 퍼질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다.

전문시인이 아닌 그 누구일지라도 서슴없이 강렬한 매혹과 신뢰열로 불 타는 심장에 붓을 적시여 열정의 송가를 엮는 이 시대야말로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위인송가의 력사로 빛나고 있는가. 만나면 순간에 온넋이 끌리고 심장을 합치며 한생도 온 세상도 통채로 맡길수 있는 위대한 운명의 태양,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는 영원토록 무궁번영할 **김정일** 시대와 더불어 끝없이 울려 퍼지리라!

## 숭고한 정서세계-노래의 철학

박애숙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는 사회주의붉은 기진군이 힘 있게 다그쳐 지고 있는 시대의 첨단에서는 승리의 진군가가 높이 울리고 있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혁명적랑만을 안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바탕에는 노래로 우리 혁명을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철학이 놓여 있다.

가요 《장군님은 노래를 사랑하시네》(장운길작사, 안정호작곡)는 절세의 위인의 가장 독창적인 음악정치, 노래의 철학을 정서 깊게 노래한 성과작이다.

가사는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지녀 본적이 없는 뜨겁고 다감한 정서를 지니시고 노래를 사랑하시며 노래로 혁명을 명도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가슴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노래의 가사형상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에는 독창적으로 찾아 쥔 종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부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가사는 노래는 곧 장군님께서 지켜 가시는 붉은기라는 뜻 있는 사상적알맹이를 깊이 심고 서정을 펼쳐 가꾼 가사형상에 의하여 예술적감화력이 힘있게 담보되고 있다.

이 밤도 당중앙창가에 별빛이 흐르는데  
우리의 장군님 조용히 노래를 들으시네  
백두밀림 설레임도 노래속에 안아 보며  
끝 없는 사색의 한밤을 지새시네

저 멀리 동 트는 전선길 달리는 차에서도  
우리의 장군님 조용히 노래를 부르시네  
사랑하는 병사들을 노래속에 그리시며  
최전연 령길에 자욱을 새기시네

고난과 시련을 헤치는 인민의 마음속에  
우리의 장군님 신념의 노래를 주시네  
사회주의 내 조국 노래속에 펼치시며  
혁명의 붉은기 더높이 날리시네

세계 절로 이루어 진 함축된 시형상속에 위인의 숭고한 철학세계와 정서세계가 뜨겁게 청송되고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별빛이 흐르는 당중앙창가에서 조용히 노래를 들으시며 백두밀림의 설레임소리를 노래속에 안아 보시며 끝 없는 사색의 한밤을 지새우신다는 가사형상속에서 우리는 위인의 숭고한 철학세계, 신념의 세계를 뜨겁게 받아 안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래속에 안아 보시는 백두밀림의 설레임,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위인의 숭고한 신념의 세계에 대한 시적형상인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아 보시는 백두밀림의 설레임을 통하여 우리는 《적기가》를 부르며 투쟁으로 돌진하는 혁명의 1세들의 모습을 그려 보기도 하고 《반일전가》를 부르며 어버이수령님을 옹위하고 결전으로 나서는 투사들의 모습도 가슴에 안아보게 된다.

이처럼 가사의 1절에서 환기된 위인의 숭고한 정서세계에 대한 여운 있는 시형상은 선군명도의 위대한 자욱우에 남기시는 위인의 노래철학에 대한 정서 깊은 형상으로 승화되면서 깊은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선군혁명명도로 최전연령길을 달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 그려 지는 병사들의 사랑스러운 모습, 결사옹위의 제1선에 서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노래속에 그리시는 위인의 숭고한 세계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끝 없는련상을 불러 일으킨다.

그처럼 음악을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끄시는 선군명도의 길에서 언제나 음악만은 생활의 활력으로 여기시고 노래속에서 사색을 무르익히시며 승리를 이룩하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구상을 펼쳐 나가시는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넘고 넘으신 붉은 철령이 전하는 사연... 겹쌓인 피로로 하여 달리는 야전차의 등받이에 몸을 기대시고 잠시 눈을 감으셨던 장군님께서 동행하는 일군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며 선창을 예실 때 철령이 합류하여 온

천하가 위인의 세계에 화답한 그 뜨거운 이야기!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노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을 총대와 노래로 영원히  
지켜주시려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  
고 우리 모든 병사들과 인민들에게 안겨 주시는  
혁명승리의 신념의 영양소였고 활력이였다.

가사의 2절에서 승화된 위인의 정서세계에 대  
한 깊이 있는 시형상은 3절에서 노래로, 우리 혁  
명의 승리를 이룩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에 대한 레찬으로 고조되고  
있다.

고난과 시련을 헤치며 강성대국건설에 분연히  
펼쳐 나선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신념의 노래를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강성대국건설에 장엄한  
포성을 울려 주는 장군님의 음악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동지애의 노래》의 선율로 일심단결된 전  
당, 전군, 전민이 하나의 숨결, 하나의 사상의지  
로 고동치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노래높이 부르며 수령송배, 수령결사옹위의 천만  
의 대오가 새 세기의 한복판을 도도히 행진하며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는것이다.

가사는 위인의 숭고한 정서세계와 노래의 철학  
을 정교한 시형상으로 서정화하여 부각하고 있  
다.

가사는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우리모두가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위인의 생활이 비껴 있고  
친숙한 생활감정이 담겨 있는 시어들을 쓰고있다.

그러므로 쉽게 알수 있고 별치 않은 표현같지만  
거기에는 심오한 생활철학이 있고 한번 듣고 나  
면 많은련상이 떠오르고 깊은 여운에 잠기게 된  
다.

위인의 숭고한 노래의 철학은 새 세기의 진격  
로를 열어 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오늘  
도 걱정의 파도를 세차게 일으키며 신심과 량만,  
희열을 안겨 줄것이다.

## 눈물이 눈물을 씻어 내린다

리영백

눈물이  
눈물을 씻어 내리는  
내 고향벌의 밤이여  
오늘은 나도  
삼태성 기올도록  
논머리에 그냥 앉아  
더운 눈물을 떨군다

소 물아 씨레를 치던  
그 빼기는 다 밀어 낸 고향벌  
그 어데라 없이  
웃음소리 높이 울려 가는  
정겨운 프락프르의 동음조차  
몽클- 눈물을 자아내는 이 밤-

추억의 별무리 따라  
내 마음 없어 보는  
그날의 논머리도 예가 아니냐  
땅의 주인된 기쁨 안고  
협동화의 새봄 맞은 행복 안고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아버지 어머니 흘리던 그 눈물-  
소작살이 피눈물도 씻어 내렸지  
가난의 매운 눈물도 씻어 내렸지

나는 오늘밤  
여기서 또 본다  
일할수록 흥겨운 사회주의대지를 펼쳐 주신  
장군님의 은덕이 고마워  
논머리에 흘리는 그 눈물이  
옛 세월의 고달픈 눈물 한방울까지  
짱그리 씻어 내리는 고향벌을...  
뜨거운 그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 들어  
알찬 열매로 주렁지는 대지를...

아, 해빛어린 옥구슬마냥  
농민들의 밝은 운명이 웃는  
이런 눈물이 있어  
더없이 소중한 내 고향벌이여!  
어데 가나 가슴에 출렁이는  
감사의 더운 눈물에 젖는 밤이여!

## 태양 외 2편

(총련) 리문청

실버들가지 실실이 반겨 주는  
대동강유보도의 아침  
새들의 지저귂소리 들으며  
조국의 맑은 공기 한껏 마시며  
대동강흐름 따라 걸어 간다

나는 보았노라  
조국의 아침에 보았노라  
하늘높이 우뚝 솟은 주체사상탑  
붉은 봉화우에 불 타는  
주체고향의 태양을 보았노라

거치른 이국땅  
그곳에 솟는 태양은 보았어도  
어찌하여 주체고향의 태양은  
저리도 더 크고 눈 부신가  
저리도 더 이 가슴 뚫여 주는가

내 젖어 드는 눈을 들어  
다시 태양을 바라보면  
그토록 뵈고 싶은 인자하신

그 영상 비껴 있구나  
나를 안아 주시던  
수령님의 그 인자하신 영상이  
밝게 웃고 계시누나

아, 태양과 내 운명  
떨어 질수 없듯이  
수령님과 함께 있는 나의 삶이  
주체의 고향 저 태양에 비껴 있구나

이 세상 어디 가나 태양은 솟아도  
아버이수령님 영생하시는  
주체의 태양은 조선에서만 솟노니  
맑은 아침의 나라 주체의 고향은  
만민의 태양이 솟는 고향

내 이역땅에 살아도  
찬 바람 눈보라가 휘몰아 쳐 와도  
세기의 한끝을 밝히는  
그 해빛 그 태양을 우러르는  
그 땅은 주체의 고향뿐이여라

## 하얀 저고리

나는 오릅니다  
한계단 두계단 오릅니다  
아침바람에 치마자락 날리며  
수령님 기다리시는  
만수대언덕으로 오릅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흰 저고리웃고름 바로 잡아  
충성의 한마음 담아  
이른 새벽 수령님께  
첫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쓸어 갑니다  
하얀 화강석계단  
한층계 두층계 쓸어 갑니다  
발을수록 뜨거워 지는 마음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랑심입니다

머리 들어 우러르면  
아버이수령님  
저 멀리 우주의 한끝을 가리키십니다  
내 마음속 생각도  
웃으시며 알아 주십니다

하얀 저고리  
까만 치마  
내 모습 바라보시던 수령님  
마치 꽃처럼 꽃송이처럼  
예쁘게 보아 주시는듯  
대견한 눈길로 안아 주십니다

칼부림에 찢겨도  
벗지 않던 저고리입니다  
맞아도 죽어도  
놓지 않던 웃고름입니다  
아, 민족의 녀입니다

순결한 이 마음으로  
깨끗한 이 손으로

만수대언덕을 쓸어 갑니다  
평양의 새벽을  
만수대언덕에서 열어 갑니다

## 향산천에 머리를 감네

초여름을 맞이한 묘향산  
뼈꼭새들도 뼈꼭뼈꼭 노래하는  
솔 푸른 바위터에 앉아 머리를 감으면  
할머니얼굴이 어리어 오네  
향산천에 머리를 감네

하얀 돌을 굴리는 구슬 같은 맑은 물  
향산천 실버들처럼 머리 풀고  
참빛으로 빛는 칠칠 검은 머리  
이국살이시름이 씻어 내리네

흘러 내리는 맑은 강물은 할머니말씀 들려 주고  
숫아 있는 기암괴석에 할머니마음 어렸건만  
5월봄명절 그 옛날 달밤처럼  
이 물에 눈물도 시름도 가서 흘러 가네

술향기 물향기 감돌아 드는  
이 기슭에 이내 정도 감돌아 드는  
아, 향산천 향산천 할머니의 옛말소리  
조국이 있어 이 물에 머리를 감네  
(조선대학교 문학부)

## 나는 이 땅이 좋다

김충기

나는 이 땅이 좋다  
밤 새워 정비한 모기계를 물고  
서둘러 안개 피는 들에 나서면  
곧추 뻗은 물길을 따라  
팔- 팔- 단물이 흘러 드는 소리  
봄아침의 청신한 대기속으론  
흙냄새 싱그러이 퍼져 흐르고...

나는 이 땅이 좋다  
연백이라 넓은 벌 한끝에 해가 솟으면  
여기저기 거울마냥 번쩍이는 논배미들  
하나같이 번듯한 규격포전들에선  
모살이를 끝낸 애기모들 예쁜 잎 흔들고  
저 건너 2모작포전들엔 탐스런 밀보리들  
아침이슬에 금빛수염을 씻고...

나는 어느 새  
논머리에 기계를 들어 세우며  
이 하루 푸른 주단 펼쳐 갈  
논벌을 정겹게 둘러 본다  
공급수치너와 함께 부를 2중창도  
휘- 휘- 휘파람으로 불어 본다

또 나는  
없어 진 논두렁 늘어 난 새땅에  
더 꽃을 포기수도 가늠해 보며  
가을이면 그우에 벼날가리 높이 쌓고

옥이와 풍년달구경 나란히 할  
그 저녁도 꿈 꾸며 눈웃음을 짓는다

얼마나 좋으나  
가으내 봄내  
번뜩이는 무쇠삽날에 떠밀려  
늪실늪실 춤 추며 넓어 진 논벌  
볼수록 사랑스런 멧쟁이대지

여기서 나는  
변모된 논벌만이 아닌  
달라 진 사람들의 새 모습  
장군님 보내주신 농기계들을 타고  
사시절 전야를 주름 잡아 달릴  
《멧쟁이농사군》들의 희한한 모습을 보거니

나는 이 땅이 좋다  
선군령도의 손길아래 천지개벽한 이 땅  
로동당세월이 좋아 젊어만 지는 이 땅  
너로 하여 내 나라가 더 아름다워 지고  
내 조국이 더 부강해 지게 하리라

아, 풍요한 우리의 래일이  
무지개로 비껴 웃는 땅  
너와 더불어 정을 나누고 사랑을 속삭이며  
한생토록 여기서 젊어 살리  
연백벌 너와 함께!  
청춘대지 너와 함께!



## 강성대국의 새날도 이렇게 밝아 온다

박성국

청신한 새벽대기를 흔들며 새날을 알리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장중한 선율이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 온다. 미구하여 불타는 태양이 솟아 오를것이다.

내 조국의 새날은 이렇게 시작된다.

세기를 이어 변함 없는 조선의 아침.

서정시 《날이 밝는다》(정서촌)는 조선의 새 아침은 어디서 어떻게 밝아 왔는가에 대하여 깊이있는 예술적해답을 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학이 있고 생활이 있으면 그 작품은 성공한 작품이다.》

철학적으로 심오한 사상을 생활적으로 서정이 풍부하게 노래한 시는 커다란 건인력과 꺼질줄 모르는 생명력을 가지고 세기를 이어 전해 진다.

서정시 《날이 밝는다》는 20세기 50년대 말에 나왔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사랑속에 들어지고 있다.

문학작품의 가치와 생명력은 해당 시대는 물론 세월을 넘으며 더 큰 건인력과 감화력을 가지는데 있다.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열화같은 흠모, 끝 없는 충성의 사상감정을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서정시 《날이 밝는다》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시는 세기가 교체된 오늘날에도 우리 인민들을 수령숭배,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작품이다.

이 시에는 심오한 철학이 있고 풍부한 생활정서가 있다.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사로 빛나는 민족재생의 위대한 태양력사의 본질적인 생활이 집약되어 있다. 시에서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밀림에서 조선의 새 아침을 안아 오시였다는것을 서정 깊게 노래하였다.

백두산 아름다리원시림을 찍어서  
벽이며 지붕이며 쌓아 올린 귀틀집  
등잔불 깜박이는 나직한 방에서  
그이는 오래동안 움직이지 않았

밤은 무척 깊었으리...

울부짖던 눈보라도 뜰해 지고  
승냥이울음소리도 잠잠해 지고  
태고연한 침묵만이 밀림속에 흐르는데

밤은 무척 깊었으리...  
난로우에 끓던 더운 물도 찾아 들고  
등불에 흔들리는 그이모습 비끼인  
창가에는 허열게 성애가 불리는데

깊디깊은 사색의 심연에서 깨여 나신  
그이의 손은 조용히 움직이신다  
연필을 달리시여 물결을 일으키는  
통나무책상우에 한장의 지도여

...

시는 첫 시작부터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며 사색 깊은 서정세계에로 끌어 들인다.

시에는 시적세계에 대한 설명이나 력사적사건에 대한 추상적인 주장토로도 없다. 또한 영웅적이며 위대한 생활을 노래하는데서 나타나는 요란한 시적표현도 현란한 수식사도 없다. 하지만 시인의 개성적이며 사색 깊은 상상속에서 발견되고 재현된 생활이 있다. 소박하고 평범한 시적표현으로 펼쳐 지는 위인의 위대한 생활세계가 있다.

밀림속에 자리 잡은 통나무귀틀집과 등잔불 깜박이는 나지막한 방의 고요한 정경, 깊은 사색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하신 모습.

울부짖던 눈보라도 뜰해 지고 승냥이울음소리도 잠잠해 진 태고연한 침묵만이 흐른다는 묘사로 깊어 가는 밀림의 밤을 얼마나 생동하게 보여 주는가. 그리고 난로우에 끓던 더운 물도 찾아 들고 등불에 흔들리는 그이의 모습 비끼인 창가에는 허열게 성애가 불린다는 표현은 얼마나 감각적인가. 깊어 가는 밀림의 정경과 방안의 정경이 방불하게 반복강조되는속에 백두밀림의 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색으로 깊어 가는 밤의 정서가 뜨겁게 안겨 온다.

시인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생활을 탐구선택하였으며 정서적으로 물들여 진 간결하고 함축된 시적표현으로 서정이 풍부한 생활화폭을 생동하게 펼쳐 놓았다.

하나의 시적세부도 많은것을 련상시킨다.

난로우에 끓던 더운물도 찾아 들었다는 표현은 얼마나 많은것을 느끼게 하는가.

훈훈하게 덥혀 주던 난로불도 꺼져 버린지 오랜 깊고 깊은 밤, 신음하는 조국인민들 생각으로 한밤을 지새우시며 조국해방의 새날을 안아 오시기 위해 끝 없는 사색을 펼쳐 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마음이 참으로 깊이 있게 표현되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안으시고 혁명의 승리를 위한 사색과 로고속에 또 한밤을 밝히시며 위대

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 나가시는 어버이수령님.

얼음을 깨물며 가야 할 행군  
첼첼히 다가서는 준령도 많아라  
그러나 기어이 그것들을 넘어서야  
조국으로 개선할 승리의 길-

간고한 그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  
**김일성**장군님께서 위대한 구상을 하신다  
오, 이 밤 채찍에 쓰러지는  
동포들의 신음소리 귀전에 들으시며...

그이는 지그시 연필에 힘을 주어  
원썬들의 진지에 화살표를 집중하신다  
-가자, 어서 대오를 이끌고  
-가자, 튼튼히 무장을 갖추고  
...

이렇게 깊어 간 백두의 밤, 이렇게 지새우신  
수천 밤이 있어 조선의 새 아침이 밝았다. 백두  
산에 태양이 솟아 조선의 하늘에 첼첼이 드리웠  
던 암흑의 장막이 걷히고 자유와 행복, 삶의 기  
쁨과 희열이 약동하는 인민의 새 세상이 펼쳐 진  
것이다.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표현으로 의의 있는  
사상을 심도 있게 밝혀 낼 줄 아는 시인의 독특하  
고 개성적인 형상기교는 시의 결구에서 더욱 뚜  
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깊어 간 백두의 밤이  
몇밤이나 되던가, 몇천밤이나 되던가  
등에 걸친 외투깃을 추켜 올리며  
장군님께서 밀영의 창문을 여실 때

아, 날이 밝는다  
백두산밀림에서 조국의 태양이 솟는다!

참으로 생활적이며 철학적인 심도를 가진 시적  
화폭이다. 한쪽의 조선화를 보는 것과 같은, 화면  
을 보는 것과 같은 회화적인 구제성과 직관적인  
생동성, 생활묘사의 정서성은 철학적인 내용에  
풍만한 생활정서가 차넘치게 하였다.

이 시에서 받아 안게 되는 정서적인 느낌은 사  
색 깊은 여운을 남기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어둠에 잠긴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밝은 빛을  
주시려, 인민의 새 아침을 펼치시려 수령님께서  
지새우신 위대한 사색과 로고의 수천 밤들에 **《조  
국광복회10대강령》**을 비롯한 혁명의 위대한 전략  
과 전술들이 밝혀 졌고 마침내 조국해방의 새 아  
침이 밝아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시인은 8련밖에 안되는 짧은 시에서 영광찬란  
한 항일혁명투쟁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함축된  
생활화폭에 담아 서정이 풍부하게 노래하였다.  
하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조선의 새 아침을 안아 오시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밝히었다. 뿐만아니라  
자유와 행복, 새 생활의 환희와 숨결이 약동하  
는 시대의 본질을 느끼게 하였다.

시에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모시여 우리 조  
국과 인민이 받아 안은 크나큰 행복과 기쁨의 감  
정정서가 깔려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 주  
신 새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인민의 긍지 높고  
존엄높은 생활과 세기를 주름 잡아 내닫는 천리  
마시대의 장엄한 숨결과 벅찬 환희가 있다.

시는 시대생활의 반영이며 혁명적인 시에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주도적인 사상감정이 담겨 저  
있다. 이 시에는 새 시대에 대한 시인의 열렬한  
찬양과 긍정, 옹호의 사상감정이 깃들어 있다.

천리마시대의 벅찬 숨결과 인민의 드높은 열의  
와 환희의 감정은 그대로 시인에게 옮겨 졌다.

시인의 가슴속에 북받쳐 오른 걱정은 인민의  
새 세상을 안아 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  
적을 칭송하는데로 지향되었으며 위대한 태양찬  
가로 터져 울렸던 것이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  
도로 한평생 인민의 자유와 행복, 조국의 부강번  
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색과 로고, 위대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위에 조국해방의 새날이 밝았고 민  
주조국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 졌으며 미제를 타  
승한 영웅조선의 기상이 펼쳐 졌고 천리마대고조  
의 열풍속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이 실  
현되고 자주, 자립, 지위의 사회주의조선이 20세  
기의 중심에 우뚝 솟구쳐 오른 것이었다.

시가 안겨 주는 느낌과 여운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시를 음미해 보면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  
의 령장, 21세기 태양의 거룩하신 모습이 뜨겁게  
안겨 온다.

선군혁명령도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강성대국  
의 새 아침을 펼치시려 수천 밤을 지새우시며 사  
색과 로고속에 불면불휴의 령도의 나날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백두에  
서 밝아온 조선의 아침은 세기를 이어 계속된다.

태양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 세기를 빛내이  
시는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의 사색과 로고속에  
이 땅의 밤이 깊어 지고 새날이 밝는다. 어제도  
오늘도 끝 없는 사색과 로고의 밤으로 새날을 맞  
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의 나날속  
에 강성대국의 새 아침도 밝아 온다.

서정시 **《날이 밝는다》**는 우리 시대의 주도적  
인 사상감정을 생활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 있  
게 노래한 것으로 하여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세  
기를 이어 읊어 지는 훌륭한 명시로 되었다.

시에서 노래한 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  
밀림에서 안아 오신 주체조선의 새 아침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영원히 백두  
산에서 밝아올 것이다.

## 교단에 선 작가 석인해

리기주

석인해는 나의 스승이다. 나는 그의 수많은 제자들중의 한사람이다.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니 조심스러워 지는바가 없지 않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사람의 회고담에 지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청춘시절, 대학시절에 그의 강의와 학습 지도를 받았다. 졸업후에는 그가 강좌장으로 사임한 강좌의 교원으로 10년나마 그와 함께 일하였다. 그가 강좌를 떠난 다음에도 나는 그와의 사업적, 생활적연계가 깊었다. 그 과정에 내가 알게 된 석인해는 당에 충실한 교육자였고 작가였다.

그는 당에 충실한 교육자였다.

일제식민지통치말에서 갓은 민족적멸망의 시대라는 지식인들중 한사람이었던 그는 조국해방을 맞은후 얼마간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주체 37(1948)년에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소환되어 교편을 잡았다. 그 기간에 그는 역사문학부 부학부장, 조선어문학부 학부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주체 42(1953)년에 김형직사범대학(당시 평양사범대학)에 조동되어 조선문학강좌장으로 사임하였다. 이렇고 보면 그는 한생의 짧지 않은 날들을 후대 교육사업에 종사하였다고 할수 있다. 교육사업과 떼어 놓고서는 그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다.

그는 늘 자기는 평생 교단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가 대학교단에 선 첫 시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영광의 시각부터 심장깊이 다진 맹세였다.

그는 가릴처절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 포연을 헤치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만나뵈고 강령적인 교시를 받는 최대의 영광과 무상의 행복을 지니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거쳐 선조들이 창조한 찬란한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발굴, 수집정리하여 전함으로써 후대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 주어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한생을 바칠 결의를 다지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목표로 삼은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그날의 그 시각부터였다.

그날에 다진 맹세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교수교양사업에서 관철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정력을 쏟아 부었다. 《조선고전문학강독》, 《조선문학사》(근대, 현대문학편) 등 학과목을 개척하여 교수요강을 만들고 강의안을 작성하였으며 교과서, 참고서들을 집필하고 강의에 출연하

였다. 그의 강의는 인기가 있었다. 풍부하게 꾸려진 강의내용과 중점을 요약하여 통속적으로 구술하는 훌륭한 교수수법은 그의 박식에 의하여 담보되었다. 교육의 질은 그 담당자인 교원의 자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는 박식하였다. 동서고금의 역사적사건, 사변, 영웅호걸, 명인, 재사들, 우리 민족과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 유적, 민속들에 대하여 모르는것이 거의 없었으며 우리 말 어휘, 성구, 속담, 격언들에 정통하였다. 유구한 우리 민족문학사에 있는 사조적경향, 역대 작가와 작품 그중에서도 계몽기문학, 조국해방전 진보적인문학, 프로레타리아문학에 대한 그의 해박한 이해와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참으로 놀랍고 부러운것이였다. 강의의 논리적체계를 크게, 굵게 세우고 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자료로 론증해 나가는 그의 강의는 구수하기가 그지없었다. 그의 박식, 실력은 불 타는 탐구와 노력의 소득물이었다. 그의 집 서가에는 백과사전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전들이 가득차 있었으며 평범한 도서관에서는 볼수 없는 희귀한 책들이 많았다. 그 책들이 그의 박식의 밑천으로 되었다. 우리는 그가 그 많은 책들을 독파하느라고 애를 써서 머리칼이 다 녹아 이마가 남달리 벗어 지고 얼굴에 헤아릴수 없이 많은 주름이랑이 생긴것이라고들 말하였다. 그는 《배비장전》, 《춘향전》을 비롯한 많은 고전작품을 주해하였으며 고전을 현대어로 운색하기도 하고 빅토르 유고의 《레 미제라블》을 비롯한 외국소설번역도 하여 문학전문가들과 학생들의 학습교재로 제공하였다. 그는 민족문화유산을 발굴, 수집, 정리하는 사업에도 힘 썼다. 방학때가 되면 고향으로 가는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민간에 전승되어 오는 민요, 민화, 전설, 수수께끼, 속담들을 찾아 올 과제를 주고 그들이 돌아 오면 그것을 받아서 검토하고 가치 있는것들은 자기가 정서하여 민족문화유산평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는 교원들의 전공학문의 과학리론적자질과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이는 문제에 깊이 관심하였다. 그는 교원들을 위한 문학리론문제해설, 특강, 질의응답, 학술토론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였으며 문학운동에서 나서는 창작실천적문제들에 대한 통보, 강의참관을 자주 함으로써 당의 정책적요구를 구현하여 교수내용을 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교수방법을 개선하도록 교원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다. 교원들에 대한 그의 지도와 방조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였으며 사심 없는 진정의 발현이였다. 그는 상급기

관에서 소집하는 모임이나 불 일이 있어 시내에 나가는 때나 일을 마치고 돌아 오는 길에는 책방에 들리는것을 하나의 일과로 삼았다. 책방에 들러서는 새로 나온 책들을 눈 여겨 보고 자기뿐 아니라 교원들에게 필요한것들은 네다섯권씩 사들고 돌아 와 나누어 주곤 하였다. 나의 책장에도 그가 나의 교육과학적자질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사다 준 책 몇권이 꽂혀 있어 그것을 볼 때마다 그를 인상 깊게 추억하게 한다. 그는 교육자로서의 깨끗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재학기간에 학생들이 더 많은 책을 읽고 탐구사색하며 문필력을 꾸준히 키워 나가도록 추동하고 고무하였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여 개학한 첫날 입학생들과 학부교원들의 상봉모임때였다. 사회자가 학부의 간단한 연혁과 교원들을 소개하고 나서 입학생들이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였다. 한 동무가 어떻게 하면 소설가나 시인으로 될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였다. 좌중의 시선이 석인해에게 쏠렸다. 사회자가 대답을 권하자 사양하던 그가 《별것 없어. 자꾸자꾸 쓰란 말야. 습작원고가 제 키 념을 때까지 쓰라구. 그러면 알 도리가 있거든!》라고 해서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제대군인들, 성숙한 청년들이 창작적재능을 힘 써 길러야 한다는 그의 말은 뜻 깊은것이였다. 그는 학생들의 창작지도에 많은 시간과 품을 들였다. 그는 창작리론강의와 함께 토론, 연습, 실습, 실험형태의 교수를 중시하였으며 학생들이 써낸 글을 신중히 대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써낸 글을 상세히 보고 우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부족점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생기게 된 원인을 깨우쳐 주고 대안을 내놓아 끝까지 고쳐 완성하도록 힘을 주었다. 그는 교원들이 학생들의 창작품에 대한 지도를 편견과 주관을 가지고 하는것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 하였다. 그는 교원들이 학생들의 창작품을 바로 보고 평정하자면 학생들이 창작에서 기울인 사색의 전 과정을 그대로 밝아야 하며 공명정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요구하였으며 모범을 보이였다. 그는 학생들의 작품을 소중히 여기고 분석평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돌려 주었다. 간혹 학생들의 작품을 건성 보거나 질질 끌면서 제때에 보지 않거나 책장에 넣어 두고 돌려 주지 않는 교원이 나타나면 그것은 교권을 상실하는 아주 비교육적인 행동이라고 엄하게 꾸짖었다.

《선생도 학생시절에 작품을 내고는 교원의 평가와 조언을 기다렸겠지? 작품은 학생들이 고심하여 만든 창조물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 함함 하다고 한다는 말이 있지 않소. 학생들은 창조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제나저체나 교원의 평가를 기다리는데 그걸 장에 넣어 두고 묵이다니,

될 말이요? 휴지로 쓰지는 않소?》

이렇게 그는 교원들이 학생들의 작품에 대하여 옳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일깨워 주었다. 학생들의 작품에 아무 근거도 없는 《5》, 《3》 등의 점수를 매기고 《잘되었음》, 《구성을 고칠것》하고 터무니 없는 평가를 내리는 교원들에게 그의 충고와 비판은 좋은 교훈으로 되였다.

그는 학생들의 창작적재능을 키워 주는데서 문학과외소조운영에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우리는 문학소조에 망라되어 창작능력을 키웠다. 우리가 쓴 습작품속에서 우수한것은 골라 집체적인 합평을 하고 추천되면 첼필잡지에 실을수 있었다. 전후시기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대학의 인쇄출판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는 첼필잡지를 만들었던것이다. 석인해는 잡지에 실을 작품들을 심의하고 다듬어 주기도 하면서 《편집장》의 역할을 하다 싶이 하였다. 선배들의 뒤를 이어 우리가 잡지 13권, 14권을 내놓았던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아마 지금 문학예술부문지도단위에서 일하는 일군들에게는 첼필잡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고 새삼스러울것이다. 그들은 잡지에 단편소설과 서정시를 많이 낸 열성필자들이였다. 문학소조원들중에는 대학재학기간 20여편의 시를 써서 출판물에 발표한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해인가 전국대학생예술축전에서 1등으로 입선된 장막극 《격류》도 소조원이 희곡을 만들어 무대에 형상한것이였다. 그후 이 작품은 《붉은 땀》로 제목을 달고 각극으로 각색되기까지에 이르렀다. 희곡 《종이 울릴 때까지》, 《어머니》와 같은 작품들도 문학소조원들의 창작품이였다. 희곡 《어머니》는 어느 전문예술단체가 공연종목으로 선정하여 무대에 형상하였으며 한동안 극장의 관람석을 붐비게 하였다.

석인해는 제자들의 창작능력이 늘어 나는데서 교육자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였다.

한 제자가 평론의 중견대렬에 들어 섰다고 여겨질 때 그는 그의 대학생시절을 돌이켜 보면서 《피짜였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는것이였다. 늦가을의 달 밝은 밤 기숙사의 2층 침대에 누웠는데 궁금중에 잠들지 못하던 앞날의 평론가는 예라, 모르겠다 하고는 살금살금 침대 사다리를 타고 방바닥에 내려 와 신장에서 제일 말이 없고 가까운 친구의 구두를 꺼내들고 야시장에 나가 그것을 고무마와 바꾸었지. 임자는 자기 구두가 장사군의 손에 들어 간것은 모르고 흠뻑흠뻑 고무마를 배불리 먹었거든, 그래서 《구두 먹은 친구》라는 일화가 생겼어, 전후시기의 어려운 형편에서 직심스럽게도 공부를 하더니 이젠 평론계의 중견이 되었던 말이야 하고 흠족해하던 스승의 모습은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석인해를 내가 교육자라고 하는것은 그가 단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었다는것만을 넘두에 두는것이 아니다. 남을 깨우쳐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사람이 교육자가 아닌가. 석인해는 일상생활에서의 언행도 교육자적인것이었다.

그는 생활에서 절도가 있었다. 사람이 절도가 없으면 라태하여 지고 사고와 행동이 산만하고 뜻하지 않은 일을 저지룰수도 있다. 그의 생활에서의 절도는 습성으로 굳어 진것이었다.

가령 겨울에 출근하면 그는 교원들과 아침인사를 나눈다. 책상우에 가방을 놓고 자기 털모자와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건다. 가방에서 점심팩을 꺼내어 후끈후끈한 방열기우에 놓는다. 자리에 앉아 그날 강좌가 집행할 교수시간과 교원들의 출근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면 즉시 처리한다. 그리고는 계획된 하루일에 몰두한다. 오전휴식참에 신문배도실과 도서관에 가 신문을 찾고 새로 입수한 자료들을 본다. 가끔 온실에 들러 소담하게 자라고 꽃 피는 관상식물, 화초감상을 한다. ... 나는 이런 생활교육도 그에게서 받았다. 그가 여름에도 밥팩을 방열기우에 놓곤 하기에 한번은 내가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겨울에는 점심밥이 더워 지구 여름에는 식어 저 중단 말이야 하고 웃어 넘기었다.

그는 제자들을 무척 사랑하였다. 제자를 사랑하지 않는 교육자가 있으랴만 제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류별하였다. 그는 학창기간에만 아니라 졸업하고 교단에 섰거나 여러 기관에서 사업하는 모든 제자들을 잊지 않고 계속 가르치었다. 퍼그나 오래된 일이지만 나는 지방의 어느 한 고등중학교에서 부교장을 하는 동창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어느 해 초가을, 석인해는 신병으로 정주 하단에 가서 룡양한 일이 있었다. 제자가 룡양소 가까운 마을의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는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라 하루는 여가를 내어 부교장을 찾아 학교에 갔다. 해질 무렵 제자는 교정에서 스승을 반갑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제자는 운동장사이에 조성한 꽃밭을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다. 운동장으로 오르내리면서 학생들이 짓밟아 다쳐 진 꽃밭귀퉁이 흙을 깎아 내고 있었다. 그것을 목격하고 제자의 의도를 짐작한 스승은 머리를 저으며 말하였다.

《부교장선생, 그만 두시오.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학생들을 일깨워 고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자들이 피동에 빠지면 안됩니다. 오늘은 꽃밭의 한귀퉁이를 잘라 내지만 래일에는 마당 한모퉁이를 잘라 내려야 할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만 두시오. ...》

부교장은 그때에 스승으로부터 받은 충고와 교훈을 되새길 때마다 얼굴이 달아 오른다고 실토하는것이였다.

석인해는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을 거의다 기억

하고 있었다. 누구나 체험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오래동안 기억해 두는것은 험치 않다. 그는 20년, 30년전에 헤여진 제자를 불시에 만나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고 답소하곤 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이름까지도 그토록 기억하고 있는가고 감탄하면 그는 사람을 만나 눈을 쪼프리면서 기억을 더듬는것은 실례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기가 소설에 등장시킨 인물들이나 친척들 이름은 몰라도 제자들의 이름은 잊혀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를 일이라고 하였다. 왜 모를 일이겠는가. 사랑하고 정든것을 잊을수는 없으며 무관심하였던것이 기억에 오래 남을수는 없는것이다.

그의 생활에서 절도 있는 이야기는 사소한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집단생활에 좋은 기풍을 세우는데도 작용하였다. 수업시작종과 함께 교실에 들어 서고 수업끝 종소리와 같이 강의를 마치는것, 무슨 모임에든 10분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시간되기를 기다리는것들은 다 집단생활에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규률을 확립하는데서 어겨서는 안될 일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생활면에서도 그는 우리를 가르치는 교육자였다. 남 다른 실력으로 풍부한 지식을 주고 하나하나의 언행도 배워주는 그를 학생들과 못사람들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년말이 되면 그는 체신소에 나가 신년축하장과 편지봉투, 우표를 가방이 벌게 사들고 왔다. 년말부터 새해벽두의 며칠간은 그가 수많은 제자들과 친구들, 창작일군들과 신년축하장을 교환하느라고 바빴다. 우리는 그의 책상우에 수북이 쌓이는 신년축하장을 부럽게 바라보며 일을 잘하고 동지들이 많고 제자들을 훌륭히 키우는 교육자의 보람이란 저런것이구나 하고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더하여도 그의 교육자적면모를 다 담을수는 없을것이다.

우리 당은 그가 후대교육사업에 바친 지혜와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교수의 학직을 수여 받은 몇 안되는 교육과학자들중 한사람이였다.

석인해는 당에 충실한 교육자일뿐아니라 재능 있는 작가이다.

1911년 10월 23일 정주군 서호리의 농민가정에서 출생성장한 그는 향촌에서 보통학교를 마치고 신의주고등보통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이때 학생들의 반일비밀결사에 가담한것이 발각되어 졸업을 앞두고 일제경찰에 체포구금당하였으며 풀려 난 다음에는 학교를 중퇴하고 정주사립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주체20(1931)년에 회곡 《소작촌》과 단편소설 《아들의 소식》을 《조선일보》에 발표한것을 계기로 문단에 진출하였다. 작가가 류달리 애착을 가지고 있던 단편소설 《꽃 피었던 섬》에서는 조상대대로 물고기를 낚고 조개를 주

어 생계를 이어 오던 한 섬마을사람들이 일제가 강도적이고 약탈적인 어업령을 발포하고 돈 많은 자가 거머쥔 어업조합이란것이 생겨 남으로써 어장을 빼앗기고 가혹한 세납에 짓눌려 가산을 잃고 집마저 차압당하여 살길을 찾아 정든 섬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의 비참하고 억울한 생활처지를 묘사하였다.

작품에서는 섬사람들이 못 살아도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모진 세파를 헤치며 살아 오던 지난날을 그리워 하면서 일제식민지통치의 암흑현실에서 광명을 찾으려면 힘을 자라워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작품은 이러한 주제사상적내용을 빛때문에 집마저 차압 당하고 딸자식까지도 팔아야만 하는 금네아버지의 불쌍하고 가련한 정상 그리고 팔려가는 금네, 사랑하는 처녀와 헤어져야만 하는 총각의 비통한 심정, 그가 마음속에 다지는 결의와 각오를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 주었다.

석인해는 주체25(1936)년부터 7년간 외국에서 고학으로 대학공부(문학전공)를 하였다. 이 시기 그는 《로망초》, 《방황》 등 20여편의 단편소설들을 썼다. 그의 재능의 싹은 텔으나 일제식민지통치의 암흑풍토에서 그 싹은 자라날수 없었다. 조국해방전 그가 창작한 작품들에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이 뼈 아프게 겪는 당국노의 설움과 울분, 지주, 자본가놈들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근로대중에 대한 작가의 뜨거운 표정, 일제와 착취자들에 대한 증오와 항거의 정신이 깔리어 있다.

그의 창작의 참다운 길은 조국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품속에서 비로소 열리였으며 다재다능한 그의 창작기량은 마음껏 꽃 필수 있었다. 이 길에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휘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창작은 심오한 사상과 높은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석인해는 교육사업에 헌신하면서도 당과 수령에 대한 불 타는 충성심과 열정을 안고 문학창작을 잡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의 창작열의는 비상하였다. 그가 정리하여 둔 창작목록을 보면 주체45(1956)년에는 76편, 주체55(1966)년에는 77편의 글을 썼다. 그 77편속에는 1,000매 가까운 고전소설주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해의 7월 한달에만도 13편의 글을 쓴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석인해의 단편소설집으로는 《마을의 너선생》이 있고 수필집도 있다. 단편소설 《마을의 너선생》과 《력사》는 대표작이라고 할만 하다. 단편소설 《마을의 너선생》에서는 전후시기에 미제원췌들이 파괴한 학교를 복구하고 교육조건을 마련

하면서 교수사업을 착실히 해나가는 처녀교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단편소설 《력사》에서는 일제놈들의 강제징용에 끌려 가 고역을 치르다가 조국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 오는 주인공이 혁명투사로부터 듣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승리로 우리 조국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으며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혁명은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승승장구한다는 신념을 예술적으로 감명 깊게 형상하였다.

소설에는 조국이 해방된 직후의 복잡한 정세와 환경에서 수령님께서 개선하실 날을 손 꼽아 기다리는 우리 인민들의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호모와 신뢰의 감정이 넘쳐 흐르고 있다.

석인해는 특히 수필을 재치 있게 썼다. 그의 수필은 은근하고 풍부한 정서를 타고 흐르는 철학이 있고 정교하고 세련된 언어와 짜인 구성형식으로 하여 사상정서적감화력이 크다. 그 대표적작품으로는 《봄과 함께》, 《진달래》, 《꽃구름 피여 나는 거리에서》, 《술을 기리어》, 《만수대언덕우에서》를 들수 있다. 그는 수필작가로 유명했다. 내가 그를 수필작가라고 하면 혹자들은 소설을 많이 쓰고 다른 여러가지 형태의 예술산문들을 많이 창작한 그를 수필작가로 부르는것은 그가 창작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낮추고 그가 지닌 창작적재능에 대한 왜소화된 평가가 아닌가고 불만과 유감을 가질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으며 그를 수필작가라고 하는것이 그의 창작적개성을 특징 짓는데서는 가장 적중한 평가라고 여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필을 아담하게 잘 쓰면 소설이나 시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울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작가라면 평생에 사람의 기억에 남는 좋은 수필을 몇편씩은 내놓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석인해는 평생에 크고 작은 작품을 500여편이나 썼는데 그중 수필이 400여편 된다. 그의 수필은 서정이 넘치고 높은 지성을 갖추고 있는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교육자이며 작가인 석인해는 참된 인간이었다. 사람들은 량심적이고 진실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는 참인간이었어》라고 흔히 말한다. 석인해를 두고 나도 그는 참인간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는 고지식하고 겸손하며 진실하고 량심적인 인간이었다.

고지식한 그의 성미는 어디에 견줄데가 없다. 그가 대학에서 일할 때 언젠가 원산에서 있는 사범대학 교원강습에 출현한 일이 있었다. 보름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대학에 돌아 온 그는 회계과에 러비청산서를 냈다. 회계원이 그의 출장날자



에 따라 숙식비와 차비를 계산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러비청산서와 차이가 났다. 두세번 거듭 수판을 톤졌으나 맞지 않아 그에게 물었다. 회계원에게 한 석인해의 대답은 이러했다. 보름사이 네끼는 친구네 집에서 먹었고 이틀밤은 친척네 집에서 잤으며 돌아 오는 날 점심은 고원역에서 밥팩을 사먹고 렬차식당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은 혀를 찼다.

그후 그들은 이 이야기를 깨끗한 량심과 청렴결백성의 일단을 말하여 주는 이야기거리로 삼았다.

나라의 금고돈을 조금이라도 축내지 않으려는 그의 량심과 고지식함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이런것이 량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애국심이 아니겠는가. 석인해의 사람됨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다 더듬는다면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줄로 안다. 나는 그의 사람됨을 한마디만 더 보태려고 한다.

일부 편협한 사람들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선의 지식인들이 겪을수 있었던 경력의 한토막을 흠잡아 그 일을 잘못 처리하여 주체58(1969)년 5월에 그를 어랑과수농장에 내려 보내었다. 그때 나는 그와 함께 그곳에 갔었다. 그곳에 도착한 날 농장일꾼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농장 기사의 안해가 석인해의 제자이며 나의 선배인데 남편을 따라 이곳에 와서 합숙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며칠 머무르는 동안 그와 자주 만나 스승의 합숙생활과 로동에 관심하고 힘 자라는것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스승을 대하는 심정도 나와 다름이 없었다. 그 이듬해 늦가을에 합숙관리원이 평양에 왔다. 그는 나에게 한해사이 그의 생활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다. 나는 그와 헤어지던 날 자기의 복잡한 심정은 묻어 두고 나더러 어서 대학에 돌아 가 교수사업을 잘하라고 농장마을뒤 언덕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 저어 바래워 주던 스승의 정다운 모습을 눈앞에 그리면서 합숙관리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스승을 도울래야 도울수가 없어 안타깝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하루종일 진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저녁 합숙에 돌아 와서는 방을 거두고 빨래를 하고 합숙부엌에서 쓸 장작을 패고 올리리도 손질해주고... 그는 스스로 일을 찾아 쉬임없이 한다는 것이었다. 밤이면 로동자들과 마을의 남녀로소가 그의 합숙방으로 모여 들었다. 거기서는 그에게서 당의 로선과 정책해설을 비롯한 이야기를 들으며 문예작품감상을 하는것 같은 일과가 벌어 지었다.

교육자, 작가로서의 그의 사업은 어랑땅에서도 중단없이 계속되었던 것이었다.

석인해는 어랑과수농장에서 로동한 1년을 귀중한 현지생활체험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여기고 성실하게 일하였다. 그는 당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속에 1년간의 로동생활을 마치고 전문창작기관에 소환되어 창작사업에 전심 전력하다가 주체79(1990)년 7월 28일에 세상을 떠났다.

석인해는 후대교육사업과 주체문학운동에 이바지한 공로로 두차례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을 수여 받았고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 표창을 받았으며 국기훈장 1급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들을 받았고 《조국통일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애석해 하시면서 기관장으로 고인을 영결할데 대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추억은 체험자만이 할수 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스승에 대해 한 이야기는 그의 제자로서 내가 직접 목격, 체험한 사실 몇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대한 나의 추억이 지난 날 일제식민지통치말에서 갓은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조선의 한 지식인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서 성장하여 교육자, 작가로서 나라의 인재육성과 주체문학운동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하는것을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된다.

## 명언해설

《참다운 시와 가사는 레외없이 인민대중속에 있고 그의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창조되는 법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훌륭한 시와 가사는 벽찬 현실과 인민대중의 구체적인 생활속에서만 창조될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시와 가사는 고도로 함축되고 세련된 형상으로 사상감정의 정수를 노래하는 작은 형태의 문학이다. 시는 정서의 문학이며 가사는 정서가 있는

한편의 정교한 시로 되여야 한다. 시와 가사는 인민대중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인 생활정서로 깊이 있게 노래하여야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참다운 시와 가사는 혁명적량만이 차넘치고 전투적열정이 끓어 번지는 벽찬 현실과 인민대중의 구체적인 생활속에서만 창조될수 있다.

## 단편소설 《따뜻한 눈》을 읽고

《조선문학》주체89(2000)년 7호에 실린 단편소설 《따뜻한 눈》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감명을 주는 작품입니다.

미국놈들에게 원자폭탄을 제공해 준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은것으로 하여 그리고 복잡한 인생행로를 걸어 온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림병선을 처음 만나셨을 때의 감정 그대로, 우리 말을 지켜 낸 애국자로서 인간으로서 믿어 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전선에서 돌아 오시던 길에 한 농촌집에서 보시게 된 아이가 마음에 걸리시여 백리길을 되돌아가 품에 안고 오시는 위대한 수령님.

적들의 위협적인 원자탄공격설로 아인슈타인에게 분노의 화살이 쏘리고 있을 때 그를 타매하시기전에 인류문명에 기여한 공적을 더 크게 보시고 과학자로서의 선량성을 먼저 믿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의심을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으로 보시고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지켜 내야 할 무거운 사명을 스스로 걸머지고 나서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은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인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 사랑과 믿음의 화신으로 안겨 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믿고 정을 주면 천만이 따라 서지만 의심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면 천만이 홀어 진다는, 한사람한사람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믿을것이 아니라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으로부터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사랑과 믿음의 철학에 우리 혁명승리의 유일한 길이 있고 비결이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심장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셨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이겨 내고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수 있는것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저는 사랑과 믿음으로 천하를 움직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두려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는 든든한 배심과 신심을 가지고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비단천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비단옷을 입히시려는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바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조선문학》의 애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인민들에게 힘을 주고 고무를 주는 훌륭한 소설들을 더 많이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천견직공장 부원 김창준

## 내 노래 불러 대홍단아

김명익

하얀 봇나무계곡아래  
처절씩, 두만강은 굽이치고  
이깎방풍림이 북변의 고원에  
눈구름을 일으키는데  
무봉에서 흘러 내리는 홍단수가엔  
서리꽃이 한물진 아, 설달의 대홍단이어

엇그제 저물녘 백산마을쪽으로  
그이 가신 2천리 굽이길에는  
또다시 이는 눈보라  
그 눈발속으론 보여 오누나  
줄기줄기 백두산령봉이...

어려 오느니 저 백설의 자옥자옥은  
아마도 이해 눈석이칠이던가  
삼월삼칠 그날에 그이 다녀 가시여  
첫 눈보라 안고 이 계절에 또 오신 길이려니  
그렇듯 온 한해 이어 가신 그 자취는 아닌지

내 다는 몰라라  
무르녹는 봄별에  
진달래 철쭉이 그리도 붉어 대홍단이라고  
감자꽃천지를 이룬 8월이  
대홍단 너의 절경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어쩐지 12월의 이 대지를 노래하고 싶어

내 노래 불러 그이 오신 길 가신 길에  
초생달은 대흥단 들가에 뜨고  
새벽별은 철령마루에 아니 솟느냐고  
차디찬 눈바람너머  
봄의 백화를 아니 뿌려 주었느냐고

한떨기 들꽃조차 피지 않던 땅  
먼 세월 두만강 건너 떠나가는 류량민들  
눈물속에 돌아 보던 고국의 마지막 이 기슭  
화창한 락원의 첫 기슭으로 꽃피주시려  
고귀한 오늘날을 다 바치시는것이 아니냐고

어이 다 말하리 이 세월 풍상길에  
가장 많은 눈바람을 맞으시는분이  
지난 세기의 그믐달 마지막눈마저  
이 땅 항일의 옛 전구에서 맞으신분이

야전복을 입으신 그이가 아니시냐고

아, 내 나라 삼천리의 삼천리  
어려운 날에 인민의 락을 안아 온 대흥단아  
빨찌산시절 수령님과 항일의 녀장군  
군량미를 봄씨앗으로 뿌려 주신 그 년대에  
혁명의 사령부는 이 대지에 있었고

오늘날 눈보라 만리 전선길 만리에  
북방의 처녀지를 로동당의 무릉도원으로 가꾸며  
우리의 당중앙- 혁명의 최고사령부도  
여기 흰눈 덮인 5호대지에 있구나!

오, 성스러워라  
나는 이 백두고원에서 21세기를 맞이했노라!

## 선군찬가

### 류명호

인민에 대한  
사랑의 해빛을 다 모은 말이다  
선군!

이 세상 원썬들에 대한  
증오의 불길을 다 합친 말이다  
선군!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념원을 다 묶은 말이다  
선군!

아, 선군!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붉은기 없는 하늘밑에서  
어머니를 잃은 아이와 같이  
찬바람 부는 거리를 방랑하며  
청춘을 길가에 휴지장처럼 굴리고 있으리

돈이라면  
배속의 아이도 손을 내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없는 자의 설움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워  
제 손으로 목에 바줄을 매고 있을수도 있으리

잊을수 없으리  
아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피눈물속에 주저앉았던 우리 인민

겹쳐 드는 자연재해와 함께  
원썬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공장굴뚝에서 연기가 사라지던 우리 조국

아, 우리는 하나  
원썬들은 무리였던 그때  
우리 인민, 우리 조국을 지키시려고  
불철주야 전선길에서 천만고생 다하신  
우리 장군님 선군령도를 어이 잊을수 있으랴

조선혁명앞에 총대를 내세우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령도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원썬들에게 먹히우고 말았으리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할수 없었으리  
승리자의 긍지높이 21세기에 들어 서지 못했으리

무슨 말로 다 노래하랴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은  
인민에겐 생명이요 목숨이다  
원썬들에겐 자비를 모르는  
정의와 진리의 무쇠주먹이다

오, 선군! 위대한 선군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신심 드높이 21세기 한복판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존함과 같은  
선군은 사회주의운명, 21세기의 운명이다!

## 스물한발의 《포성》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의 일기중에서-

한웅빈

### 2. 군대의 철학

6월 20일,  
나는 착암공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착암조수가 되었다.

착암기를 막장의 기관총이라고 한다면 착암공은 기관총수이고 착암조수는 부사수이다. 막장에서는 착암공이 기본이다. 착암기소리가 울려야 막장은 활기를 띠고 시인들의 표현대로 하면 《거세찬 맥박으로 약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자그마한 파장도 없는 진실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착암공이 되지 않을수 있단 말인가!

착암공은 입갱할 때부터 위신 있다. 정대, 지레대, 충진물다짐대 등을 총대처럼 돌려 메고 척후병처럼 소대보다 앞장서 들어 간다.

일이 끝난 다음에는 더 위신 있다. 발파시간이 되면 소대는 다 철수하지만 착암공과 조수는 화약공과 함께 발파를 진행한다. 발파결과까지 확인하고 나오면 소대는 이미 병실로 출발한다. 착암공들은 천천히 개별적으로 들어 간다. 그러다 보니 식사도 따로 할 때가 많다.

《개별식사하는게 누구야? 질서없이!》

식당근무성원들은 짜증을 내기가 일쑤이지만 (그들은 개별식사성원들을 제일 싫어한다.) 《착암공들이요.》 하면 군소리가 짹 짹 지고 오히려 《오늘은 몇미터 나갔소?》 하면서 은근히 약간한 《특별봉사》까지 해준다.

물론 나는 이런것들때문에가 아니라 100리물길공사의 제1번 공격수로 되려는 고상한 목적에서 착암을 하겠다고 한것이였지만 이런저런 《특전》들도 싫지는 않았다.

《이 착암기의 이름은 예- <승리-508>. 우리한테 꼭 맞는 이름을 가졌지, 안 그래?》

분대장은 갱구에서 입갱시간을 기다리는 사이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다. 이날은 어찌되어선지 전교대의 발파가 늦어 지고 있었다. 다른 날이였다면 분대장은 이런 《빨래줄강의》를 하는 만족감을 맛 볼수 없었을것이다.

《중량은 약 30kg. 별로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구, 적당한 무게지... 이걸 한손으로 척척 꼬누어 내야 착암공이라고 할수 있어.》

그는 1m 반은 되게 뽀은 받침대에 착암기고리를 꿰더니 한손으로 번쩍 일으켜 세웠다가 도로 놓혀 놓았다.

《물론 이건 중요한게 아니야. 이따윈 요령이니까. 며칠 지나면 동무도 이렇게 할수 있어. 중요한건 100리물길굴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공격수라는걸 자각하는거야. 막장에선 한시라도 착암기소리가 멎으면 안돼. 그것은 공격이 멎었다는 거니까. 착암기소리가 멎으면 막장은 죽은거야. 알만해?》

《알만합니다.》

드디어 발파소리가 울렸다.

소대장은 우리 착암공들에게 말했다.

《암질이 더 굳어 지고 있소. 3소대가 오늘 발파시간이 늦은것도 그때문이요. 우리는 발파시간을 1분도 늦추지 말아야겠소. 천공깊이는 변함없는 1m 70이요. 때문에.》

그는 이때도 《때문에》로 말을 마쳤다.

《입갱 즉시 착암을 시작해야겠소.》

버력은 여느때처럼 거의 천반에 닿게 쌓여 있었다.

분대장은 큰 돌 몇개를 굴려 내어 발판자리를 만들고는 쭈그리고 앉아 착암기를 세웠다. 키 큰 사람이 좁은 공간에 그렇게 앉으니 무릎이 머리보다 더 높아 졌다. 그는 환자를 보는 의사의 눈길로 돌의 결과 암벽상태를 살펴 보고는 나에게 천반 한구석을 가리켰다.

나는 거의 주저앉다싶이 하고 정대를 착암기에 꽂고 정머리를 천반구석에 가져 갔다.

《왼쪽으로! 좀 더! 너무 갔어! 오른쪽으로!》

마치 10m 고정틀 조준렌즈때 조준술을 움직이는 만큼이나 까다롭고 조심스러웠다. 천공배치와 천공각도에 발파효과가 달려 있는만큼 그럴수밖에 없었다.

《됐어!》

분대장은 착암기발브를 반쯤 열었다. 정대가 손안에서 천천히 돌아 가며 암벽을 짓쫓아 댔다. 정날에서 튕겨 나는 돌조각들이 불꽃처럼 얼굴을 때렸다. 팔힘이 다 빠졌을 때에야 겨우 틀이 잡혔다.

분대장은 착암기위치를 바로 잡고는 만바람을 놓았다. 그러자 좁은 공간은 착암기소리와 물안개로 포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나는 실수 없었다. 막장착암에서 조수의 일은 이제부터라고 할수 있었다. 착암공이 첫 구멍을 뚫는 사이 둘째구멍을 뚫을 자리를 마련해야 하였고 천반구멍을 뚫는 사이 버력을 제껴 측벽구멍을 뚫을수 있게, 다음은 바닥구멍을 천

공할수 있게 하여야 하였다. 한 발과한 버럭을 거의 전부 파제끼는것과 다를 없었다. 잠시도 허리를 펴 사이가 없었다. 나는 첫 구멍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바닥구멍을 끝낼 때까지 좋게 표현하면 착암수의 앞에서 나가야 했고 다르게 표현하면 착암수에게 쫓기워야 했다.

그러나 나는 착암수가 된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힘들다는 그것이 나에게 나의 위치,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때문이었다.

마지막바닥구멍천공이 끝나고 막장이 조용해졌을 때에는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할만큼 지쳐 버렸다. 귀에서는 여전히 착암기소리가 울리었다. 귀안에 착암기가 두석대쯤 들이배겨 있는것 같았다. 서 있을 맥도 없었다.

그러나 《발파-》하는 소리가 울리고 화약과 함께 검은 도화선통구리가 펼쳐 지자 피곤은 간데없이 사라졌다. 피곤을 가셔 주는것은 휴식보다 긴장이었다.

《21개 맞지?》

발파수가 화약봉지에 도화선 달린 퇴관을 꽂아 넣으면서 물었다. 화약과 퇴관은 따로 가지고 와서 발파현장에서 연결하게 되어 있다.

《21개, 돌이 굳어서 보조심빼기를 주었으니까.》

분대장이 그와 함께 화약과 퇴관을 연결하면서 대답하였다. 소대장은 구멍마다 돌아 가며 막대기를 찢러 천공깊이와 각도, 청소상태를 확인하고는 말했다.

《장악하기요.》

도화선이 길게 늘어 진 화약들이 구멍안으로 연신 미끄러져 들어 가고 충전물이 다져 졌다. 잠시후 한 상자의 폭약은 21개의 구멍안으로 자취를 감추고 막장벽에는 21개의 도화선만이 남았다.

《점화준비!》

나는 불심지를 들고 도화선앞에 서 있는 분대장과 발파수에게 간데라불을 비쳐 주며 서 있었다.

가슴이 후둑후둑 뛰었다. 소대장은 막장을 휘둘러 보고 나서 구멍을 내렸다.

《점화!》

심빼기 5개의 도화선에서 거의 동시에 픽-하고 작은 파란 불꽃들이 튀겨 나왔고 곧 파란 연기를 뿜으며 타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점화에는 엄밀한 순서가 있었다. 처음에는 심빼기구멍들을 동시에, 다음은 측벽보조구멍, 천반보조구멍, 측벽구멍, 천반구멍... 바닥구멍들은 맨 마지막이었다. 그렇게 해야 쌓인 버럭을 한번 뒤집어 놓아 다음 교대의 착암과 버럭치리를 쉽게 해줄수 있었다.

바닥구멍들에 불을 달 때는 벌써 막장에 도화선 타는 파란 연기가 자욱하게 채웠다.

《철수!-》

나는 막 달려 나가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누

르며 분대장을 따라 갔다. 그들이 별로 천천히 걷는것처럼 생각되었다. 금시 뒤에서 요란한 폭음이 터질것만 같았다. 소대장은 맨 뒤에서 따라 오며 간데라불로 여기저기를 비쳐 보고 있었다. 발파에 손상 받을것이 없는가를 보고 있었다.

《발파!- 발파!-》

분대장은 입구쪽에 대고 노래라도 부르듯이 웨쳐 댔다.

우리는 막장에서 20m 쯤 나와서 대피장소로 만든 옆으로 움푹 파놓은 곳에 들어 갔다. 착암기와 공기호스는 그곳에 끌려 와 있었다. 분대장은 등글게 사려 놓은 공기호스우에 털썩 주저 앉으며 잔뜩 긴장하여 서 있는 나에게 말했다.

《아직 좀 기다려야 해. 도화선길이가 있는것만큼 대피할 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무슨 소리요?》

소대장이 그의 말허리를 툭 잘랐다.

《점화가 끝나면 지체없이 발파장소로 달려야지 흔들흔들거리는건 쓸데 없는 멋이요.》

도화선 타는 파르스름한 연기가 대피장소에까지 밀려 나왔다.

《거야 물론 그래야지요. 그러니-》

하고 분대장은 나를 쳐다보았다.

《점화만 끝나면 될수록 빨리 달아 빼야 해. 그건 도망치는게 아니란 말이야. 대피하는거지.》

발파수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폭약과는 놀음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내가 신대원이라는데서 벌어진 이야기 같았다.

드디어 막장에서 쾅 하는 첫 폭음이 울렸다. 세찬 폭풍에 간데라불이 꺼질듯 펄럭대고 돌쪼각들이 동발, 배관, 레루장들에 부딪치는 소리가 소란스레 울렸다. 폭음은 련달아 때로는 두방 세방씩 겹쳐서 울리기도 하였다. 귀가 멍멍했다.

한바탕 막장을 들었다놓던 폭음이 멎었다. 조용해 졌다. 그러나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소대장을 건너다 보는 분대장의 눈에는 불안스런 빛이 어려 있었다. 소대장의 얼굴에도 그들이 비끼는듯 했다.

그때 한발의 폭음이 쿵하고 울렸다. 소대장의 얼굴에서 그들이 사라졌다. 그는 움쭉 일어 나며 말했다.

《됐구만!》

분대장과 발파수도 따라 일어 섰다.

《예, 스물하나입니다.》

그들은 발파폭음을 세고 있었던것이다.

우리는 막장으로 향했다.

막장에는 발파가스가 짙 차 있었고 버럭은 천반에 닿게 쌓여 있었다. 우리는 거의 기다싶이하여 막장으로 들어 갔다.

소대장은 간데라불로 암벽을 비쳐 보더니 《불구멍》이라고 부르는 암벽에 남아 있는 천공자리에 막대기를 찢러 보았다. 반쯤 들어 갔다.

《10cm, 1m70을 추었겠지?》

《예, 1m60 나갔습니다.》

《1m50이요, 이쪽이 좀 살아 있었던것 같은데.》  
《웁습니다.》

하고 분대장은 네모반듯하게 자리 잡힌 막장을 훑어 보고는 소대장에게 머리를 돌렸다.

《마구리가 고와 졌지요?》

나는 막장을 두고 처녀들에 대하여 말할 때처럼 고와 졌다고 하는것이 우스웠다. 익살을 부리는듯싶어 소대장의 표정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소대장은 조금도 웃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거렸다.

《음- 정말 고와 졌소.》

플렁-플렁- 석수 떨어 지는 소리 짙은 발파가스, 날카로운 모서리를 도끼날처럼 쳐들고 쌓여 있는 버럭더미, 모든것이 너무도 거칠기만 하였다. 그러나 《고와 졌다》는 말이 얼마나 잘 어울리고 마음에 들었던지 나는 그 말을 몇번이고 혼자서 되뇌어 보았다. 막장이 고와 졌다 막장이 고와 졌다!...

우리는 공기호스를 막장 안대목에 끌어다 놓고 공기를 차단시키느라 꺾어 댔던것을 풀어 놓았다. 그래야 새 교대가 들어 올 때까지 압축공기가 발파가스를 얼마간이라도 몰아 내줄수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소대는 세수와 복장정돈을 마치고 서서 소대장의 총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한창 세수할 때 소대는 총화를 짓고 병실로 출발했다. 대렬합창소리가 울렸다.

결전으로 부르는 당의 목소리

우리들의 젊은 피 뚫게 하누나

우리 착암수들은 천천히 세수를 하였고 옷을 갈아 입은 다음 역시 천천히 병실로 향했다. 발을 맞출 필요도 대렬합창을 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은 어느 구대원도 누릴수 없는 특전이었다.

착암수만이 누릴수 있는 《특전》이었다....

6월 23일

착암은 삽시에 나를 신대원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나는 당당한 구대원이 된듯 하였다.

갱도에서는 항상 자질구레한 일들이 무수히 기다리고 있다. 버럭이 수시로 떨어 지는 레루길들을 청소해야 하고 보수도 해야 한다. 동발을 끌어들일 때나 광차가 탈선되었을 때는 소대가 모두 달라붙어야 한다. 물이 질벽거리지 않게 배수로도 파야 한다. 그러나 착암공들은 그런 일들에 불려대지 않았다. 신성불가침의 존재에 가까웠다. 자질구레한 일들은 거들떠보지 않아도 괜찮았다. 착암은 나에게서 신대원이라는 느낌을 거의 잊어버리게 해주었다....

중대속보판에는 내 이름이 큼직하게 났다.

《박철이라는게 누구야?》

교대를 마치고 그옆을 지나는데 구대원들 몇명이 속보판을 보며 말하고 있었다.

《2소대에 온 신대원이야.》

《일할줄을 아누만! 할바에야 착암을 해야지.》

《잡도리부터가 다른 친구야.》

《두고 봐야 알지.》

나는 얼른 그옆을 지나쳤다. 그러나 그 말은 귀가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꿈속에까지 따라 왔다. 꿈에서는 그 말이 좀 더 길었다. 《두고 봐야 알지, 가마 뚫는 소리보다 쟁개비 뚫는 소리가 더 높다더구만. 그게 5분열도라는걸세.》

나는 잠에서 깨어 나 일어 나 앉았다. 누군가 그 말을 나의 귀에 대고 한것만 같았다. 밤일을 끝내고 돌아 온 소대는 누구나 다 자고 있었다. 내 옆자리의 강정희상등병도 코로 풀무를 불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인지 불현듯 갈증이 났다.

나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물통 있는 곳으로 가는데 3소대에 배치 받은 내포래의 두 친구가 삽과 마대를 들고 지나 갔다.

《어데 가?》

《흙 파려.》

《흙은 왜?》

《충진물로 쓸거지. 그 흙을 쓰면 발파효률도 높아 지구 발파가스도 적어 진다는것 같아. 참 동문 착암수이니까 더 잘 알겠구만.》

나는 귀가 솔깃해 졌다. 충진물이 발파효률과 발파가스에 영향을 준다는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같이 가자구.》

나는 마대를 하나 얻어 들고 그들을 따라 섰다. 갈증은 어느 사이 사라져 버렸다.

《착암을 해보니 어때? 힘들지?》

《그저 그렇지 뭐, 처음엔 병실에 들어 와서도 귀안에서 그냥 착암기소리가 울려서 혼 났네.》

《우리 소대장동진 내가 착암을 하겠다니까 군대생활을 좀 더 해야 한단나?》

《그건 왜?》

《글쎄.》

흙이 있는 곳은 가깝지 않았다. 거의 반시간 걸렸다.

커다란 바위와 바위사이에 오소리굴같이 파들어 간 곳이 있었다. 벌써 여러 사람이 파간것이 알려졌다.

한마대씩 채워서 지고 떠났을 때는 또 한시간이 지났다. 흙 한마대는 퍼그나 무거웠다.

현장창고에 이르렀을 때 나는 마대와 함께 거의 쓰러지다 싶이 하였다. 질빵 팔을 뺨을 기운 조차 없었다. 마대우에 벌렁 누운채 눈도 뜨지 못하고 헐떡거리는데 갑자기 누군가 질빵을 벗겨



주며 수군거리었다.  
 《빨리 벗고… 일어 나라구.》  
 눈을 뜨니 강정희상등병의 긴장한 얼굴이 내려다 보고 있었다.  
 《아, 상등병동지!》  
 어떻게 알고 왔을가. 그는 더 한층 긴장하여 수군거렸다.  
 《빨리!… 빨리!…》  
 그는 몹시 불안해 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키자 앞에 서 있는 소대장을 보았다. 벌떡 뛰여 일어 섰다.  
 《소대장동지! 전사…》  
 얼음장 같은 소대장의 시선에 나는 입이 굳어졌다. 소대장의 눈썹이 화살처럼 곤두서 있었다. 그의 뒤에서는 소대원들이 침울한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동문 누구에게 보고하고 갔소?》  
 소대장의 첫 물음이었다.  
 나는 설명을 서둘렀다.  
 《저- 이 흙이 충진물로 좋다기에…》  
 그러나 소대장은 내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보고하고 갔는가 말지요?》  
 《…》  
 《동문 도대체 군대요. 사민이요? 군인은 한순간을, 한발자국을 대렬에서 떠나도 상관에게 보고하고 움직여야 한다는걸 모르는가! 보고없이 병영밖으로 나가는건 탈영이란 말이요!》  
 《?!》  
 소름이 쭉 끼쳤다. 탈영, 군인에게 이보다 더 무섭고 불명예스런 선고가 무엇이 또 있을가. 소대장은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다. 나는 다시한번 사연을 설명하려 해보았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변명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자유주의! 공명심!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이 난다더니! 동무때문에 무슨 소동이 일어났는가 말지요?》  
 《…》  
 그때야 나는 구대원들의 옷차림에 눈길이 갔다. 어떤 구대원들은 산발을 훔었는지 바지가랑이에 우엉씨들이 잔뜩 붙어 있었고 분대장과 강정희상등병의 옷은 버럭과 석수에 젖어 있었다.  
 《이런 자유주의 무질서는 처음이요! 신대원만 아니라면 음-》  
 소대장은 획 돌아 섰다.  
 《1분대장동무, 소대를 다시 취침시키시오.》  
 《알았습니다!》  
 소대는 병실로 돌아 왔다.  
 《취침준비!》  
 나는 한시라도 빨리 구대원들의 시선으로부터 모포속으로 꺼져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분대장은 취침구령을 내릴 대신 개여 놓은 내 옷에 시선을 박았다.

《이건 뭐요? 옷정돈을 다시!》  
 강정희상등병이 도와 줄듯 손을 내밀었으나 《강정희동무!》 하는 모가 선 목소리에 얼른 움츠러뜨렸다. 그리고는 입속말로 웅얼거렸다.  
 《차근차근하라구.》  
 나는 옷을 다시 개여 놓았다. 그러나 분대장은 눈살을 더 찌프렸다.  
 《다시!》  
 소대는 모포를 가슴앞에 올린채 취침구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분대장은 소대장에 이어 나를 소대의 비난의 대상으로 내세우려고 결심한듯 싶었다. 세번째로 옷을 갈 때 내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는사이 눈물이 툭툭떨어 떨어 졌다. 마침내 취침구령이 내려왔다. 내 눈물을 보아선지 마침내 옷정돈이 제대로 되어선지…  
 《취침!》  
 나는 모포를 머리에까지 뒤집어 썼다. 눈물은 그냥 흘러 내렸다.  
 《여, 됐어, 그만하고… 자라구, 어서.》  
 옆에서 강정희상등병이 수군거렸다. 그러나 내가 모포만 더깊이 뒤집어 쓰자 그는 꺼지는듯 한 한숨소리를 내고는 조용해 졌다. 그 한숨소리때문인지 도무지 잠들수 없을듯 싶던 나는 1분도 못되어 깊은 잠에 빠져 떨어 지고 말았다.…

6월 24일  
 발파를 하고 갭에서 나오자 분대장은 전에없이 독촉해 댔다.  
 《세수를 하고 빨리 옷을 갈아 입소. 소대가 기다려.》  
 나는 무슨 말인지 알수 없었다. 소대가 기다린다는건 무슨 뜻인가.  
 어쩌든 소대는 분대장의 말대로 착암수들이 대렬에 들어 선 다음에야 총화를 지었고 병실로 출발했다. 의심할바없이 나때문에 만들어 진 폐외의 질서였다. 《못된 송아지》의 엉덩이에 난 뿔을 도로 이마에 붙여 주기 위한 질서였다. 나는 구대원들앞에서 얼굴을 들수 없었다.  
 병실에 이르러 대렬이 헤쳤을 때 나는 분대장에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나때문에…》  
 분대장은 무슨 말인가 하는듯 잠시 눈을 깜빡거리더니 벌컥 화를 냈다.  
 《동문 군대야, 사민이야? 군인이 대렬을 서서 다니는거야 웅당한 일인데 미안이라는건 뭐야? 이건 완전히 엉터리라니까!》  
 《…》  
 그는 한숨을 쉬었다.  
 《하긴 동무를 탓할것도 없지. 내탓이니까. 신대원이 처음부터 대렬에서 떨어 저 다녀 버릇하면 무슨 군인다운 군인이 되겠나? 군인이란 항상 대렬속에 있는데 습관되어야 해. 대렬 없인 군인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 소대에 《새 질서》가 생겨 났다.

6월 25일

소대는 조차장에서 전교대의 발파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차장은 비교적 넓었고 천반도 허리를 펴수 있을만큼 높았다.

나는 한쪽구석에 착암공구들을 내려 놓고 앉아 있었다. 분대장은 정날을 가느라고 연마기에 붙어 있었다.

말시키는 사람이 없는것이 다행스러웠다. 누구와 마주 서든 위축감에서 벗어 날수 없었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사그라질줄 모르는 분함과 억울함, 야속함... 나는 틀림없이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소대의 《새 질서》는 갈데 없는 나에 대한 《처벌》이었다. 그러면 군대에서는 그 어떤 자각적인 열성도 필요 없다는것일까. 그럴수는 없었다. 그러면...

그때 누군가 내옆에 와서 털썩 앉았다.

《고민하는군?》

위생지도원이었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중대에는 이미 우리 소대의 《새 질서》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위생지도원은 내가 대답하기라도 한듯 머리를 끄덕거렸다.

《고민하라구, 고민하는건 좋은거야.》

《?!》

화가 났다. 군대에서는 구대원들이 신대원들을 놀려 주기 좋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즐거운 기분을 위해서이다. 위생지도원은 내 기분상태따위는 아랑곳없이 제 흥에 겨워 놀려 대는것 같았다. 나는 흘깃 지름머리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려 대는듯한 능청스런 미소는 그림자도 없었다. 정색한 얼굴이였고 침울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동문 건강한 육체라는것이 어떤건지 아나?》

《...》

나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위생강의》파위를 받을 기분상태가 아니었다. 천반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 졌다.

《동문 자기 몸에 붙어 있는 팔이나 다리, 머리가 부자연스럽게 느껴 질 때가 있나? 없지? 그건 바로 동무가 건강하다는걸 말해 주는거야. 이런 말이 있지. 자기에게 심장이 있다는걸 느끼지 못하면 심장이 든든하다는걸 의미한다는.》

《...》

그게 어떻다는것인가, 빨리 가주었으면...

《건강한 유기체는 자기 몸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어느 부분의 피로를 특별히 느끼지 않아. 자기 몸이 여러 부분이 모여서 이루어 졌다는걸 느끼지 못하는게 바로 건강한 유기체거든.》

《...》

《그런데 우리 군대가 바로 하나의 유기체와 같

은거야. 군대를 왜 가장 힘 있는 집단이라고 하겠나? 그건 우리 군인들이 남 달리 체격이 크거나 힘장사여서가 아니야.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집단이기때문이야. 그 어느 부분에도 이상이 없고 잘 조화된 건강한 육체와 같기때문이란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 보라구. 심장이 별로 빨리 뛰다면 심장자체로선 열성적인 행동일수 있지만 사람전체로 보면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나. 한쪽 다리가 특별히 걸음을 크게 내디딘다면 그건 절름발이구 한눈이 특별히 잘 본다고 하면 애꾸눈이에 가까운거지. 우리 인민군대는 가장 건강한 육체로 되어야 해. 온몸의 조화된 운동이 바로 힘이야. <일당백>이라는...》

나는 어느 사이 그의 앞으로 돌아 앉아 있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는 빙그레 웃었다.

《무슨 그래서가 또 있겠나? 그저 그렇다는거지, 레를 들어 어느 한 팔이나 다리 또는 눈이 제멋대로 다른 부분보다 더 맹렬히 움직였다고 하자구. 그러면 그 몸은 곧 피로를 느끼고 따라서 힘을 쓸수 없게 될게란 말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는듯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동무의 행동이 바로 그랬거든. 동무 혼자라면 참 훌륭한 일이겠지, 자랑할만한. 그러나 중대 소대로 놓고 보면 부자연스레 빨리 움직인 한쪽 팔이나 다리와 같았거든. 우리 인민군대의 소대, 중대들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힘 있는 유기체로 되어야 하는데 말이야, 가만!》

그는 몸을 쑥 일으켰다.

《저 배판에서 바람이 새는것 같지? 팽차가 나가며 쪼아 놓았나?》

그는 서둘러 그곳으로 갔다...

《무슨 <강의>를 받았나?》

분대장이 정대들을 소란스레 내려 놓으며 물었다. 정날을 세우면서도 이쪽을 그냥 보았던 모양이었다.

《위생지도원동지가 정말 이야기를 재미 있게 하는구만요.》

나는 자신의 활기가 스스로도 놀라왔다. 분대장은 내 말에 동의했다.

《원래 이야기군이야.》

《군대는 집단이라고 우리 몸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꼭 무슨 철학가 같습니다.》

《철학가?》

분대장은 히죽이 웃었다.

《그렇게야. 의사들이란 대체루 철학가 비스름한데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저 알지.》

《그럼 분대장동지도 철학갑니다.》

《엉터리 없는 소릴!》

분대장은 화를 냈다.

《철학가는 무슨 철학가야? 내가 철학가면 세상에서 온통 철학가투성이게? 그제 내가 알고 있는건 우리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주의는 그 어떤 몇사람의 영웅적행동이 아니라 집단지영웅주의라는거야.》

그는 정날을 손으로 쓸어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입대했을 때 몇살이였는지 알아?... 광산에서 착암을 한 3년 했지. 그러니 벨통두 사나웠구, 우쭐렁대기도 좋아 했어. 여기에 와서는 더했지. 나만한 착암기능공이 없었으니까. 애도 많이 먹였지, 육도 많이 먹었구...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군대복무란게 판게 아니야. <나>를 잊어 버리는게 군대복무야. <나>라는걸 잊어 버리구 <우리>가 되는거지. 그러게 군대에선 모든데에 <우리>가 붙질 않나? 우리 중대, 우리 소대, 우리 분대, 우리 병실, 우리 착암기... 군대복무라는건 <우리>가 되는거야, <내>가 없어 지구... 저마다 <내>가 그냥 남아 있으면 아마 저 엉터리 철학가 위생지도원의 말처럼 한쪽 다리나 팔이 제 멋대로 놀아 나는 몸뚱이 같아 지겠지, 안 그래?》

《웁습니다! 정말 신통합니다!》

분대장은 나의 감탄에 역시 감탄으로 대답했다.

《동문 확실히 기자야! 감동이 빠르거든!》

《예?》

나는 약이 올랐다. 그는 내가 일기를 쓰는것을 처음 보았을 때 짐짓 눈을 크게 뜨며 《이것 봐라! 우리 분대에 기자가 왔구만!》 하고 놀려 주며 나를 당황하게 했었다. 그런데 이때 또 그 말을 되새긴것이었다.

《아, 거 자꾸 기자, 기자 하지 마십시오! 싱겁게-》

나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상관에게 이런 투로 말하다간 군인답지 못하다고 경을 칠수 있었다. 그런데 분대장은 탓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빙글거리며 말했다.

《싱겁단 말이지, 그럴수밖에 있나? 내 키가 얼마만지 알아?》

갑자기 이야기가 키로 돌아 가는 바람에 나는 뻥-해졌다. 그러자 그는 그럴줄 알았다는듯 히죽 웃었다.

《1m80이야, 안 싱거울수가 있어?》

웃지 않을수 없었다. 나의 웃음에 그는 아주 만족해 했다. 정대를 돌려 메면서 활기 있게 말했다.

《자- 들어 가자구!》

따라 가면서 나는 나의 웃음에 그토록 흐뭇해하던 그의 표정을 생각했다. 나의 웃음이 그토록 기뻛을가. 까닭없이 《우리》라는 말이 떠올랐다.

《우리! 우리! 우리!》 이 말은 일하는 동안 줄곧 귀가를 떠나지 않고 울렸다....

발과가 끝난후 나는 분대장과 함께 밖으로 향했다.

《분대장동지. 빨리 갑시다!》

《왜?》

《소대가 기다릴텐데...》

말해 놓고 나는 아차 했다. 금시 분대장이 《허- 박철이가 제법이다?》 하고 놀려 뭉갸만 갈았다. 그러나 분대장은 그런 티는 조금도 없이 진지하게 말을 받아 주었다.

《그래, 빨리 나가야지.》

소대는 어느 때처럼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소대장은 우리에게 세수할 시간도 주지 않고 소대를 정렬시켰다. 대렬에 들어 설수밖에 없었다.

소대장은 대렬을 쭉 훑어 보더니 말했다.

《전사 박철, 대렬 3보 앞으로!》

나는 당황했다. 내가 오늘 또 무엇을 잘못했는가. 분대장이 나에게 힐끗 시선을 보냈다. 《뭘해?》 하는 뜻이었다. 나는 한발자국, 두발자국, 또 한발자국, 대렬앞으로 나섰다.

《뒤로 돌아!》

나는 소대와 홀로 마주 서게 되었다. 서른쌍의 눈이 나를 마주 보고 있었다. 나는 나의 차림새와 얼굴을 그들의 눈으로 헤아려 보았다. 버력에 얼룩지고 석수에 젖은 옷, 돌가루와 착암기름 자국이 그대로 있는 얼굴...언제나 《군인은 항상 복장이 단정해야 하오.》 하고 말하는 소대장이었다. 나오는 길에 대충이라도 씻고 나왔을걸. 소대장이 금시 《이 동무의 어디에 군인다운데가 있소?》 할것만 같았다.

소대장은 대렬 우측으로 가서 섰다.

《소대 나란히!- 차렬!-》

그리고는 나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신입대원으로서 오늘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전사 박철동무에게 소대장의 권한으로 감사를 줍니다!》

《?!》

나는 당황했다. 한순간이 지나 분대장의 맹렬히 꺾벼거리는 눈과 소리없이 눈만큼 맹렬히 열렸다 닫혔다하는 입을 보고서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생각이 미쳤다.

《조국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소대장도 내가 규정의 요구를 잊었을가봐 걱정했던 모양이었다. 내가 제대로 대답하자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던것이다. 그는 손을 내렸다.

《쉬엇!》

박수소리가 울렸다. 구대원들의 박수소리였다.

순간 나는 눈앞이 뿌예짐을 느꼈다. 이거 내가 우는게 아닌가. 이 무슨 창피인가!

《소대 우로 돌았! 병실 향하여 앞으로 갓!-》  
뒤에는 나와 분대장, 착암수들만이 남았다.  
나는 소대장이 나의 눈물을 보았고 창피스러워  
할가봐 소대를 급급히 출발시킨것만 같았다. 아  
마 그랬을것이다.

...착암수들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 입으며  
나를 놀려 댔다.

《사람도 원, 소대장동지가 대렬감사를 주는데  
그게 뭐가. 얼른 썩썩하게 대답할 대신 얼음판에  
선 소처럼 눈만 뜨부럭대다니... 동무네 분대장  
이 얼마나 바빴으면 몰밖에 난 물고기처럼 입을  
열면 스무번 열었다단았다 했겠나?》

분대장은 히죽히 웃었다.

《그래도 이 친군 내가 입대했을 때보다는 한참  
나아. 입대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소대  
장이(물론 지금 소대장동진 아니구) 나에게 <소  
대장의 권한으로 구두감사를 줍니다.> 하질 않겠  
나? 내가 구두감사가 뭐구 서면감사가 뭔지 알게  
뭔가. 그래서 대답한다는게 <구두까지야 뭘, 전  
뭘 그저 지하죽이면 됩니다.> 하질 않았겠나?》

물론 허튼 소리였다. 《구두감사》라는 말이 규  
정에서 없어 진게 어느 옛날이라구...

병실로 가면서도 구대원들은 그냥 나의 어리뻑  
뻑해 있던 모습을 흉내내며 놀려 댔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눈물을 보였다는데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듯 한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  
다...

6월 26일

요령주의와 모험

오늘 전교대에서는 불발이 하나 있다는것을 알  
려 주며 인계하였다. 불발이 된것은 측벽구멍이  
였다. 불에 탄 도화선이 폭풍에 끊어 저 나가고  
3~4cm 쯤 되게 남아 있었다.

분대장이 혹이나 하는 기색으로 조심스레 잡아  
당겨 보느라니 중간에서 툭 끊어 지며 도화선  
한 토막만 끌려 나왔다. 원인은 알수 없었다. 분  
대장은 쓴 입을 다셨다.

《시끄럽게 됐는데?》

불발구멍을 처리하려면 좌우옆으로나 상하로 2  
0cm 사이를 두고 평행되게 새 구멍을 뚫어서 발  
파해야 한다. 시끄럽지 않을수가 없다.

분대장은 잔뜩 눈살을 찌프리고 불발구멍을 보  
다가 머리를 돌려 막장을 돌려 보았다.

《소대장동지가 안 보인다?》

《좀전에 중대장동지가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래?》

어쩐지 기뻐 하는듯 하여 나는 의아해 졌다.

《왜 그러니까?》

《왜는 무슨 왜야? 정대나 잡으라구.》

그는 지체없이 착암을 시작했다. 불발을 처리  
하는 구멍이 아니라 천반구멍이었다. 정대가 5cm  
쯤 들어 가자 그는 착암기를 끄고 버럭을 제끼는

나를 불렀다.

《착암기를 잡아 보겠나?》

나는 귀를 의심하였다.

《정말입니까?》

《동무라구 언제나 조수만 하겠나? 한번 해보라  
구, 잡아 놓은 천공각도를 잘 지키면서!》

《예!》

나는 착암기를 덩석 잡았다. 적어도 조수질 대  
여섯달 지나야 잡아 볼수 있다던 착암기였다. 왜  
갑자기 나에게 착암기를 훌쩍 내맡길가 하는 의  
혹따위는 가질 사이가 없었다. 분대장의 생각이  
금시 달라 질가봐 덤벼 치며 착암기를 잡고 공기  
변을 열었다.

착암기의 통쾌한 진동이 두팔을 걸쳐 온몸으로  
흘러 들었다. 온몸의 근육이 푸들푸들 뛰었다.  
이때의 내 심정은 아마 중기관총 압철을 처음 놀  
려본 부사수만이 이해할수 있을것이다. 여느 때  
에는 귀를 메는듯 하던 착암기소리도 이때는 높  
게 들리지 않았다. 사수의 귀에 자기의 총소리는  
높게 들리지 않는법이다.

나는 완전히 착암기속에 빠져 버렸다. 다른 모  
든것은 망각해 버렸다.

갑자기 옆에서 착암기소리보다 더 높은 벼락치  
는듯 한 목소리가 울렸을 때에야 나는 망각에서  
깨여 났다. 소대장이었다. 천둥같이 분노하여 분  
대장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정신 있소?》

나는 그렇게 성이 나서 소리치는 소대장을 본  
적이 없었다. 치솟아 오른 눈썹이 화살처럼 날아  
가지 않는것이 이상스러운 지경이었다. 소대장  
의 앞에는 분대장이 그 큰 키를 꺼져부정하고 서  
있었다.

나는 황급히 착암기를 꺾다. 신대원에게 착암  
기를 맡겼다고 추궁하는줄로 알았다. 그러나 영  
문을 알게 되자 잔등으로 식은 땀이 쭉- 흘렀다.  
분대장이 5mm 철근으로 만든 구멍청소대로 불  
발구멍을 파내다가 소대장에게 들킨것이였다. 충  
진물은 벌써 다 파내고 숟가락꼭지 같은 청소대  
들에 하얀 화약가루가 한덩어리씩 끌려 나오는중  
이였다.

그제야 나는 분대장이 왜 나에게 착암기를 맡  
겼는지를 알게 되였다.

《동문 안전규정을 모르오?》

《압니다.》

《안다구? 알면서도 이 놀음이요? 구멍 하나 더  
뚫기가 그렇게도 싫었소? 그렇게도 일을 쉽게  
해먹고 싶었소?》

소대장의 시선이 나에게로 휩 돌아 왔다.

《동문 왜 보고도 가만 있었소? 신대원이라구?  
규정을 지키는데서는 구대원과 신대원이 따로 없  
소!》

《...》

나는 물랐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추궁의 화살

이 분대장에게서 나에게 옮겨 온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직속상관이 추궁 받는 옆에 서 있기는 자기가 추궁 받는것보다 더 따이 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분대장으로서의 자기때문에 전사가 추궁 받는것이 더 급했을것이 분명했다.

《소대장동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모험을...》

《모험?》

소대장의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이건 모험이 아니라 요령주의요! 무서운 요령주의! 모험은 용감한 사람들이 하는거요!》

이렇게 소대장은 한마디로 분대장을 요령주의자, 비겁쟁이로 규정해 버렸다.

《다시는...》

《듣기 싫소! 동무의 목소리가 나에게서 죽은 사람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소! 착암기를 이리 가져 오오!》

마지막말은 나에게 한것이였다.

《저 불발구멍에 막대기를 꽂소! 그리고 정대!》

나는 정대를 가져다 착암기에 꽂았다.

《20cm 아래에 대오!》

분대장이 다가섰다.

《소대장동지, 제가 하겠습니까.》

《비키오! 동문 죽은 사람이요!》

소대장은 공기변을 열었다. 정대는 불발구멍 20cm 아래에서 정확히 평행선을 그으며 암벽을 파고 들어 갔다. 소대장은 천공이 끝날 때까지 분대장과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직 불발구멍만 노려 보았다. 그는 정말로 분대장과 나를 죽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 불발구멍을 나와 분대장을 《죽인》 원썬로 보는것 같았다.

천공을 끝냈을 때에야 눈빛은 저르기 누그러진 듯 했다.

《소대장동지.》

분대장의 어조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소대장은 그때야 착암기를 넘겨 주었다. 그러나 기색은 여전히 풀어 지지 않았고 버럭 실는 곳으로 나가며 짹짹 말을 남겼다.

《동무문제는 상급에 보고하고 결론을 받겠소.》

나는 분대장에게 물었다.

《소대장동지가 정말 우에 보고할가요?》

《보고할게야.》

《난 그럴것 같진 않은데요?》

분대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동문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오늘 소대장동지가 왜 그렇게 노하고 나를 죽은 사람이라고 했는지 알아야 돼. 만일 일이 잘못되었더라면 내가 죽는것은 물론이고 동무도 그리고 막장에서 일하는 소대도 몽땅 변을 당했을거란 말이야. 이게 보통 일인가. 그렇게 되었으면 소대장동지는 군사재판이야, 아니, 군사재판전에 스스로 자기를 처벌해 버렸을거야. 바로 그런 사람이야. 우리 소대장동지는...》 《...》

분대장은 잠시후에 혼자말처럼 하였다.

《보고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을거예요. 아, 소대장동지도 그렇지. 자기 소대의 분대장이 처벌 받는게 좋겠어요?》

분대장은 나를 건너다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한심하군!》

《왜요?》

《내가 뭐 내가 받을 처벌이 무서워서 그러는줄 알아? 내가 처벌을 받으면 소대장동진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때문이야. 소대장동지도 이걸 알고 있지.》

《?...》

그러나 나는 소대장이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6월 28일

나의 예견은 맞지 않았다. 소대장은 《불발사고》를 상급에 보고하였고 분대장은 처벌을 받았다. 처벌은 중사로부터 하사로의 강직이였다. 소대장은 분대장의 예견대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엄중경고》였다.

《그건 한평생 당생활에서 지워 지지 않는거야.》

하고 분대장은 더 말을 못했다.

그것이 정말 그렇게 엄중한 사고였을가. 아무 불상사도 일어 난것은 없지 않았는가....

6월 30일

군인과 시간

《명령 받은 전사에게 시간은 생명이다!》

이것은 갱입구에 서 있는 대형속보의 제목이다.

오늘 우리 막장에서는 석수가 터졌다. 며칠전부터 석수가 눈에 띄게 많아 지더니 (불발사고도 석수로 하여 일어 난것으로 판명되였다. 구멍안에서 나오는 석수가 화약을 적시고 퇴관까지 적신것으로) 오늘은 마침내 터져 나왔던것이다.

뚫는 구멍마다에서 물이 찰금찰금 흘러 나와 줄곧 투덜대던 분대장이 측벽구멍을 뚫다 말고 《이거 착암기가 왜 이리 푸득푸득거려? 기름이 말랐나?》 하고 화를 내며 착암기를 떼어 놓혀 놓았다.

《기름통을 가져 오라구!》

그런데 그때 구멍에 박혀 있던 정대가 (거의 한뼘은 들어 갔었다.) 안에서 누가 밀어 던지기도 한듯 툭 튀어 나왔다. 정대는 바닥에 떨어 졌는데도 구멍에서는 무엇인가가 그냥 잇달려 나오고 있었다. 마치 정대가 끝없이 길어 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듯 한 착각이 들었다.

분대장의 얼굴이 창백해 졌다.

《석수다!》

끝없이 길어 지는 정대처럼 보이던 그것은 물줄기였다. 수압이 보통 아니였다. 놀람기도 하였

고 재미 있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막으려고 하고 보니 재미 있게 볼것이 아니었다. 나무를 깎아 물구멍에 함마로 때려 박고 물러 서자 땡-하고 튀어 나오고 때려 박으면 또 튀어 나오고 그러더니 급기야 구멍이 사발만 큼 커지며 썩-하고 기둥 같은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다. 마치 담벽안에 양수기라도 있어 만가동하고 있는듯 했다. 막장에는 순식간에 물이 철렁 철렁 고였다.

《동발!》

분대장이 소리쳤다. 앞을 비쭉하니 깎고 여력이 힘을 합쳐 구멍에 처박았다. 그러나 함마로 때려 박기도전에 땡-하고 빠져 나왔다. 얼마나 큰 물주머니가 있는지는 가량하기 어려웠다. 빨리 막지 못하면 막장이 침수되어 버릴것이다. 두 번째 틀어막다가 또 밀려 났을 때 소대장이 들어왔다.

그는 잠시 물구멍을 노려 보더니 동발을 쳐들었다. 만일 석수에도 눈이 있었다면 소대장의 눈길에 기가 질려 버렸을것이다. 구멍앞에 다가선 그는 몸을 뒤로 젖히었다가 앞으로 숙이며 나무통을 힘껏 처박았다. 그리고는 밀려 나지 못하게 가슴으로 버티었다. 옆에서 함께 떠미는 우리의 손에도 높은 압력으로 내미는 석수의 광란이 미쳐 왔다. 소대장의 몸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무통은 소대장의 가슴을 꿰뚫고 나올듯 했다.

드디어 내리쬐리던 물의 흐름이 멎은듯 나무통이 더는 떨리지 않았다.

《함마!》

땡-땡- 함마소리가 울렸다.

드디어 석수는 멎었다. 그러나 막장의 물은 이미 무릎을 넘었고 뚫어 놓은 구멍에서도 물이 줄줄 흘러 나오고 있었다.

소대장이 분대장에게 물었다.

《천공은 얼마나 됐소?》

《바닥구멍을 못 뚫었습니다.》

《광차로 물을 퍼내지요!》

한쪽으로는 물을 실어 내가고 한쪽으로는 바닥구멍을 뚫었다....

착암이 끝났을 때는 누가 먼저 불렀는지 모두 만세를 불렀다. 만세란 통쾌할 때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다.

한창 막장을 철수할 때 발파수가 폭약을 지고 들어 왔다. 그는 막장을 둘러 보고 입을 딱 벌렸다. 물은 다시 차올라 무릎을 넘는데다 구멍마다에서 석수가 작은 시내물처럼 흘러 나오고 있었다.

《방수는 했겠지?》

분대장이 발파수에게 물었다.

《하기는 했는데 이건 물이 너무 많구만!》

발파수는 구멍마다 충전물다짐대를 찰려 보더니 머리를 흔들었다.

《미라한데?》

미라하다는것은 불발이 있을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방수대책을 취하려면 한시간나마 걸려야 한다.

《시간이 없소. 발파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소.》

소대장은 발파수에게 물었다.

《이 상태로 몇분이나 견딜수 있소?》

《3분... 5분까지는...》

《2분은 견디겠지?》

《2분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2분이면 도화선이 뒤편까지 타들어 가는 시간이다.

소대장은 우리에게 말했다.

《내 결심은 이렇소. 2분내에 장약도 점화도 끝내고 철수까지 하도록 하자는거요. 도화선에 불을 달면서 장약함시다.》

나는 가슴이 후두둑 떨렸다. 그것은 모험이 아닌가... 그러나 분대장과 발파수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위험하고 긴장한 정황일수록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분대장은 히죽이 웃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하면 도화선이 물에 젖을 틈이 없으니 아주 안전합니다.》

《준비! 충전물, 다짐대, 불심지!》

《다 준비됐습니다!》

《점화준비-점화!》

도화선에서 파란 연기가 폴폴 이는 폭약들이 구멍으로 밀려 들어 갔다. 뒤이어 충전물이 다져진다. 점화, 장약 사방에서 도화선들이 연기를 펄펄 뿜고 있다.

《50초... 55초... 1분... 순서를 삭갈리지 마오. 충전을 든든히! 침착하게! 1분 10초...》

부지중 폭탄을 안고 적진으로 뛰어 드는 영화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우리 모두가 그 영화속에 있는것 같았다.

《1분 40초》

막장은 도화선 타는 푸른 연기로 가득찼다.

《장약 끝!》

《철수!- 전속력으로!》

도화선 타는 연기는 대피장소에까지 차 있었다.

우리가 대피장소에 뛰어 드는것과 거의 동시에 폭음이 울렸다. 돌파편들이 날아 나와 동발에 폭폭 박히고 배관과 레루장에 부딪쳐 튀겨 났다. 연속되는 폭음과 폭음...

드디어 폭음이 멎었다. 21발, 하나의 불발도 없었다.

막장으로 들어 가 보니 결과는 아주 좋았다. 그렇게 사납던 석수는 물주머니가 다 진했는지 아니면 발파에 놀라 도망치고 말았는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분대장은 장담했다. 《우리 마을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잘 나오기에 더 크게 하려



고 암반에 발파를 했는데 물이 싹 없어 저 버렸거든. 그래서 물이 뛰었다고 했지.》) 가물철의 시내물처럼 맥없이 흘러 나오고 있을뿐이었다. 막장도 네모반듯하게 잘 자리 잡혔다.

《아주 멋 있는데! 하던중 제일 잘된것 같지 않습니까?》

《제일 잘되기까지야.》

소대장은 우선우선했다.

《그저 쓸쓸한 편이지.》

그는 시계를 보고 말하였다.

《제일 잘된건 시간을 일본도 초과하지 않았다는거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부지중 갱입구에 서 있는 대형속보의 글발을 생각했다.

《명령 받은 전사에게 시간은 생명이다!》

6월 30일 (계속)

모험과 용감성 그리고 생명...

우리는 의기양양해서 막장을 나왔다.

소대는 채 나가지 않고 중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발파를 하는지 알게 되자 발이 떨어 지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땀습니까?》

《잘- 땀소! 1m60!》

《만세!-》

하루동안에 벌써 두번째로 터져 오른 만세였다. 어려움과 보람은 정비례하는것인듯 했다.

《자- 빨리 나가시오.》

우리는 좁은 구간을 벗어 나 비교적 넓은 조차장에 이르렀다.

그때 소대장이 멈칫하고 앞을 보더니 모자를 바로 쓰고 웃웃자락을 잡아 당겨 펴며 찌렁찌렁 울리게 소리쳤다.

《소대- 섯! 차렷!-》

때 아닌 구렁이었다. 소대는 못 박힌듯 섰다. 소대장은 거수경례를 붙이고 발을 탕탕 구르며 정보로 걸어 나갔다. 그의 발밑에서 잔돌맹이들이 튕겨 났다.

그때야 우리는 앞에서 장령과 대좌들을 보았다.

《소장동지! 소대는 전투를 끝내고 철수중에 있습니다. 소대장 소위 전호진!》

그곳에는 부대장과 우리 중대 지휘관들도 있었다. 소장동지는 쉬엣구령을 내리게 하고는 소대장에게 말하였다.

《석수를 막았는지? 용해. 그리구 모험적인 발파도 했으며, 응? <모험군>이야. <모험군>!》

우리는 소장동지가 벌써 그 일들을 알고 있는데 놀랐다. 우리가 한창 석수와 싸울 때 중대지휘관들이 들어 왔던 모양이었다. 함께 석수를 맞았을수도 있었다. 발파하는것까지도 지켜 본것은 아닌지... 《모험군》이라는 소장동지의 말이 우리는 마음에 들었다. 칭찬처럼 들렸다.

그러나 소대장은 달랐다. 소장동지의 칭찬에 그는 발꿈치를 소리나게 모았다.

《모험이 아닙니다. 소장동지!》

《모험이 아니라? 불을 달아 장약하고도?》

《다른 방도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것은 모험이지만 더 다른 방도가 없을 때 하는 일은 모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는 말이지?》

소장동지는 물방울이 떨어 지는 천반을 쳐다보았다.

《방수대책을 취하고 발파할수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 교대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우리 소대는 오늘 받은 전투명령을 수행 못하게 됩니다.》

《흠!- 그러니 모험이 아니라는거지?... 젊은 소대장이 능청스러운데?》

하고 말한 소장동지는 자기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듯 머리를 저었다.

《능청스런게 아니지. 능청스런게 아니야. 사실이지. 그건 모험이 아니야. 용감성이지. 응?》

《저-》

소대장은 인차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소장동지는 크게 웃었다.

《겸손하기까지 하군, 응?》

《...》

소장동지는 정색하였다.

《소대장동무, 소대를 정렬시키시오.》

소대가 정렬하고 소대장이 보고를 하자 소장동지는 통투무레한 손을 군모에로 올려 갔다.

《경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당에 대한 충성심을 안고 훌륭한 전투성과를 거둔 동무들을 축하합니다!》

소대의 합창에 온 갱도가 흔들렸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소장동지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با이었다. 눈섭도 희끗희끗했다. 우리는 아들, 아니 손자벌이나 될것이였다.

《음, 동무네 여기에 그 강급처벌을 받은 분대장이 있다고 했지. 그게 누구요?》

분대장이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 났다.

《하사 오운섭!》

소장동지는 동발에 걸터 앉아 있었고 우리는 그앞에 침묵이며 어랭이들을 깔고 빙 둘러 앉아 있었다.

《동무야? 그대 군대질을 몇년이나 했나?》

다른 사람이 군대복무를 군대질이라고 했다면 무척 우스웠을것이지만 소장동지가 그렇게 말하니 군대복무라는 말보다 더 무게 있게 들렸다.

《4년입니다!》

《4년? 4년이면 로대원인데 그런 놀음을 했나?》

분대장의 얼굴은 붉어 졌다가 창백해 졌다.

《교치겠습니까! 다시는...》

소장동지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야 안되지 응, 우리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군사복무에서 요령을 부리려고 해서는 안돼. 요령으로 군사복무를 하는건 자본주의나라 군대야. 우리는 다르지. 우리는 인민군대란 말이야 응, 당의 군대지. 당에서 하나를 하려면 하나를 하고 둘을 하려면 둘을 하구... 당에서 하라는건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이구 장군님은 곧 당이기때문이야.

군대질을 4년이나 했으면 생각이 있어야지. 구멍 하나를 쉽게 먹겠다고 그런 <재간>을 부리면 되나? 기껏 잘된대야 구멍 하나를 덜 뚫으겠지. 그러나 잘못되면 막장에 있는 동지들이 어떻게 되었겠나, 응? 군대는 무슨 일을 하던 동지를 생각해야 해. 자기가 아니라 동지를 먼저 생각하는게 우리 군대야.》

그는 동발밑에서 주먹만한 버럭돌을 집어 들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모서리들을 눈 여겨 보더니 도로 내려 놓았다.

《사고는 물론 나지 않았지. 그렇지만 동무는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동무를 처벌 준거야. 동무네 소대장도 처벌을 받았구. 처벌 받았지, 소대장?》

《옛, 받았습시다!》

《의견이 있나?》

《없습시다!》

《처벌 받아야 돼. 응? 처벌을 받고 좋아 할 사람이야 어데 있겠나, 그렇지?》

가벼운 웃음들이 일었다. 《아바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만 이 처벌은 칭찬보다 더 필요한거야. 군인이란 일단 필요하다면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야지. 그러나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군인 한 사람한사람의 생명은 귀중한거야. 우리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생명은...》

그는 우리를 쭉- 둘러 보았다.

《오직 하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있는거야. 허투루 버려서는 안되는거란 말이야.》

권양기실에서 신호등이 깜박거린다. 새 교대의 첫 광차가 다 찬 모양이다. 우릉우릉- 권양기소리가 울리고 레루복판으로 늘어져 있던 쇠바줄이 팽팽해져 철썩철썩 침묵을 때리기 시작했다. 광차가 올라 오고 있었다.

《그전에 왜놈들이 우리 조선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아나? 한사람의 조선사람은 무섭지만 열사람의 조선사람은 무섭지 않다고 했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개개의 조선사람은 강하지만 몽칠줄을 몰랐지. 몽칠수가 없었어.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하나로 뭉쳐 있소. 일심단결, 응, 이 일심단결의 앞장에

우리 군대가 서 있다는걸 알아야 해. 일심단결은 우리, 군대가 지켜야 해. 그러면 미군놈이든 일본놈이든 다 이길수 있어.》

《아바이》는 몸을 일으켰다. 우리도 모두 따라 일어 섰다. 그는 나에게서 시선을 멈추었다.

《신대원이냐?》

《전사 박철!》

《군복을 입고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섭섭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섭섭했을수도 있어, 처음에는. 그러나 우리 군인들은 어디에 있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거야. 전쟁때 불타는 1211고지에서도 갱도공사를 했어. 응, 그들도 1211고지 용사들이었구...》

덜커덩 쿵쿵, 광차들이 레루길을 울리며 끌려 올라 오고 있었다. 막장쪽에서는 착암기소리가 예리한 기관총사격소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쇠썩거리며 배관을 흘러 가는 거센 압축공기소리, 포연처럼 머리위로 흘러 가는 발파가스...

《군인에게선 손에 쥔것이 무엇이던, 그것이 착암기던, 동발톱이던 모두 총대로 되여야 해. 군인은 총대를 잡은 사람이거든. 때문에 군인이 잡는 것은 어랭이든 밥주걱이든 다 총대로 되는거고 응, 군인은 그 자신이 곧 총대라고 할수 있는거야. 그래야 군인이야.》

소장동지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천천히 말을 맺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이지. 나도 동무들도 다-》

...

밖에 다 나오도록 분대장은 말이 없었다.

저녁이었다. 산마루에서는 아침보다 몇배로 더 커지고 붉어진 저녁해가 무르익은 사과빛의 석양을 휘뿌리고 있었다. 희속희속하던 버럭더미들도 갱구의 오리나무며 떡갈나무의 푸른 잎사귀들도 석양의 폭포속에 잠겨 있었다. 광차바퀴에 닿을대로 닳은 레루장의 은백색표면들에서는 저녁해빛이 반사되어 눈을 부시게 했다.

그 빛에 눈을 쏘프리고 있던 분대장이 문득 뭐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예?》

《이게 철학이란 말이야. 이게!》

《...》

《군인은 곧 총대구 우리는 장군님의 총대라는 이게 진짜 철학이란 말이야. 우리 군대의!》

하고 그는 나를 자기앞으로 와락 끌어 당겼다. 내가 서 있던 레루길로 광차들이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다음호에 계속)

## 강산도 몇번 변했건만 외 1 편

김석주

내 몇해만에  
고향집 어머니앞에 설 때  
지팡이를 감추고 나섰습니다  
이 아들때문에 어머니가 걱정할가봐

하지만 어머니눈이야 속일수 있겠습니까  
...네 그 몸으로 출근한다니 용하다  
지팡이를 짚으려무나  
그러다 넘어 지기라도 하면 어쩔려구...

강산도 여섯번은 변했을 그 세월  
변함없이 한결 같은것이 어머니사랑인가  
나라 위해 어려운 일 다 맡아 한 몸  
주저않지 말고 넘어 지지 말고  
끝까지 곳곳이 걸어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내 걸음마 익히던 그 시절에 들던  
어머니의 그 말을  
머리 희여 진 오늘 눈물속에 다시 들읍니다  
...아야 그러다 넘어 질라

## 기억에 남는 이름이라면

누구의 묘비에나 그렇게 새겨 저 있더라  
이름  
난날  
사망한 날

비문처럼 누구나 난날과 죽은 날만 있고  
산 날들은 없던가  
누구나 그저 갔다가 그저 왔는가  
세상에 살았던 흔적도 없이

아니더라, 누구나 같지 않더라  
생략  
함축  
묘비명에도 시의 법칙이 작용한것이더라

비문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점선들로  
온 한생이 생략되었더라

꿈과 리상,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인생의 길고 짧은 그 세월이

하기에 산 날들이 있게 산 사람  
그 이름이 말해 주더라

값 있게 산 날들을  
비문에 써여 있지 않은 그 한생을

사람들은 그 이름과 함께 추억하며 회상하며  
영원한것을 읽더라  
비문의 무수한 점선들에서 생동하는 글자들을  
조국을 위해 살며 일하며 투쟁한 흔적들을

먼 후날 한사람이라도 그 이름을 기억할수  
있다면  
그는 인생을 빛이 남게 산 사람이여라

## 탄전의 미래는 시작부터 좋다 외 1 편

리명옥

퇴근길 이맘때면 늘 만나는 어린애야  
오늘은 너의 탄차놀이엔 친구가 많아 졌구나  
나비코비닐신에 무득히 탄을 싣고  
뽕뽕 그 팔기 같은 입술새로 경적소리 울리며  
어디로 가는것이나

저녁밥 짓는 냄새 구수한 집뜨락을 벗어 나  
어느새 철이네 집 대문앞을 지나는 너의 자동차  
지금 가려는 곳은 어디?  
유년의 너의 꿈이 나래치는 그곳은 어디?

혹시 유치원이야기시간에 들은 탄줄기 찾아  
태고적원시림을 향한건 아닌지  
내 어이 알라 유년에 굶이치는 그 많은 꿈  
꾸거라 욕심스레 그리고 드세차게  
검은 금바다가 네 발밑에 있지 않느냐  
조국이 있지 않느냐

네 좋아 하는 착한 짐승들이 모두 있는  
동화책처럼  
이 땅엔 너를 위해 뭐든지 다 있지  
진리와 행복과 복된 미래  
네 일생의 크나큰 담보가 다 있지

지금 이 시각도 너희들의 그 꿈을 위해  
막장에선 아버지가 세발파썰다  
옥이누난 열번째 탄차를 떠나보내고  
너무 기뻐 눈물이 다 글썽했더라  
아 얼마나 좋을것이나 너희들의 미래는...

그래 너희가 오늘은 비닐신에 탄을 끌었다만  
래일은 지하의 보화를 통채로 끌어 올려  
내 나라 강성대국을 세상 으뜸으로 빛내거라  
축복한다  
탄차놀이로 해 지우는 유년의 그 앞날을  
탄전의 미래는 이렇게 시작부터 좋구나!

## 룡등천에서

순돌이 어머니, 철이 누나...  
이 아침엔 벌써 높아 졌구나  
팡팡-빨래방치소리  
산나물 씻는 너인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언제 잠을 깨고 어느새 밥을 지어  
남편들과 자식들을 출근길에 내세우고  
이른 아침의 고요한 내가를  
발파소리마냥 혼드는것인가  
부지런한 새벽별 룡등의 너인들

흙썩-두발을 찬물에 잠그고  
이렇게 내물복판에서 와락와락 행구어야  
탄부의 웃을 빠는 멋이 있다며  
함박웃음 터치는 저 순이엄마  
채탄공남편의 입맛을 돋구려  
고개고개 넘어 친정집 다녀 온  
어제밤 그 피로는 내물에 씻겨 가네

아 이 룡등천의 흐름은  
룡등의 너인들 정의 흐름이런가  
유정한 이 내물 줄기차듯

너인들 정으로 가득찬 한가슴도 즐기차  
룡등탄은 고난속에서도 빛을 내는것인가

남편들의 밥그릇엔 쌀알을 더 골라 담고  
자신들의 밥그릇은 감추며  
집걱정 마시고 탄만 더 캐라  
웃으며 바래우고 웃으며 맞이해 주는  
속 깊은 이 너인들

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때  
진정으로 남편들의 수고를 헤아리며  
작은 치마폭에 생활의 어려움을 다 감춰 안고  
밝은 웃음만을 뿌려 주던 너인들  
이 의지 강한 너인들이 탄전에 없었더라면  
오늘의 진군길에 어이 탄부가 있을것인가

조국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준엄한 곳에서  
억년 주춧돌처럼 사나이들을 받들고 선  
이 미더운 너인들을 조국은 눈물나게 아껴  
주나니  
아 나도 되고 싶어  
조국이 사랑하는 이런 너인으로...

## 해후

강귀미

북과 남, 해외교포의 학자들의 의학과학토론회에 온 한 해외교포의 학자의 안내를 맡은 정민은 젊음에 넘친 활기 있는 걸음으로 고려호텔에 들어 섰다.

이른 아침이어서 호텔안은 아직 조용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 가는 계단승강기로 향하며 둘러 보니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한사람이 시야에 들어 왔다.

정민이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XX대학 최명성박사였다.

정민은 승강기에 오르려다 말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선생님, 밤새 안녕하십니까?》

책에서 머리를 든 박사는 정민을 알아 보고 반색하였다.

《아, 안내선생이구만. 안녕하오?》

《선생님은 일찍 일어 나신것 같습니다? 지난 밤에도 늦게야 자리에 드셨는데...》

정민은 단정한 박사의 옷차림과 30~40페이지는 되게 번져진 책을 보며 말하였다.

《예, 난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 3시면 일어나는데 습관되었습니다.》

하고는 혼자소리처럼 덧붙였다.

《남들처럼 새벽에 늦잠까지 잤다면...》

그는 《미국땅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수 있었습니까?》 하고 말할듯 했으나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이렇게 말을 맺었다.

《이런 과학토론회에 올수 있었겠습니까?》

《...》

박사는 책속에 다시 머리를 묻어 버렸다.

정민은 그러는 박사를 존경에 차서 바라보았다.

검은 머리칼이 한오리도 보이지 않는 흰 머리, 그 흰 머리칼 한오리한오리가 약육강식의 미국땅에서 박사가 한생을 기울인 생존과 성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인듯 싶었다.

박사가 신은 하얀 운동화가 또한 류달리 눈에 띄었다.

점잖고 틀스러운 외모에 어울리지 않게 청년들의 신발로 통하는 운동화를 신고 있는 박사.

사. 정민은 언젠가 어떤 과학자는 뇌수가 울리고 사색에 방해된다고 구두가 아니라 해면을 두툼하게 댄 운동화만을 신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 박사선생도 아마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인것이라...

토론회장인 인민문화궁전으로 가는 승용차안에

서도 박사는 역시 책에 파묻혀 있었다.

정민은 그에 대한 찬탄을 금할수 없었다.

세계의학계에서 난치의 병으로 되어 있는 암치료에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 놓아 미국뿐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는 최명성박사였다.

그의 토론을 들으며 정민은 조선민족은 확실히 두뇌가 비상한 민족이라는 긍지까지 느꼈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성공한 과학자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하고 그는 그때 생각했었다.

세계의학계가 떠들어 대고 세계 각지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배우려고 찾아 오고 있다니 당당히 성공한 과학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도 그는 이 찜시간에조차 책에서 머리를 들지 않고 있다.

문득 정민은 박사가 토론할 때 제시했던 록화물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다. 대학강의실과 연구소의 실험실, 여러 곳에서 박사가 강의하는것과 실험지도를 하는것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머리를 뻑뻑 꺾었었다. 얼핏 보면 중들이 모여 앉은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 장면을 돌이켜 보느라니 정민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옆을 보니 박사는 눈이 피곤한지 책에서 차창 밖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었다.

정민은 히죽이 웃으며 물었다.

《박사선생님, 요즘 미국에서는 아마 뻑뻑 꺾은 머리가 유행인가 보지요?》

정민의 물음에 박사는 알아 듣지 못하기라도 한듯 그를 건너다 보며 기계적으로 되뇌었다.

《꺾은 머리가 유행인가구요? 글썄요...》

《어제 선생님의 록화물을 보니 제자들이 모두 머리를 뻑뻑 꺾었더구만요.》

《아, 그것 말인가요?》 하고 그제야 묻는 뜻을 알아 차린듯 말했으나 왜서인지 대답대신 《허허...》 하고 웃기만 했다.

어덴가 공허하게 느껴 지는 웃음이어서 정민은 의아함과 당황함을 동시에 느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 차가 인민문화궁전에 도착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러명의 해외동포의 학자와 우리 나라 의학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모든 토론제목들이 세계의학계의 주목을 끌만큼 가치 있는것들이었다.

제일 마지막에 평양의학대학 강좌장 장운복이

《인공대퇴골두제작과 림상적응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하였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 새로운 발견은 아니었다.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인공대퇴골두를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인공대퇴골두로 쓰이는 금속의 재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나라 자체의 특수강으로 해결하였다는것이 기본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참가자들에게 더 깊은 인상과 여운을 남긴것은 토론자의 맺는 말이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연단은 제가 설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마땅히 저의 스승이며 은인인 유수진선생님이 서야 옳을것입니다...》

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에 미국놈들의 폭격에 앓은뱅이가 된 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산천군인민병원 유수진원장선생님이 대지를 확보하도록 해주었고 의학의 길로 이끌어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이 논문에도 원장선생님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토론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요란한 박수갈채가 오래 계속되었다.

토론회가 끝난후 휴게실에서는 의학자들의 상봉이 있었다.

북과 남, 해외의 의학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유독 최명성박사만은 한쪽 구석에 있는 쏘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화석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정민은 그에게 슬며시 다가가서 물었다.

《선생님, 몸이 편치 않으신게 아닙니까?》

그제야 놀랜듯 정민을 올려다 본 박사는 《아니, 아니요.》 하고 손을 내저었다.

《그런데 안색이 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그저 혼자서 좀 생각하고 싶은것이 있어서...》 하고 중얼대듯 하던 박사는 정민이 머리를 숙여 보이고 물러 가려 하자 급히 손을 내밀었다.

《선생, 마지막으로 토론한 그 선생 잊지 않소.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실 없겠소?》

정민은 《그 <대퇴골박사>말입니까?》 하고 의아스레 되물었다. 별로 새롭지도 않은 문제를 토론한 그를 왜 만나려 할가. 놀랄만한 문제를 제기한 토론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러나 박사는 다시 한번 《그 선생을 만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최명성박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작된 《대퇴골박사》인 평양의학대학 강좌장 장윤복의 인생담은 정민의 심금까지도 크게 울려 놓은 이야기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윤복은 3살이었다. 세

상에 태어나 3년도 채 되기전에 그는 모든것을 잃었다.

아버지는 전선에서 돌아 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미국놈들의 폭격에 세상을 떠났다.

또한 어머니를 빼앗아 간 미국놈들의 폭격은 어린 윤복이까지 불구로 만들었다. 다친 다리가 가드라들면서 일어 설수 없는 앓은뱅이로 되어 버렸던것이다.

그는 애육원이라는 큰 《집》에서 자랐다. 윤복이 예닐곱살이 되던 어느 봄날. 군인민병원의 의사선생이 애육원으로 검진을 나왔었다.

그 의사는 아이들모두가 운동장에 나가 떠들썩하게 뛰노는데 창가에 오도카니 앉아 부럽게 내다보기만 하고 있는 한 소년을 보았다.

그가 바로 윤복이었다.

애육원의 검진을 마치고 윤복을 특별히 오래동안 진찰한 의사선생은 《너는 나와 같이 가자. 너는 반드시 일어 서야 한다. 미국놈들 보란듯이 두다리로 이 땅을 걷게 되어야 한다.》 하고 윤복을 업고 병원으로 돌아 갔다. 아니, 집으로 갔다고 하는것이 옳을것이다. 윤복은 의사선생의 집에서 살게 되었던것이다.

그때 의사선생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너와 나는 이제부터 함께 싸워야 한다. 너와 나의 미국놈들과의 싸움은 이제부터이다.》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수술, 꾸준한 물리치료, 윤복은 그 치료를 받으면서도 나이에 해당하는 학교과정을 거쳐야 하였고 의사선생은 밤 늦도록 의학서적을 파고 들었고 여러가지 동물실험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둘이 다 지칠대로 지치고 고통으로 쓰러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의사선생은 자신과 윤복을 일으켜 세우곤 했다.

어느 날 의사선생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결사전에 들어 서게 된다.》

그때 윤복은 그 말뜻을 채 알지 못했다.

수술장에 들어 가 대수술을 겪었을 때에야 깨달았다.

윤복의 다리뼈에는 의사선생의 뼈가 이어 지고 15살때에는 드디어 대지를 걷게 되었다. 그대신 의사선생은 다리를 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윤복은 의사선생이 왜 갑자기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전쟁때 상처가 도져서 그런다.》고 의사선생은 말했던것이다.

의학대학에 다니면서야 윤복은 알게 되었다.

의사선생은 의학탐구의 나날에도 어릴 때처럼 윤복을 이끌어 주었다.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선생님이 나를 업고 학교로 갈 때나 병원으로 치료하러 갈 때 나는 물론 했지요.

<선생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의례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득 명성박사가 장운복에게 물었다.

《로튼할 때 그분의 이름이 유수진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웁습니다. 지금도 그 산천군인민병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원장으로.》

《유수진… 그분은 그곳 태생인가요?》

《예, 원장선생님은 현재 계시는 산천군 산천읍에서 10여리 떨어진 향수리가 고향입니다.》

《향수리…》

박사는 잠시 후에 물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장운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에는 선생님의 심혈도 깃들여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논문을 위해 수십년동안 간수해 오신 귀중한 수술자료들까지 저에게 넘겨 주시었습니다.》

《…》

호텔로 향한 차안에서 명성박사는 언제나 보곤 하던 책은 차뒤좌석 한쪽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은 채 줄곧 눈을 감고 있었다. 자는지, 생각에 잠겼는지…

다음날 아침 호텔에 들어 선 정민은 언제나 박사가 앉아 있곤 하던 홀의자에서 그를 볼수 없었다.

정민은 의아하여 호실로 올라 가보았다.

박사는 호실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민은 갑자기 혈압이라도 높아진 것이 아닌가고 짹짹 놀랐다.

그러나 박사는 아픈데도 없고 다만 예견되어 있던 견학을 하지 않고 오늘 하루 휴식했으면 하는 의향이였다.

다음날 아침, 정민은 전날 침대에 누워 있던 박사의 모습이 밝혀 와 격정스런 기분으로 호텔에 들어 섰다.

한데 예상외로 레의 그 의자에 흰 와이샤즈를 산뜻이 입은 명성박사가 앉아 있는것이 아닌가.

정민은 기뻐다.

그런데 박사의 손에 뿌리 내린듯 하던 책이 이날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민을 보자 서둘러 마주 나오더니 다짜고짜로 산천군인민병원으로 유수진원장을 만나보러 가자고 하는 것이였다.

《산천군으로요?》

정민은 얼떨떨해서 되물었다.

《예, 거기에 가보도록 해주시요.》

박사의 어조는 의외라 할만큼 간절하였다.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얼마후 정민과 명성박사를 태운 승용차는 산천군으로 달리고 있었다.

(왜 갑자기 산천군으로 가자고 하는것일가.)

정민은 의혹을 풀수 없었다.

명성박사는 아무 말없이 자고 있는듯 눈을 감고 있어서 물어 볼수도 없었다.

그런데 평양시교외를 벗어 나 산천군으로 가는 도로에 들어 섰을 때 돌아 보니 명성박사는 차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길을 따라 차창밖을 본 정민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두엄을 실은 소달구지가 천천히 굴러 가는데 소옆에서는 콧직하게 만 썬레기담배를 입에 문 나이지긋한 농장원이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어찌 담배연기가 푸짐하게 쏟아져 나오는지 얼굴이 연기속에 묻혀 뿌연게 보였다.

다음은… 저건 또 뭐가?

자동차가 길옆에 서 있는데 마치 화재라도 난듯 삼단같은 연기를 뿜어 올리고 있다. 대용연료차인데 가스가 잘 오르지 않는 모양이다. 운전사와 조수는 검댕이투성이얼굴로 불을 쐬고 있는데 적재함에서는 여러명의 청년들이 웃고 떠들다가 승용차에 대고 손까지 흔들고 있다.

(음, 하필 이런것만 눈에 띄다니?)

명성박사는 뒤차창으로 돌아 보기까지 한다.

정민은 얼굴이 화끈해 짐을 느꼈다.

저런 광경을 보며 박사는 어떻게 생각할가.

(어쩌면 일도…)

1시간쯤 지나서 차는 산천군소재지에 들어 섰다.

돌아 보니 군인민병원은 소재지옆의 야산밑에 있다는 것이였다.

차는 곧 야산기슭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군인민병원이 100m도 되나마나하였다.

문득 박사는 차에서 내려 걸어 가자고 하였다.

박사와 정민은 차에서 내렸다.

얼마쯤 걷자 그들의 앞에 연미색외장재를 바른 크지 않은 2층짜리 건물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산천군인민병원이었다.

정민에게는 문득 룡화로 본 명성박사의 연구소와 실험실이 떠올랐다. 벽전체에 유리를 붙여 번쩍거리는 건물, 최신식실험기구들…

그에 비해 볼 때 이곳 병원은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하였다. 류다른 특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입원실에 회진 들어 갔다는 원장을 기다리면서 명성박사와 정민은 병원마당을 거닐었다.

마당은 매우 넓었는데 마당이라기보다 넓은 밭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였다. 밭과 차이라면 이곳

의 땅에는 빈틈없이 화단들이 꾸려져 있는 것이었다. 마치 화초원이라도 꾸려놓은 것 같았다.

그런데 화단들 곁에 가까이 가보니 매 나무와 꽃들은 다 약초들이었다.

질팡이나무, 오수유나무, 은행나무, 살구나무들과 구기자, 은초롱, 목향, 결명자, 박하, 모란꽃, 패랭이꽃, 나팔꽃, 도라지...

매 나무와 약초들마다에는 그 이름과 용도를 쓴 명판들이 매달려 있거나 세워져 있었다.

얼마나 또박또박 정성스레 명찰을 달았는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장난꾸러기들조차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을 상 싶었다.

한쪽구석에는 활짝 핀 목화화단이 있었다.

다리아, 국화, 장미꽃 등 관상용꽃의 아름다움에 습관된 정민에게는 대부분이 자그마한 꽃인 약초꽃들이 눈에 차지 않았다.

병원이 좀 더 크고 화단이 더 화려했다더라면 박사에게 주는 자극이 있었을 것을!

너무도 모든 것이 평범했다. 병원건물도 화단들도...

얼핏 박사쪽을 바라보니 그는 목화밭앞에서 허리 굽히고 젖빛 흰색 목화꽃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왜선지 박사는 병원을 돌아 보면서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그러면서도 세심하게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볼 뿐이었다.

드디어 위생복차림의 나이 지긋한 원장이 나타났다. 크지 않은 키에 생김새도 유별난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원다리를 약간씩 저는 것이 첫눈에도 유묘하게 알렸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장 유수진입니다. 저를 찾아 오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민이 손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발치에 나타났다를 때부터 원장을 유심히 지켜 보던 명성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사람 수진이, 나를 모르겠나?》

원장은 의문과 상대를 알아 보지 못하는 미안함이 겹친 표정으로 마주 보기만 하였다.

《누구신지?...》

그러자 명성박사가 의외에도 눈물에 젖은 듯한 목소리로 시 한수를 읊는 것이었다.

고향의 자랑

쌍피리명수 너와 나

네가 가면 나 홀로

어찌 피리 부나

두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번개처럼 부딪쳤다.

《명성이, 명성이 아닌가!》

《수진이!》

그들은 뜨겁게 포옹하였다.

옆에서 그들을 지켜 보던 정민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두사람은 어릴적친구사이였던가!

원장은 박사의 가슴을 두드리며 웨치듯 말했다.

다.

《자네 어디에 갔다가 이제야 고향에 왔나? 응?》

《꼭 선여섯해만 일세.》

선여섯해! 선여섯해만의 소꿉시절친구들의 상봉, 해후라도 이런 해후는 참으로 희한한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나무그늘아래 의자에 앉았다.

정민은 그들의 상봉에 방해될까봐 약간 떨어진 곳에 앉았다.

《장검다리에서 헤어질 때 우린 그 노래를 불렀었지.》

아득히 흘러간 소년시절의 추억을 더듬는 원장의 말에 명성박사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번에 조국으로 올 때 비행기안에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옛 시구절이 떠오르지 않더구만.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서 자네가 고쳐 주었다는 앓은뱅이 고향소년 있지 않나. 장운복선생 말일세. 그의 토론에서 자네 이름을 듣는 순간 구절 구절 다 떠오르지 않겠나.》

백발이 된 박사의 얼굴에서 옛 시절의 소년 명성을 그려 보는 듯 눈을 찔프리고 그를 바라보며 원장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다시 만났구만!》

박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날 하루종일 나는 자네가 어떻게 달라졌을가 하고 생각해 보았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르구만.》

《너무도 다르다.》 정민은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여 보며 원장을 보았고 주위를 둘러 보았다.

너무도 수수한 늙은이, 위풍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저 보통 농촌군병원 원장이다.

크지 못한 2층짜리 건물, 박사의 록화테프에서 본 그런 요란스런 의료기구도 없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아름다워져 목이 우거지고 잔디가 깔린 정원도 없는, 자름자름한 약초밭들에 둘러싸여 있는 수수한 병원, 그사이 박사도 학사도 되지 못한 친구...

여기로 오면서 명성박사는 선여섯해만에 보게 될 옛 친구와 고향의 모습에 대하여 어떻게 그려 보았을가. 지금 그는 눈앞에 마주한 옛 친구와 고향의 모습을 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가...

수진원장은 소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야 그저 예전 그대로지. 자네 이야기나 들어보세.》

원장의 말에 명성박사는 두손을 깎지 끼며 머리를 저었다.

《내 이야기라는데 무슨 특별한게 있겠나? 고향 떠난 인생들이 겪기 마련인 그러루한 생활을 겪었을뿐이지. 좋은 일자리를 얻었다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서울로 나갔다가 8.15후에는 미국으로 건너 갔지. 벌써 선네해가 됐구만...》

명성박사는 말을 멈추고 왜서인지 긴 숨을 후-내불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쳐들고 마당 한구석에 서서 바람결에 살랑이는 은행나무웃초리너머 먼 하늘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국땅에서 덧없이 흘러 가 버린 자신의 한생을 더듬어 보는것인가, 그의 눈에는 짙은 추억의 감정이 어려 있었다.

은행나무가지에서는 까치 한마리가 고개를 가웃거리며 낮 선 이방 손님을 머무랄 같은 눈알을 또록또록 굴리며 내려다 보고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하건만 그 누구도 주인도 손님도 정민도 무겁게 드리운 이 침묵을 선뜻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미풍에 설레이는 나무상수리너머, 련련히 뻗어 간 산발우에 가없이 펼쳐 진 푸른 하늘가를 바라보고 있을뿐...

끝없이 이어 지는 침묵에 지루해 난듯 까치가 쫓지를 출썩이며 이야기를 재촉하더니 더는 참을 수 없는듯 제 먼저 짹짹 소리를 냈다.

그제서야 명성박사는 정적을 깨치며 입을 열었다.

《낮 설은 이국땅, 미국땅에서 내가 선네해동안 겪은 일들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겠나.

뭐라고 할가. 그저 생존경쟁의 포가니속에 휘말려 들어 친척도 친구도 인정도 의리도 도덕도 체면도 없는, 오직 승리만을 인정하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니 더 정확히는 살아 남기 위해, 남보다 높이 올라 서기 위해 이를 악물고 모지름 쓰며 살아 왔지.

그렇게 피 타게 노력한 결과라 할가, 나는 그 곳 의학계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게 됐네.》

명성박사는 두손을 깎지 끼더니 힘을 주었다.

뼈마디 튀는 소리가 으드득 났다.

《내가 암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내자 그 성과를 놓고 미국과 세계의 의학계가 벽적 떠들어대더군. 별의별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를 찾아 들었지. 마치 내가 세계적인 천재라도 되는것처럼 추어 주더군. 어느 때는 앵글로 색슨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나를 미개한 동양인이라 은근히 깔보며 멸시하던것들이 말일세.

그때 나는 행복감을 느꼈네. 자신의 한생을 성공한 생애라고 자부하며...

그때 나에게는 로씨야의 작가 푸르케네브가 남겼다는 말이 떠오르더군.

<고향밖에서는 행복이 없나니>

그러나 나는 이 말을 부정하고 싶었네.

<고향 아닌 땅에서도 나는 행복을 찾았다.>고 말일세.

그런데 어느 날 동포들이 나를 찾아 오질 않았겠나. 나를 축하해 주려고 말이네. 그렇게 많은

동포들이 나를 찾아 오기는 처음이었네. 낮도 코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나의 성과를 두고 제 일처럼 기뻐 해주더구만. 나에게서 조선민족의 긍지를 느꼈다고들 하더군.

정말 피줄이라는게 무언지, 나는 그들과 정이 통하고 뉘이 통하는것을 저도 모르게 느꼈네.

그때 나는 자네 생각을 하었네. 죽은 영학이 생각도 하고...》

명성박사는 정민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참, 안내선생은 모르겠구만.

짜개바지를 입고 함께 뛰놀던 그 시절 우리는 셋이었소. 마을에선 우리를 두고 세쌍둥이라고까지 불렀소. 그런데 영학이, 세번째 친구는 갑자기 병으로 그만 비명에 가버렸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천연두였던것 같소.

그때 우리, 나와 이 수진이는 맹세했소. 커서 어른이 되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는 의사가 되자고, 그래서 우리 고향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하자고...》

명성박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와 다진 어릴적맹세를 돌이켜 보는 내 마음은... 그때까지 성공했다고, 행복하다고 자부하며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던 내 마음속으로 공허감과 외로움이 어쩔수 없이 몰 밀듯이 밀려 들더군.

너는 과연 친구와 다진 맹세를 지켰는가, 단 한번이라도 고향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기술과 정열을 바친적이 있었는가?... 이 물음에 나는 대답을 찾을수 없어 모대졌네.

때로는 나름대로 자기 위안도 해보았네. 나는 인류를 위해 의학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혐애하게 자신을 어느 한 민족이라는 좁은 울타리안에 가두어 넣지 말자, 이제 나의 연구성과가 림상실천에 널리 도입되게 되면... 하고 말일세.

하지만 그것은 부질 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네.》

명성박사는 눈을 꼭 내리 감더니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정민은 그러는 박사의 얼굴을 놀라움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시퍼렇게 색이 죽어 드는 팍 앙다문 입술, 가볍게 떨리는 볼편, 눈시울짙으로 스며 나와 불을 따라 흘러 내리는 눈물방울...

한참만에야 명성박사는 긴 숨을 토해 내고 나서 말을 이어 나갔다.

《아니, 며칠을 두고 모대졌지만 난 끝끝내 자신을 정당화할수 없었네.

그건 내가 의학자이기전에 조선민족의 한 성원, 바로 여기 이 땅에 태를 묻은, 또 태를 묻은 고향을 잊을수 없는 조선사람이었기때문이었네.

하다면 나는 내 고향, 내 민족, 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결국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해 온 나의 한생이란 나 개인을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나의 행복이란 자기 도취에 빠진 몽유병환자의 보라빛 환상, 허공중에 떠 사람들을 유혹하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던 거네.

난 모대기고 또 모대기였네.

그다음부터는 강의실에서 청강생들을 둘러 볼 때면 언제나 보아 온 얼굴들이었지만 왜 그런지 가지각색 머리들이 눈에 가시처럼 걸려 들더구만. 금발머리, 은발머리, 불머리... 그때엔 왜 그리도 눈에 거슬리던지. 다음에는 화가 나더군.

그 이후부터는 나에게서 배울 학생들, 나의 연구소에서 일할 성원들에게 모두 머리를 삭발하도록 했네. 그렇지 않으면 제자로 받을 수 없다고 했지.》

박사는 정민을 돌아 보며 허거픈 웃음을 보냈다.

정민은 그제야 록화물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모두 머리를 깎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금발머리, 은발머리, 불머리들은 사라졌지만 파랑고 노란 눈들이야 어디로 가겠나?》

박사는 말을 잠시 끊고 파아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8월의 폭양이 뜨겁게 내려 쏘이고 있었다.

박사는 그 무더위도 못 느끼는 듯 다시 이야기에 열중하였다.

《회의장에서 민족의 녀가 차넘치는 장운복선생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서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이제 돌아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 가지각색 눈동자들을 생각했네.

그들속에는 앞으로 박사나 교수로 될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중에서 인간을 위해 자기를 바칠 사람은 없을걸세.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 허나 그것은 내가 심어 준게 아닐거네. 내가 그들에게 심어 준것은 로봇트에 넣는 프로그램 같은 의학술어뿐이었으니까.》

박사는 일어 나서 약초밭앞을 천천히 오락가락하기 시작하였다.

향그러운 약초꽃향이 풍겨 왔다.

《저건 목화꽃이지?》

《그렇네. 약숨을 자체로 해결해 보려고... 나라도 부담을 덜 줄가 해서 몇포기 심어 본거네.》

《그렇군.》

박사는 목화화단에로 갈듯 일어 섰으나 원장실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는 원장의 가볍게 절뚝 원다리에 손을 얹었다.

《이 다리는 왜 저나?》

《전쟁때 다쳤지.》

《그만하게.》

명성박사의 손이 그 다리를 조심스럽게 쓸어 만졌다.

《자네 장운복선생에게 이 다리의 뼈를 이식해주었겠지. 그리고 자기의 녀도...》

그는 다시 일어 섰다. 성큼성큼 어딘가로 걸어갈듯 하였으나 그냥 우뚝 선채로 말하였다.

《나는 여기 오기전에 조국에 대해 많은 말을 들었네. 별의별 도깨비 같은 소리들도 들었지. 거긴 미국땅이니까...》

조국에 와서 많은것을 보았네. 여기를 오면서... 소달구지도 보았고 나무를 때는 자동차도 보았네. 손을 흔들어 주더구만.

모두들 고난의 땅에... 자기 녀를 심어 가더군.》

그는 원장과 정민의 앞에서 돌아 섰다.

정민에게는 그의 잔등이 가볍게 떨고 있는 듯이 느껴 졌다.

《나에겐 제자가 많네. 수백명을 헤아리지.

그러나 녀이 없는 제자가 천이면 뭘하고 만이면 뭘하나.》

그의 목소리는 혼자소리인듯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인듯 점점 낮아 졌다.

갑자기 그는 원장에게로 휩 돌아 섰다.

《여보게 수진이, 조국에 와보고 이렇게 고향에 와보고... 하고나니 내가 할 말은 한마디일세.》

그의 목에서 굵은 울구리뻐가 몇번 오르내렸다.

《나는 헛 살았네.》

《?!》

마지막한마디에 정민은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 섰다.

헛 살았다! 저 세계적인 명성과 그에 따르는 재부도 있는 과학자가 이 자그마한 군병원의 원장을 만나보고 자를 자를 한 꽃들이 핀 이 약초밭을 보고 헛 살았다고 한것이다...

이때 정민의 머리속엔 얼마전에 읽은 한 녀학자의 운명에 대하여 쓴 외국소설이 떠올랐다. 그 소설은 서방에 가서 사는 한 동양인녀성학자가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앞에서 회의심, 좌절감을 느꼈다는 이야기였다.

(그 녀학자는 말하였었지. 조국이 없는 자기에겐 무슨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겠는가고.)

지구우 그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민족과 결별된 개인의 운명은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해도 완전한것이 못된다는 인생철리를 정민은 소설로서가 아니라 실지 체험으로 느낀것이였다.

아마 그래서 세계적인 녀성물리학자 큐리부인도 프랑스에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였을 때 자기 조국 폴스까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폴로니움》이라고 불렀으며 《피아노의 시인》으로 유명한 쇼펜도 이국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 자기의 심장만은 조국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긴것이 아니겠는가.

정민은 병원뜰안을 새삼스럽게 둘러 보았다.

그러자 이제까지는 너무도 소박하고 평범하게  
만 보이던 약초들이 신비한 힘을 가진 풀과 나무  
들처럼 느껴 졌고 크지 않은 2층짜리 병원건물은  
그에게 신비의 궁전처럼 느껴 졌다.  
또한 그는 자기들이 달려 온 길도 보았다.  
그곳에서는 몇시간전에 연기를 뿜던 대용연로

차며 썰레기담배연기에 휩싸여 있던 소달구지며  
가 새로운 모습을 하고 눈 부시게 질주해 올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인생행로를 바로 잡고  
**김일성**민족의 떳떳한 해외공민으로 값 있게 사는  
최명성박사의 새 모습도 안겨 왔다.

## 죄악의 역사를 고발한다

### 최창만

흘러 간 세월의 락엽속에 묻힌  
어제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전설도 추억도 아닌  
이 땅의 이름 없는 산천초목도  
원한의 상처를 안고 몸부림치는 치욕의 역사

헤쳐 보라  
암흑의 철창속에 신음소리 흐르고  
전대미문의 폭압의 철쇄  
겨레의 가슴에 칭칭 감졌던 기나긴 그 세월

살아서 살 곳 없고  
죽어서 묻힐 곳 없는 이 땅에  
가장 잔인한 인간도살의  
피가 흐르지 않는 날이 있었던가

한 강토 한 지맥을 잇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며  
의롭게 살아 온 우리 민족의 넋을  
《내선일체》, 《동조동근》의 칼부림으로  
그리도 무참히 짓밟고

락탈과 강권으로  
땅도 재물도  
온갖 금은보화 깡그리 빼앗은  
섬나라 오랑캐들  
강제랍치, 련행으로  
죽음의 《보국대》로  
고역의 막장으로 끌려 간  
우리의 겨레는 그 얼마였던가

10대의 꽃나이처녀들이  
갓 머리를 얹은 녀인들이  
젖먹이어린것을 남기고  
몸부림치는 수천수만의 녀성들이  
《일본군위안부》로, 《황군》의 성노리개로  
인간의 존엄과 청춘의 정조마저

유린 당했거니

아 원한 서린 치욕의 역사를 고발한다  
가증스런 인간불모지로  
이 땅을 피바다로 물들이고  
침략과 전쟁의 병참기지로  
온 나라를 폐허로 만든  
파쇼교형리 일본침략자들을

오늘도 피를 끓이며 터친 분노의 그 웨침  
우리의 귀전에 들려 오는듯  
울밀의 봉선화가 처량하다고  
나라를 잃은 설분울 누를길 없어  
할복자결에 나섰던 항거의 그 목소리

강산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어도  
삭일수 없어 정녕 지울수 없는  
복수의 분노가  
이 땅에 노도친다

세월은 흘러 멀리 갔어도  
변함 없는 아시아제패의 허황한 꿈을 안고  
해외침략의 독버섯 키우며  
재침과 《복수》의 칼을 버리는  
침략의 무리들

제 아무리 군국주의망언들을 늘어 놓고  
기승을 부린대도  
분별없이 날뛰는 송사리들  
제가 지른 불속에 타죽으리라

피값도 천백배  
보상도 천만배  
우리 겨레 우리 민족이 당한  
웅근 한 세기의 그 모든것  
민족의 이름으로 기어이 결산하리라  
죄악의 역사를 만천하에 고발하며

# 룡산의 메아리

김성희

## 1

떨기떨기 피여 난 진달래, 매화들로 룡산기슭은 울긋불긋 하였다. 아물아물 피여 오르는 아지랑이가 몸의 정취를 한껏 돋구었다.

지지배배... 어느새 날아 들었는지 처마끝의 제비들도 분주하였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었다. 공지애다 호박, 동과, 왕사라구, 비름 등 비알꼭먹이작물을 본때 있게 심고 가꾸리라 차옥언니와 나는 팔을 걷고 나섰다.

《고난의 행군》에 이어 강행군은 여기 룡산목장의 돼지수자를 퍼그나 줄여 놓았다. 작년말 종업원총회에서는 닥쳐 온 현실에 대처하여 돼지 대신 염소, 계사니, 오리 등 풀 먹는 짐승으로 바꾸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우리 사양공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쪼그리고 앉아들 있었다. 사양공들의 심정을 대변하여 차옥언니가 회의 첫 시작부터 강하게 주장하였다.

...지금 대흥단과 나라의 여러 곳에 돼지목장들이 새로 일떠서고 있다. 그 돼지목장들이 조업하게 되면 당장이라도 종축돼지를 보내줘야 한다! 종축돼지는 그 누가 대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종축돼지는 한마리도 없애지 못한다!...

모여 앉은 사람들이 저마끔 수군거렸다. 사람들은 먹을것이 없어 찢절 매는데 돼지는 뭘 먹인다구 저래? 이불깃 보고 발 퍼렸는데 이건 맹탕 우기기만 해. 사람하고는 달라. 돼지야 어디 풀만 먹어서 되나. 글썄 저렇게 많은걸 뭘루 먹인다 는거야...

(정말 차옥언니가 현실에 맞지 않는걸 고집하는게 아닐까. 알곡사료는 하나도 못 받는데 어떻게 돼지를 길러 내자는걸가.)

그래도 나는 무작정 차옥언니를 지지하고 싶었다.

《돼지가 풀만 먹겠다구 합데?》

누군가가 좌중의 설레임을 누르며 영화에서 나오는 반동의 흉내를 내었다. 그 바람에 웃음이 터졌다.

차옥언니는 새침한 얼굴로 쏘아 보았다.

《그래 아저씨 그게 장한가요? 반동이 뭐 별거예요. 처음엔 흉내를 내다가 나중엔 정말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거죠.》

《뭘, 내가 반동? 야, 너 말 다했니? 일 잘한다

구 받들어 주니까 점점...》

그 사람은 억울한듯 씩씩했다.

차옥은 그쪽에다 대고 가볍게 코방귀를 날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조건이 어렵다구 우리의것을 우리의 손으로 없애게 된다면... 그건 바로 미국놈들이 바라는데로 하는거예요. 조건이 예전 같다면...》

차옥은 입술을 감쌀다가 그대로 앓았다. 좌중은 물 뿌린듯 조용하였다.

《조건이 예전 같다면...》 채 끝내지 못한 언니의 마지막말이 내 귀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은 몇백마디의 말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울리었다. 처음 한발자국씩 양보하다가 차츰 모든것을 잃게 될것이 아닌가. 다 잃은 다음에도 지금처럼 웃음이 나올수 있겠는가 하는 의식이 나를 긴장하게 했다.

누군가 내 어깨를 슬쩍 건드렸다. 돌아 보니 반장아바이였다. 아바이는 《꼴찌, 너도 한마디 하렴!》 하는 눈길로 나를 보았다. 반장아바이의 부추김에 나는 텅기듯 일어 났다. 숙연한 눈길로 모두 나를 올려다 보았다. 나는 온몸이 굳어지고 입안이 딱 말라 붙어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다.

《미국놈들은 우리가 잘 사는데 배가 아파서... 미국놈들은 우리가 일터를 버리고 나왔길 바라는 거예요. 돼지를 없애자고 하는건 다 반동이에요.》

우리가 말은 돼지를 그대로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것은 단순히 우리가 돼지사양공이 되는가, 오리사양공이 되는가 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의자가 온몸을 잡아 당기는듯 해서 얼른 주저앉았다. 자리에 앉아서도 가슴이 쿵쿵 뛰었다.

《말 잘했다. 꼴찌야! 아니 넌 꼴찌가 아니라 이거다. 이거!》

반장아바이가 내 어깨너머로 큼직한 엄지손가락을 보내왔다. 그제서야 나는 호- 큰 숨을 내쉬었다.

《이자 우리 사양공처녀들의 말을 들었지요. 뭐라고 했소? 종축돼지를 그대로 두는게 사회주의를 지키는거구 없애는건 사회주의를 버리는거라구.》

반장아바이가 긴 팔을 번쩍 쳐들었다. 뒤이어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주먹들이 높이 쳐들리었다.

우리가 말은 종축돼지 전량을 그대로 두는데 모두 찬성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목장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것을 가슴 저리게 느껴 보았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나와 차옥은 손에 손을 맞잡은채 눈물이 글썽해서 웃고 떠들었다.

《난 네가 그렇게 도담한줄은 몰랐어. 내가 못한 말을 가슴이 후련하게 해주었어. 넌 정말... 정말이지 난 네가 고와 죽겠어.》

차옥언니는 나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나는 실은 반장아바이가 부추기는 바람에 일어 난것이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봉하였다. 이왕이면 차옥언니에게 보다 완성된 나자신을 인정시키고 싶었다. 목장에서 떠받드는 차옥이한테서 이런 칭찬을 받는것은 그를 본다고 싶어 하는 나의 기쁨이고 긍지로 되었다.

우리는 행복은 로동으로부터 온다는 생활의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며 호박구멍이를 파나갔다. 우선 축산반으로 오가는 큰길의 량쪽에서부터 시작했다. 한번 본때 있게 해보자!

아침에 출근하기전 두어시간정도 곡괭이를 휘둘러대서 열뒤개정도의 구멍이를 파냈다. 하루일을 끝낸 저녁에는 그 구멍이에 돼지거름을 넣었다. 파괴시간에 진행하는 우리 일을 축산반장아바이가 제일 먼저 관심하고 지지하였다.

《원 내 이렇게 큰 호박구멍이를 침 본다. 이걸 다 진거름으로 채우려면 땀 깨나 뿔겠는데...》

아바이는 지게다리에 큰 삼태기를 세워 놓고 거름을 무드기 실어 구멍이로 날랐다. 큰길까지의 거리는 퍼그나 멀었다. 그 먼길을 아바이는 몇탕씩 오갔다.

우리의 소행은 온 목장에 일반화되었다. 관리성원들도 가두에서도 새땅을 찾아 구멍이를 파고 거름을 날랐다. 마치도 이 봄은 비알곡먹이작물을 위해서 필요한것 같이 생각되었다.

한낮의 긴 해가 뉘엿이 넘어 갈 때까지 거름지게를 지고 뛰었다. 우리에게는 봄날의 하루해가 너무도 짧게만 느껴 졌다. 한 구멍이에서 줄잡아 50kg 씩 파낸다면 구멍이 100개면 5t의 호박이 나온다.

지게를 지려는데 누군가 나를 향해 소리치는것이 보였다. 우원통신원이었다.

《누군가 했더니 꼴찌구만. 아유, 저 땀! 정말 걸싸기두 하네. 차옥인 어데 있나?》

통신원은 두터운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채 맨머리바람의 나를 신기하게 보고 있다.

《편지예요? 어디서 왔어요?》

나는 지게를 벗어 작대기로 끼여 세우며 성급

히 물었다.

《어데서긴, 늘 날아 오던 조선인민군우편함이지. 전해 주겠나?...》

《그럼요. 두고 가세요.》

나는 통신원이 저만치 멀어 질 때까지 편지를 들여다 보았다. 통석오빠의 체취가 느껴 지는 편지다. 옆에 차옥언니만 있으면 당장 개봉하고 크게 읽게 하련만... 나는 아쉬움속에서 편지를 포개 넣으며 언니를 기다렸다.

큰길어구에 거름지게를 진 차옥이가 나타났다.

마치도 김가마가 움직이는것 같았다. 등에 진 거름삼태기에서도 땀에 절은 온몸에서도 무력무력 김이 솟구치고 있었다. 자기는 거름더미를 통채로 지면서도 나한테는 서너걸이대를 실어 주어서 가라고 아껴 주는 언니였다.

《좀 쉬고 하자요!》

나는 언니가 가까이 오는것을 기다렸다가 지게다리를 버티어 주었다.

《쉬긴? 쉬면 프물통에 들어 가. 그럼 다야! 호박두 못 심구...》

차옥은 정말 힘들지 않다는듯 생긋 웃어 보였다. 고운 입술에 허영게 물집이 앉았다.

《이게 마지막구멍이지?》

차옥이가 걸이대로 두엄을 퍼담으며 숨 가빠 판전을 피웠다. 나는 언니만 나타나면 편지를 핑계 대고 숨이나 돌리려던 애초의 생각을 포기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 큰길지구를 끝내고 래일 부턴 산락으로 올라 갈 심산이었다. 그래서 허리 펴 틈도 내지 않고 서두르는것이였다.

《악-》

별안간 차옥언니가 비명을 지르며 두손으로 발을 싸쥐었다. 걸이대로 발을 찍은것 같았다. 나는 걸이대를 내던지고 황급히 다가가 다친 상처를 싸쥐었다. 호- 입김도 쉼우고 헹헹 코김도 내불었다.

《넌 <할머니>와 사니까 이런 땀 꼭 늙은이행세라니까. 피두 안나는데...》

차옥언니는 늙은 나의 어머니를 두고 《할머니》라고 하군 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성을 낸적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부르면 촌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이런 상처가 더 말썽이래요. 글썽 내가 뭐래요? 쉬고 하자는데...》

《그래 이제라도 좀 쉬자. 조금만! 폭 쉬면 프물통에 들어 가니까.》

《아유, 난 막 배 고프네.》

《침이라도 넘겨 봐.》

《막 겨내가 나는데 침이 다 뭐예요?》

정말 그랬다. 목안이 달다 못해 불을 삼킨것처럼

럼 따끔거리는데 어디서 침이 나온단 말인가.

문득 차옥언니가 나를 보았다. 나를 보는 눈이 장난기를 담고 초롱초롱 빛났다.

《민인학교때 산림원예시간에 말이야. 난 교재원에서 롱석동무의 명찰이 붙은 머루를 따먹었었어. 익지도 않은걸 몰래 입에 넣었다가 너무도 시어서 눈도 못 뜨고... 아유, 시다-》

차옥은 어깨를 떨며 진저리를 쳤다. 그 순간! 나는 허끝에 침방울이 자르르 돌며 새힘이 솟구치는것을 푹푹히 느꼈다.

《그때 롱석동문 날 막 때리지 않겠니. 자기가 말아서 애지중지하던걸 따먹었다구. 난 맞은게 분해서 밤새껏 웅알땀지뿜. 한달쯤 지나서 롱석동무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겠니. 불룩한 주머니를 뒤지더니 뭔가 꺼내더구나. 까맣게 익다 못해 하얀 분이 내돋은 머루였어. <머루는 자기 덩굴에서 서리를 맞아야 해. 그래야 달달하단다.> 난 그때 서리 맞은 머루를 침 먹어 봤어. 달고 시원하고...》

《달고 시원하고...》

나는 감회 젖은 차옥언니의 말을 따라 외우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롱석오빠의 편지생각에 와들놀래였다.

《언니, 내가 그 달고 시원한 머루를 두번째로 맛 보게 해줄게. 눈을 감아요. 자요!》

《아야, 편지구나. 요 깜찍한것! 함께 보자. ... 또 나팔이야길거야.》

차옥언니는 나를 옆자리에 눌러 앉혔다. 나는 편지를 보지 않고도 장담하는 그가 우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가만히 앉았다. 사위는 어둡어둡했으나 롱석오빠의 편지를 보는 차옥의 눈은 밤벌처럼 반짝거렸다.

《...차옥이! 말기고 온 트럼베트생각이 나서 편질 쓰오. 요즘 텔레비존을 보니 트럼베트를 위한 경음악이 매일처럼 울려 나오더군. 그걸 보면서 고향생각이 깊어 지더군. 고향에서는 학교를 졸업한후에도 내가 부는 트럼베트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생활의 랑만을 복돋아 준다고는 미처 생각 못했소.

새벽나팔소리로 새벽잠을 깨워 주고 힘든 일이 나서면 신호나팔처럼 목장사람들을 불러 일으킨다는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했소.

하지만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초소에서 조국이 무엇인지, 나의 청춘과 리상을 어떻게 꽃 피워야 하는지 심장으로 느끼게 되었소. 기나긴 추운 겨울밤을 총 잡고 지새우면서 고향의 귀중함을, 조국의 위대함을 가슴 후텡게 받아 안은 나로서는 트럼베트의 힘찬 음향이 새롭게 느껴 졌소. 우리 장군님 계시어 내 조국이 자랑떨침을 한그루 푸르른 소나무에 비낀 박력 있는 선물이 내

가슴에도 뜨겁게 흘러 들어 나도 고향사람들에게 들끓는 열정과 희망찬 래일을 랑만에 넘친 선물에 담아 힘차게 불러 줄 생각이 간절해 지군 하오.

언제나 밝고 깨끗한 차옥이 마음과 혁신으로 내닫는 기개를 함께 담아서 말이오...

이제 제대되어 고향에 가면 롱산이 들썩하게 불러 보겠소!》

차옥은 편지를 읽고 나서 자 봐라! 내 말이 맞지? 하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는 언니를 보는 나에게는 며칠전의 일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무슨 일로 차옥언니네 집에 갔었다. 언니는 옷방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문대다가 흠칠 놀래였다.

《깜짝이야. 넌줄은 모르구...》

차옥언닌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하던것을 가만히 밀어 놓았다. 불빛에 번쩍이는 트럼베트가 눈을 부시게 했다.

《야, 멋 있네. 한번 불러 보자요! 자, 이거 무슨 노렐 불가?》

갑자기 흥분해 난 나는 두눈을 깜박거리며 차옥언니를 보았다.

《왜, 거 있잖니? 롱석동무와 함께 불던 <유격대행진곡>의 선물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파고 들었는지 아니?》

《정말?》

《정말 아니문! 난 그때 트럼베트가 이 세상 그 어느 악기보다 제일 훌륭한 악기처럼 느껴 졌어.

넌 정말 좋은 재간을 가졌어. 그 좋은 재간을 그대로 묵이는건...》

차옥언니는 뒤말을 더 잊지 않고 아래방의 동정을 가만가만 살피며 하던 일을 마저 끝내었다.

《그럼 언닌 내가 어떻게 하라는거야?》

《나팔을 불어야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열정과 힘을 불러 주는 새벽나팔을 말이다. 그래야 힘든줄 모르고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간단다.》

《어마, 내가 이제 나팔을? 그때야 어린 맘에 그저 승벽내기로 분건데 뭐... 이제 롱석오빠가 오면 저 롱산이 떠나가도록 불걸. 난 지금 하는 일만으로도 막 벅차요! 언니를 따라 하는 일만으로도 힘이 드는걸 뭐... 저, 언니!》

나는 트럼베트를 매만지는 언니의 고운 얼굴을 뚫어 지게 보았다.

《왜 그러니?》

나는 롱석오빠를 사랑하는가고 물으려고 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트럼베트를 저렇듯 빛이 나게 닦을수 있을가. 하지만 나는 판전을 부렸다.

《나두 언니처럼 모범사양공처녀로 살테야. 그  
래야 <좋은 총각>을 만나지.》

《애. 까불지 말어.》

차옥언니는 엄한 얼굴에 손가락을 세워 보였  
다.

나는 차옥언니의 생활의 한복판에서 나 혼자만  
이 노닌다는 즐거운 생각에 환희롭고 기쁜 마음  
을 억누를수가 없어 언니를 와락 붙안고 돌아 갔  
다.

《애, 어지럽다. 그만해. 그만두래두!》

나는 차옥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  
으나 아랑곳없이 《회전그네》를 멈추지 않았다.

《언니가 <좋다!>고 할 때까지야. 좋다고 한마  
디만 해봐요. 언닌 내 성격을 알지?》

위협조로 울리는 내 소리에도 언니는 그만두라  
는 소리만 내질렀다. 어떤 경우에도 제 맘에 없  
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는 정숙하고 대바른 언  
니를 다시 보는 내 마음은 기뻐 졌다. 그러면서  
이런 언니의 사랑을 받는 룡석오빠가 시샘이 나  
도록 돋보였다....

《오빠 나빠. 내 소리 한마디도 안 썼구나. 같이  
있을 땐 그저 우리 나팔조 꼴찌, 꼴찌 하더  
니...》

나는 입술을 쑥 내밀며 트집을 걸었다.

《이제 제대돼 오기만 해봐. 언니를 절대로 안  
와줄테야!》

차옥언니는 공연히 생투정을 하는 나를 정겹게  
바라 보더니 《우리 별이 권한이 대단한데?》 하  
고 주어 올렸다.

《이건 빈말이 아니예요. 절대루! 나한테서 쉽게  
언니를 뺏어 내지 못할걸!》

나는 편지를 집어 넣는 언니를 보며 배심 좋게  
한마디 했다. 차옥언니는 그러는 나를 사랑스러  
운 눈매로 지켜 보다가 《자, 뒤번 지겠으니 너  
먼저 들어 가. <할머니>가 기다리겠어.》 하고 나  
의 등을 떠밀었다.

《싫어요. 난 언니와 같이 일하겠어요. 날 먼저  
들어 보낼 생각을 말아요.》

나는 먼저 지계를 찾아 쥐었다.

《요, 이악쟁이! 좋아, 또 달려 보자!》

차옥은 나의 불을 놀려 주고 어느새 지계를 진  
채 저만큼 앞서 나갔다.

무슨 일이든 마음을 합치고 일손을 합치면 일  
은 곱절로 흥겨워 지고 험해 지는 법이다.

나는 저만큼 앞서 간 언니의 뒤모습에서 우리  
돼지들을 끝까지 지켜 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드림 없는 의지를 보았다. 리상이 높아  
도 실천을 따라 세우지 못하면 꿈속에서만 열매  
를 따게 될것이다. 실지 열매는 실천속에서만 있  
는것이다. 나는 온몸에 썸 솟는 힘을 느꼈다.

옛날 룡이 났다고 해서 룡산이라 불리우는 룡  
산기슭 우리 마을에 큰 종축기지가 자리 잡고 있  
다.

우리 룡산목장은 조국해방전쟁때 피난 온 사람  
들로 꾸려 졌다.

전후에 제대배낭 하나를 메고 온 아버지는 목  
장조창기 지배인이었다. 그때는 달구지 한대 없고  
돼지우리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한 어설피기 짝  
이 없는 열서너명의 로력이 전부였다.

생소한 목장일에 정신이 팔려 서른이 넘어서야  
반장아바이라 결사람들의 권고로 10년이나 아래  
인 피난민처녀에게 장가를 든 아버지는 집일에는  
영 무관심이였다. 어머니는 집일보다 목장일에  
더 몸 적시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위해 주었다.

목장에 재산이 하나 둘 붙어 나고 돼지수가자  
늘어 갈 때 우리 집안에도 식구들이 늘어 났다.  
딸 딸... 어머니는 내리내리 딸만 넷을 낳았다.  
밤중까지 일을 보고 집에 들어 선 아버지는 주련  
이 누워 자는 딸자식들을 내려다 보며 《우리 돼  
지들두 임자를 닮은 모양이야. 첫배부터 연줄연  
줄 암놈만 낳거든. 판이 흥할건 뻔해.》 하면서도  
다음엔 사내아였으면 하는 본심을 내비쳤다고 한  
다. 다섯번째도 또 딸을 낳았을 때 어머니는 그  
만 울고 말았다. 50이 넘는 남편에게 아들에 하  
나 안겨 주지 못하는 아쉬움속에서 밥맛까지 짝  
젓혀 버렸다. 젓이 모자라서인지 갓난애는 몹시  
보채였다.

《임자두 원, 세상에 딸두 없는 사람이 많을라  
니 우리 딸들이 어드래서... 보채는걸 보니 이 앤  
특별히 똑똑하겠구만. 두고 보라니까. 늘그막에  
이 애 덕을 보지 않나?》

아버지는 언니들에게 물을 덥히게 하고 나를  
목욕시켰다. 다섯딸중에서 아버지손에서 첫 목욕  
을 한 자식은 나뿐이였다.

동네사람들은 지배인네 막내딸이름을 서분이,  
후남이, 신둥이, 꼴찌로 저마끔 지어 불렀다. 그  
중에서 꼴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아  
버지는 《옥》자 돌림으로 지으면 분명히 성옥이  
라고 할것을 《별이》라고 부르게 했다. 막내딸에  
게 특별히 기울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어머  
니는 인차 입맛을 돋구고 안정을 얻었다. 부모들  
의 각별한 사랑을 독차지한 나는 명랑하고 승벽  
심 센 처녀애로 자라났다.

6살나던 때 나는 온 집안을 크게 웃긴 일이 있  
었다. 대학에서 방학으로 집에 온 두 언니로 해  
서 집안분위기는 한껏 흥성이였다. 나는 언니들  
의 뚱뚱한 책가방과 내 몸엔 어림도 없이 큰 대  
학생복을 몸에 대보며 어머니의 무릎에다 발장구

를 쳐냈다.

《엄만 나빠! 엄만 날 제일 밉게 보지? 날 말언니로 먼저 낳을게지. 왜 맨 나중에 낳았나?》

어머니는 내 투정질을 선선히 받으며 때마침 집에 들어 서는 아버지에게 물어 보라고 했다. 아버지는 막내딸의 어리광을 대견하게 받으며 물었다.

《그래 네가 말이가 되였다라면 영웅이라도 단말이나?》

《그렇잖구, 난 이제라도 말언니를 쫓 따라 앞설테야.》

《저런, 거 멧 있구나. 어디 들어 보자. 어떻게 앞선다구?》

아버지의 호기심에 온 집안이 귀를 기울이었다. 나는 기꺼이 내 속생각을 털어 놓았다.

《엄마한테 나만 자꾸자꾸 설떡을 해달라지 뭐. 그러구 나 혼자만 자꾸자꾸 설떡을 먹올래. 이렇게, 이렇게만 먹으면 따라 앞서는건 문제 없어.》

나는 조꼬만 손가락을 짹 꺾대고 언니들과 차이나는 나이를 표현해 보였다. 그 바람에 모두 허리를 꼬부리고 웃어 댔다.

《그래, 그래, 우리 별이가 앞서거라. 우리 막내 승벽심이 맘에 든다.》

아버지는 어린 나의 잔등을 대견하게 두드려 주었다.

나는 썩 후날에야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것이 사람마다 먹는 나이라는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일을 씩스럽게 상기하곤 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막내만은 대학공부나 고스란히 하고 도시로 가서 남편들의 그늘속에서 사는 언니들처럼 조용히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커졌다. 처녀시절에 보다는 큰 희망과 포부를 지니고 그것을 위해 사는것은 인생의 보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길에서 로력영웅이 되고 아버지처럼 목장의 일군이 되어야지... 졸업을 앞두고 내가 목장에 나가겠다고 하였을 때 고문지배인으로 일하던 아버지는 축산반장아바이를 찾아 가서 내 막내딸을 맡아 주오 하고 한마디 부탁만 하였을뿐이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반장아바이는 곧장 차옥언니한테로 나를 안내하였다.

《이 언니한테서 배우거라. 너도 알겠지만 이 언니 우리 목장의 자랑인 모범사양공이다. 언니를 돕고, 언니는 별일 도와 주고... 내 지내보니 서로 돕는게 크니라. 별이야!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뭐가 되는지 아니?》

나는 아바이가 《둘》이라는 산수적인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래서 《뭐가 되나요?》 하는 눈빛으로 아바이를 보았다.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보다 더 큰 별이

된다. 언제나 빛나는 별말이다.》

《별이요!》

어쩌면 내 이름과 맞추어 진 아바이의 말이 흠뻑 마음에 들었다.

나는 차옥언니의 모든것을 존중하고 따라 배우려고 애 썼다. 언니는 우리 언니들과도 다른데가 있었다. 정숙하고 조용하면서도 대바르면서도 부드럽고...

일 잘하고 인물 잘난 그는 누구나 선뜻 나서길 주저하는 종축관리공이고 게다가 농장대학 졸업생이고 당원이었다.

옛날부터 《처녀가 정숙하고 성격이 좋으면 그만큼 훌륭한 지참금을 가진셈》이라고 금세 높은 처녀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도 선뜻 처녀를 휘여 잡지 못하면서도 그에게 알맞는 총각이 누구일가 하고 가만히 주시하며 궁금해 했다. 이런 처녀의 곁에 나를 세워 주는 반장아바이가 고마왔다.

이럴 즈음에 나의 아버지는 로환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나에게에는 반장아바이가 있었다. 아바이는 모든 면에서 우리 아버지와 꼭 같은데가 많았다.

나는 반장아바이의 말대로 차옥언니를 도와 별이 되려고 했다. 차옥언니의 일숨씨를 따라 배우면서도 내가 언제면 언니처럼 모범사양공이 될수 있을가 하는 생각도 앞세워 보았다. 그럴수록 걸음이 빨라 지고 손세도 언니만큼 민첩하도록 노력하였다.

출근시간도 앞당겼다.

그날도 나는 서둘러 출근길에 나서 습관대로 호박포기들을 살펴 보았다. 짹짹 금이 간 두터운 땅을 들치고 세상밖에 움 터나오는 소담한 새싹이 새로운 기쁨을 실어 왔다.

땅이 녹기도 전에 계획을 세우고 시장기를 침으로 멈춰 가며 심어 가꾼 이 포기들이...

코가 매워 오고 눈앞이 뿌잇해 졌다.

《별이야! 거기서 뭘하니?》

반장아바이를 알아 본 나는 급히 눈굽을 문대었다. 남들이 무심히 보아 넘기는 자연현상에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아바이, 저길 좀 보세요. 호박이 움 텃어요. 글썽 고것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것 같어요.》

《원, 애두... 그래 뭐라고 하려는것 같니?》

나는 즐거운 마음 그대로 웃기만 했다.

《참, 신문이 나왔더라. 자, 읽어 봐라!》

《어야, 벌써 나왔군요.》

나는 아바이의 손에서 딱치듯 신문을 뽑아 펼쳤다. 며칠전에 도일보 기자가 우리들을 취재한 것이 정말 신문에 났다.



《풀과 고기를 바꾸는 길에서》라는 표제 밑에 박 차옥, 김별이라고 써여 있는 자기 이름이 왜선지 새 글자처럼 서름서름하게 안겨 들었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 용타! 신문에두 나구 텔레비존에두 나구... 이제 우리 목장이 더 흥해 질 게다.》

느닷없이 울리는 말을 새겨 들던 나는 새삼스러워 지는 아바이의 눈길을 뚫히 올려다 보았다.

《우리 둘째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대흥단에 갔다누나. 엇그제 텔레비존에두 나왔지? 자기는 감자농사에서 영웅이 되겠다고 했다.》

《룡석오빠가 대흥단예요? 어마?...》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뜬채 아바이를 멍하니 보기만 했다.

《왜 그렇게 놀래니?》

나는 《그럼 차옥언니 어떻게 해요?》 하는 말이 허끝까지 물어 오르느것을 겨우 참았다.

반장아바이도 전혀 모르는 사실을 내 입으로 루설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기때문이었다.

나에게는 아바이의 다음 말이 귀에 들어 오지 않았다. 내 눈앞에는 차옥언니가 없는 이 목장마을이 어수선하고 쓸쓸하게만 안겨 왔다.

《애, 별아. 어데 아프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는구나.》

《아, 아니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뭐.》

아바이와 헤어진 나는 차옥언니에게로 줄달음쳐 갔다. 차옥언니는 먹이조리칸에서 애국풀을 죽탕치다가 나를 보고 반겨 맞았다.

나는 아무 일 없었던듯 끼고 온 신문을 내주었다. 차옥언니는 급히 손을 문대고 신문을 받았다. 신문에 눈길을 박은 차옥언니의 고운 눈에 물기가 함초롬히 맺혔다. 우리들의 소행을 적은 기사가 남의 이야기처럼 눈물겹게 감동적이었던 것이다.

《차옥언니! 우리 이 신문을 룡석오빠에게 보내는게 어때요?》

나는 불쑥 떠오른 생각을 말하면서 언니의 입에서 대흥단소리를 듣게 될가봐 은근히 겁이 났다. 그것은 엄밀히 따져 말하면 《편지야 뭐, 이제 나도 곧 따라 갈텐데 뭐.》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차옥언니는 뜻밖에도 내 의견에 동감이다.

《넌 어쩔! 나와 생각이 꼭 같으니... 난 네가 동생처럼 느껴 지지 않는게 이상하구나.》

《언니, 룡석오빠가 이 신문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 아마 고향에서 수고하는 언니를 기쁘게 생각할테지?》

나는 《우리를》대신에 《언니를》 하고 말한것을 후회하였다. 그런 식으로 옷사람들의 세계를 넘겨보며 떠보는것은 아무래도 온당치 않아 보였다.

《아니, 나보다 별일 더 크게 생각할거야. <우리 나팔조의 꼴찌가 신문에 갔구나.〉 하면서 말이야. 참, 너 생각나니? 방학때 생활반에서 그 동무가 불던 트럼베트말이야. 저 룡산기슭에서 새벽대기를 가르면서 울리던 랑랑한 그 소리... 우린 그 소리에 맞춰 기상하고 또 아침달리기를 했지, 호호... 난 새벽에 일어 나기가 정말 싫었어. 새벽잠이 얼마나 달던지.》

<앵이, 저 동문 수답처럼 잠도 없네. 생활반장이면 잠도 없는가봐.〉

난 웅알대면서도 그 나팔소리에 이끌려 나가곤 했어. 저녁엔 가만히 간청해 봤지.

<룡석동무, 래일은 좀 늦게 불어.〉

<그건 왜? 잠을 더 자고파?〉

<응, 난 새벽잠이 사랑보다 더 달아. 막 일어나기가 싫어.〉

<무슨 처녀애가 그렇니? 기상나팔을 늦게 분다는건 말도 되지 않아. 우린 조직에서 정한대로 일과생활을 해야 돼. 새벽잠은 개잠이야. 괜히 새벽에 꾸는 꿈을 개꿈이라고 하는줄 아니? 처녀때부터 새벽에 일어 나는 습관을 불어야 해.〉

<흥, 덕분에 좋은 습관을 불이게 됐구나.〉

나는 토라져서 룡석동무를 쫓 - 지나치며 래일은 그 동무가 감기라도 걸렸으면, 트럼베트가 고장이 났으면 하는 고약한 생각을 했드랬어. 웬걸! 다음날 그 소리는 더 랑랑히 울렸어. 기상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노래 몇곡조를 멋지게 불어 대면 온 목장마을이 노래로 움쉴대는것 같았어. 그런데 하루는 푸름푸름 날이 밝아 오는데도 나팔소리가 울리지 않더구나. 알고 보니 룡석동무가 소년단야영소에 갔다는거야. 새벽나팔이 울리지 않자 난 서운한감이 먼저 들었어. 두눈이 말뚱해서 <새벽잠은 개잠>이라고 핀잔하던 말을 생각했어. 며칠후, 룡석동무가 다시 나팔을 불었을 때 온 마을은 잠에서 깨어난듯이 활기에 넘쳐어. 어른들도 그 소리에 맞춰 일터로 나갔지.》

생활반의 트럼베트는 점차 온 목장의것으로 되어 방학이 끝나서도 계속 울려 퍼지었다.

랑랑한 나팔소리는 룡산의 신선한 새벽대기처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드높은 열정과 활기를 불러 주었다. 그 열정과 활기가 새벽부터 온 하루만이 아닌 날과 달로 이어 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룡석은 목장에서 일하면서도 날마다 새벽나팔을 불었다.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것은 그해 여름 풀베기때였다. 집집승마리수가 부쩍 늘어 난 목장에서는 노루메기등판의 풀을 제철에 하나도 허실없이 베들이기로 결정하고 작업반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였다.

작업반들에서는 끝끝한 노력들을 뽑아 보낸것은 물론 관리성원들까지 펼쳐 나셨다. 새벽이슬을 차며 무연하게 펼쳐 진 등판에 올라 서격서격 풀을 베어 나가는 사람들의 일손에는 불이 이는

듯 했다.

한낮이 되자 8월의 폭양이 내리찍여 땀주머니가 된 사람들은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그리워 하나, 둘 허리를 펴곤 했다. 그늘 한점 없는 등판은 시간이 갈수록 해열이 더 뜨겁게 내리쬐어 숨막힐듯 무더웠으나 바람 한점 없었다.

미지근한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달아 오른 몸을 식혀 주지 못하여 일손은 점차 떠지기 시작했다.

이때 바람처럼 불어 예는 트럼베트의 경쾌한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점차 힘찬 곡조로 이어 저 등판에 랑랑히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는 불처럼 달아 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히 씻어 주며 흥겨운 마음으로 일손을 다그치게 했다.

저 앞에 먼저 풀을 베고 나간 룡석이 트럼베트의 랑랑한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던 것이다.

예상보다 높아 진 풀베기실적을 놓고 반장만이 아닌 지배인까지도 자못 흐뭇해서 한마디 덧붙였다

《대단해. 나팔이 큰 은을 냈거든. 중요한건 그 열정이야. 역시 새 세대는 새맛이 나거든.》

이튿날도 룡석은 남먼저 풀을 베어 놓고는 또 나팔을 불었다....

2일, 3일... 10일나마 진행된 긴장한 풀베기 전투에서 나팔소리는 목장사람들의 친근한 길동무만이 아닌 대오의 기수처럼 여겨 졌다.

그때부터 목장사람들에게는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가 더더욱 정답게 들려 와 그 소리에 깨여 나고 그 소리에 맞추어 보람찬 하루일을 시작하는데 점차 습관되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울리는 그 소리에 얼마나 정이 들었던지 룡석이가 군대에 나가게 되자 못내 서운해 하였다. 다시는 그 훌륭한 나팔소리를 못 듣게 되었다면서...

《난 그 동무가 군대에 나갈 때 트럼베트를 내가 건사하겠다고 자진해 나섰어. 그건 그전에 새벽나팔을 부는 그 동무를 고깝게 생각하고 고시랑대던 자신을 비판하는 의미만이 아니었어. 제대되어 고향에 돌아 와 다시 나팔을 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섰던것이 지.》

얼굴이 발가우리하게 달아 오른 차옥은 슬며시 탄전을 부렸다.

룡석이가 군대에 나간후 한동안 마을은 퍼그나 고느적해 졌다.

그때 누군가 그 적막감을 덜겠다고 룡석이가 하던 식으로 새벽에 나팔을 불었다. 신호나팔이었다. 따따- 외마디로 울리는 신호나팔은 병영이나 학교내에서는 어울릴지 몰라도 온갖 정서를 다 불러 내는 여기 목장의 생활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나팔수도 그걸 깨달았는지 인차 자기 일을 거두었다. 더구나 목장사람들은 트럼베트의 곡조에 더 익숙되어 있어 자기의 수고가 무모하다

는것을 알았던것이다.

차옥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나의 생각도 트럼베트와 함께 룡석오빠에게로 흘렀다.

내가 10살 잡혀 나팔조에 들어 갔을 때 룡석오빠는 빙그레 웃었다.

《넌 왜 다른 처녀애들처럼 가야금이나 해금을 하지 않고 굳이 나팔을 배우려 하니?》

나는 조금도 주뭇거리지 않고 《누구나 잘하는 것이면 난 싫어요.》 하고 대답했다.

나를 눈 여겨 보던 룡석오빠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트럼베트를 가지고 왔다.

《네가 이걸 꽤 불어 낼가?》

나는 오빠의 《꽤?!...》 하는 우려에 부쩍 승벽심이 살아 나서 무작정 덤석 잡았다.

《오빠가 부는 트럼베트구나. 나두 배우겠어요!》 내가 룡석오빠를 따라 다니며 나팔을 배우기 시작하자 집에서는 당장 소동이 났다.

어머니는 딸들을 키우다 별일 다 보겠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당장 그만두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명령》 받은 아버지는 학교에까지 와서 내 솜씨를 보더니 그날로 트럼베트를 하나 구해 가지고 들어 왔다.

《이건 네거다. 맘껏 불어라.》

그리고는 잠 자는 나의 입언저리에다 정성껏 연고를 발라 주었다. 학교에서, 집에서 내 지지자들이 늘어 갈수록 나의 트럼베트솜씨도 늘어 갔다.

《우리 나팔조 꼴찌가 괜찮아! 정말 발전이 빠르단 말이야.》

룡석오빠의 칭찬은 나를 황홀하고 매혹적인 세계로 이끌었다....

《차옥언니, 봤어요? 호박이 움 텼어요!》

《음, 봤어. 이제 좀 있으면 손을 뻗치고 손을 달라고 너플덜거야. 빨리 길 량쪽에다 장대기를 세우고 새끼줄을 늘이자. 그러면 우리 출근길이 동화그림처럼 멋 있을거야.》

차옥언니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미리 계산해 놓았던 장대가 몇대, 새끼줄이 몇메터 필요하다는 수자를 불러 댔다.

나는 속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그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고 짝 띄워 준 호박을 보며 감상적으로만 대할 때 언니는 벌써 호박의 생장에 필요한 수자를 도출해 내어 온 농장을 다시 불러일으킬 준비를 갖추고 있는것이였다.

(정말 모범사양공이 달라. 그래서 모두가 받드는구나.)

나는 새삼스레 감동에 젖은 눈으로 언니를 보았다.

### 3

요즘 신문과 방송들에서는 대홍단을 탄원해 가는 처녀들의 소행이 소개되고 있었다. 우리 군에서도 처녀교원이 대홍단으로 탄원하였다.

대흥단마을의 아이들을 가르치려 고향집과 정다운 동무들을 뒤에 두고 떠나갔다.

나는 그 처녀교원의 마음을 엿보면서 얼른 차옥언니를 생각했다.

언니가 없으면 우리 종축돼지들은 뭐가 되며 난 어떻게 할것인가.

밤이 이슥해서 다시 집을 나선 우리는 간데라 불을 켜들고 호박손을 울려 주기에 바빴다. 긴 장대기들을 열병대마냥 세우고 가로세로 촘촘히 늘인 새끼줄우에 호박들이 가득찰것이었다.

나에게는 작년 말 종업원총회때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무슨 용단으로 많은 사람들앞에서 종축돼지를 지키는것이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는지 지금이야 비로소 알수 있었다.

이때 공지의 호박포기들사이로 두 그림자가 눈에 띄어 깜짝 놀랐다.

《누구세요?》

《놀라지들 말아! 내다!》

반장아바이의 웅글고도 석싹한 목소리가 뜨직이 울렸다. 뽀유스름한 달빛에 키 큰 사람들의 차례가 드러났다.

《별아! 이 사람을 알아 보겠니?》

반장아바이가 뒤에 서 있는 사람을 가리켰다. 나는 아바이 뒤로 간데라불을 비치였다.

《불은 왜 바투 대니? 내다.》

성가시다는듯 울리는 목소리에 살피 보니 작년 말 종업원총회때 《반동》으로 몰리웠던 그 아저씨였다.

《어야? 아저씨가 어떻게요?》

《흥, 제관 알아 보는구나. 뭐 내가 <반동>이라고 했지.》

그 소리에 우리는 크게 웃었다.

이윽고 그는 몸을 흔들며 휘적휘적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글쎄 저 사람이 물길공사장에 나갔다 오자바람으로 너희들 일습씨를 보겠다기에 함께 나왔댔다. 우리 목장이 난 신문두 보구, 호박이랑 비름포전이랑 다 보았다.》

《그래 뭐했어요?》

《이젠 그도 생각이 달라 졌더라. 겨우내 꼬아둔 새끼통구리를 내오겠다고 하는걸 보니...》

반장아바이가 호탕하게 웃는 바람에 우리는 서로 마주 보며 즐겁게들 웃었다.

차옥언니는 인차 웃음을 거두고 반장아바이와 앞으로의 사업을 토의하였다. 비름수확과 그 조리정형, 동과, 국화풀의 물질임정형 그리고 호박가꾸기에 대해 하나하나 토론하고 수첩에 빠짐없이 적어 놓았다.

나는 한옆에서 반장아바이와 차옥언니를 보며 저렇듯 성실하고 책임성이 높기에 우리 목장은 나날이 달라 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청소를 끝내고 조리칸에 나오니 차옥언니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장을 꺼내주었다. 결봉에는 활달한 필체로 통석오빠의 이름이 씌여 있었다.

《어마? 통석오빠 편지군요. 분명 나한테 보낸 거예요?》

나는 모를 일이라는듯 눈을 동그랗게 뜬채 입을 오무리며 차옥언니를 보았다.

《언젠 자기 소릴 한마디도 안 썼다고 불평이더니 통채로 받아 놓고도 의견이냐?》

《오, 내가 언니를 안 봐주겠다고 할가봐 앞선을 치면서 보내달라는거겠구만요. 흥, 이렇게 편지나 쓴다구 될줄 알구?...》

나는 일부러 입 비풀어 진 소리를 했다.

내 마음을 잘 아는 차옥언니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나를 재미 있게 보았다.

나는 국화풀을 실어 오려고 달구지를 끌고 나섰다. 이런 일은 우리 사양공들의 맡은 일이 아니었으나 언니 몰래 조용히 편지를 보기 위해 술선 나섰다.

나는 마음이 급해 포전머리에 달구지를 세우고 우선 편지부터 뜯었다. 사료반처녀들이 뜻밖의 나를 보고 저희들끼리 수군거리는것도 가려 보지 못하였다.

《...별이! 마치도 별이가 곁에 있는듯 해서 함께 얘기하는 신정으로 이 편지를 쓴다.

난 먼저 별이가 우리 고향 통산목장에 진출한것을 축하한다.

우리 아버지들의 땀과 땀이 깃든 땅에서 청춘을 바쳐 가는 기특한 마음에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제대병사! 대흥단전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보낸다!》

나는 입을 썩 내밀었다. 다시 한번 축하를? 흥,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사려구? 어렵도 없어. 이제 몇줄 더 어찌구어찌구 하다가 슬쩍 본론으로?... 나는 그 본론이 막상 다가들가봐 겁이 나고 숨이 가빠 났다. 그래서 뒤장부터 후룩후룩 훑어 나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차옥언니이름은 한번도 밝히지 않고 무슨 취주악대요, 백두삼천리요 하는 글줄만 안겨 드는것이였다.

그래서 호기심이 배로 더해 진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 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로 꽃피나는 영광의 땅, 백두삼천리벌! 하루하루가 보람찬 투쟁으로 끓어 번지는 이 벌의 저녁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푸르른 이빨나무들이 늘어 선 방풍림우에 저녁노을이 붉게 퍼질 때면 새로 일떠서는 돼지목장 건설에서 하루일을 끝낸 우리들은 붉은기를 날리며 마을로 들어 서군 한다. 아침이면 온 마을에 이채를 띠는것이 우리 제대군인취주악대의 우렁

찬 나팔소리다. 악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악기들이다.

너는 상상하기 힘들것이다. 백두삼천리벌에 거대한 전변을 불러 주는 우리 취주악대의 힘 있는 선물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어떤 벅찬 희망과 랑만을 안겨 주는것인지...

별이! 고향에서도 별이가 나팔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 고향에도 랑만이 넘치게...》

사료달구지를 끌고 돌아 오는 나의 귀전에는 제대군인취주악대의 힘찬 선물이 울리는듯 했다.

룡석오빠의 기대를 생각할 때 얼굴이 뜨거워졌다.

달구지에서 국화풀을 다 부릴 때까지 차옥언니는 어미들과 새끼돼지들을 돌아 보고 있었다.

매 새끼마다 어미젖꼭지를 고정시키느라 한시도 등한해서는 안되는 하루중의 제일 귀중한 시간이였다.

나는 언니를 도우려고 돼지우리에 들어 섰다. 어미젖꼭에 오롱조롱 매달린 새끼돼지들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는 언니의 고운 눈에 맑은 눈물이 흘러 넘치고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굳어진듯 서버렸다. 그리고 한쪽의 그림파도 같은 눈앞의 현실에 승엄하고도 감격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었다.

행복한 미소속에서 구울러 내리는 맑은 눈물! 축사안의 온갖 음향속에서 그 미세한 울림소리는 나만이 가려 들을수 있는 독특하고도 신비한것이였다.

나는 언니의 그 순결한 세계를 깨뜨리기 저어하며 한발자욱 두발자욱 언니에게로 다가갔다.

《언니, 차옥언니!》

온몸의 힘을 모아 언니를 붙렸으나 의외에도 내 목소리는 어디로 잦아 들었는지 낮고 조용했다.

《언니, 언닌 여기보다 대흥단에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대흥단에 가서 모범사양공의 솜씨를 펼쳐보세요.

우리 목장에선 종축돼지를 위해 우리가 필요하지만 대흥단의 돼지목장엔 언니가 더 필요해요! 가세요. 여기 일은 내가 맡겠어요. 어서 떠나세요! 언니의 뒤통까지 내가 맡겠어요.》

언니에게로 향하는 나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어느새 차옥언니의 예민하고도 고운 눈은 내 맘을 말짱 읽고 있었다.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은 눈길로도 더 많이 말한다는것은 바로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일것이다.

×

9월의 아침해빛이 룡산목장을 따듯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 아침 대흥단에 지원물자를 싣고 떠나는 차판엔 차옥언니가 타고 있었다. 꿀꿀대는 어미돼지 100마리를 자동차 2대에 갈라 싣고 부르릉거리는 적재함에서 차옥은 발기우리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언니, 룡석오빠를 만나면 내 이야길 잘해 주세요. 편진 후에 쓰겠어요.》

새벽마다 새로운 열정과 활력을 주는 나팔을 힘차게 울린 후에 쓰리라. 룡산의 메아리로 구름너머 대흥단까지 울려 퍼지게... 그러자면 차옥언니를 대신해서 더 많은 돼지를 길러내겠다고요.

대흥단에 세간 나가는 돼지들을 보려고 펼쳐나온 사람들이 차가 움직이자 손을 흔들었다.

나는 떠나가는 자동차에 대고 아까부터 옆구리에 끼고 있던 트럼베트를 입에 댔다.

아침대기를 가르며 자동차가 달렸다. 그우로 생기 넘친 트럼베트선물이 날아 올랐다. 희망찬 새날의 활력을 부어 주며 지난 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싣고 격조높이 울리였다.

## 동서남북

리명근

동쪽을 바라보니  
기쁨이 그득하오  
활개쳐 걷고 싶은  
대지에 뻗어 간 길

서쪽을 바라보니  
웃음이 절로 피오  
추녀를 건듯 쳐든  
아담한 문화주택

남쪽을 바라보니  
가슴이 넓어 지오

아득한 규격포전  
바다처럼 펼쳐 졌소

북쪽을 바라보니  
행복이 늑실대오  
그 포전과 잇닿은  
호수 같은 양어장

어디를 바라봐도  
흐뭇한 모습이여  
땅도 사람도

새로와 진 내 고향

연안벌 한가운데  
소소리 솟은 언덕  
장군님 서계셨던  
그 자리에 다시 서니

동서남북 둘러 봐도  
황홀한 절경이요  
눈 부신 해빛아래  
래일이 펼쳐 졌소

## 아쉬워도 보람 있는 삶

-한 비전향장기수에게-

오영재

### 아픈 인생길

인생의 머나먼 길을  
그대는 홀로 걸어 왔습시다  
좁은 감방 정해 진 한곳에  
몸은 머물고  
세월만이 그우에 흘렀습시다

뜻을 같이 하는 벗  
함께 있었다면  
그대 인생길이 한결 쉬웠을것을  
깨우치고 이끌어줄 스승이 곁에 있었다면  
그대 힘을 더 얻어 이 길을 걸었을것을  
아 아픈 인생길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길

길은 많았어도  
그대 홀로 생각하고

30여년 지나긴 세월  
그 고독을 어떻게 이겨 냈습니까  
말 없는 나무라도 썩어서 흠어 질텐데

눈이 있어 뭐랍니까  
보지 못하는 눈  
입이 있어 뭐랍니까  
말을 나눌 사람이 없는 입

날카로운 발톱으로  
가슴을 훑어 내는 고독  
창으로 찢려도 오고

백옥도 오래 가면 때가 끼고  
수정에도 먼지가 앉는데  
침침한 감방에서 어떻게 그 마음  
희게만 간직했던가  
맑게만 살아 왔던가

아침저녁 그 마음을  
닭아 주는 빛이 있었다  
멀리에서 비쳐 오는 빛

홀로 말하고  
홀로 마음 정하며  
걸어서 걸어서 다달은 곳은  
바라던 조국의 품이었나니

모든것을 다 잃었어도  
가슴속 자물쇠만은 열어 주지 않은  
혁명가의 량심이여

그 량심이  
곁에 있어 주어야 할  
벗이 아니었습니까  
스승이 아니었습니까  
미츠러운 징검돌을 두드리며 건네준  
삶의 길잡이가 아니었습니까

### 고독

칼로 베어도 오는 고독

그러나 그대는  
먹장구름처럼 엉키여 밀려 드는  
그 고독과 싸워서 이겼습시다  
꿈마다 그려 보는  
멀리 북녘땅  
남대천 강쪽에 하느적이는  
한오리 가는 실버들가지로  
-길 조심해 가라  
헤여질 때 하시던  
눈물어린 어머니의 낮고도 조용한 목소리로

### 빛

우리 장군님께서 보내주시는  
따사로운 그 어루만짐

언제나 그대는  
그 빛을 향해 서 있었다  
오직 진심만이 웃으며 향할수 있는  
빛이 오는 그쪽

단 한줄기라도

거짓이 낀 마음으로는  
감히 향할수 없는 그쪽  
  
아, 그대는

태양이 없는 어두운 감방에서  
언제나 해빛에 몸을 씻으며  
한생을 산  
태양의 아들이었노라

## 나를 세워 보는 자리

나를 세워 보노라  
그대가 섰던 그 법정에  
그대 체온이 스민 그 감방에  
그대가 걸어 온 그 긴긴 세월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가혹했던  
그 자리이건만

삶의 옥좌 같은 그곳에 나를 세워 보니

아쉬워도 보람 있는  
그대는 인생의 월계관을 쓴 승리자  
언제나 그결에 서서  
마음의 깃을 가다듬는  
나는 작은 새  
그대의 제자

## 감사하노라

만나보고  
서로 안아 보고도 싶다  
옥중의 장기수에게  
그토록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적어 보낸  
마음 착한 남녘의 너대학생들

오랜 날을 변함없이  
영치금을 넣어 주고  
소포들을 보내 온  
《민가협》의 인정 깊은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바쳐 온 지성  
출옥하는 날  
그 이름을 찾으며  
혈육처럼 얼싸 안고  
푸른 옷섶을 눈물로 적셔 준 사람들

리념을 알기전에  
그 리념을 위해 한생을 바쳐 온

그 량심을 존경하고  
그 인간에게 반한 사람들

아름답구나  
어디 가나 인간은 아름다워라  
민족은 다 같은 혈육이구나  
정의롭고  
한없이 선량한 사람들이여

불행한 민족이  
반세기 바라고 바라던 통일을  
이미 정으로, 마음으로 이룩해 준  
그네들앞에서

정견도 무색하여라  
리념과 신앙도 더 말하지 말자  
오직 다만  
감사하노라

## 보통사람

감방속 긴긴 세월의 마른 바람에  
눈물도 말라 버린줄 알았는데  
웃음도 날려 가버린줄 알았는데  
몸서리치는 악형을 견디느라  
뼈도 살도 심장도 무쇠로 굳어 버린  
남 다른 사람으로 알았는데

물어 보자, 동지여  
어떻게 간직했던가

그 많은 눈물과  
그렇듯 깨끗하고 선량한 웃음을  
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무서운 옥고를 이겨 낸것은  
무죄가 아니었구나  
가장 눈물 많고 웃음도 많고  
그렇게도 다정다감한 보통사람  
평범한 인간이었구나

## 정월 보름달

정월 보름달을 보면 장가 든다는데  
간히운 30여년 세월  
단 한번도 그 보름달을 못 보았으니...

갑시다  
즐거운 저녁 산책길을 걸어

모란봉의 을밀대에 올라 봅시다  
밝게 웃으며 솟아 오르는  
조국의 둥근달이  
맞이할 새 안해의 얼굴 같지 않습니까

## 건강하고 장수하시라

바라노니 비전향장기수여  
부디 건강하고 장수하시라  
그대 한생을 바쳐 싸워 온  
통일의 그날도 멀지 않으리니  
  
그날에 남행열차를 타고  
감회깊이 낮 익은 산천을 바라보며 갈 때  
열차를 받들어 주는것이

다만 철길의 침묵만이런가  
  
그것은 그대  
이날을 위해 바쳐 온  
무수한 날과 날들이여라  
금 같은, 피 같은 그 나날이 받들고 있는 길로  
통일의 대하는 굽이쳐 가리  
동지여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고 장수하시라

## 가사

## 해병과 처녀들

### 최문식

갈매기 춤을 추는 포구의 아침  
미역파기 도와 주러 해병들 왔네  
번개 같은 일숨씨 결눈질하며  
양식공처녀들이 소곤거리네  
어쩌면 저렇게 일 잘할가  
바다의 사내들이 다르긴 달라

산뜻한 군복은 눈이 부시고  
가벼운 땀기는 해풍에 나네  
구리빛 그 얼굴 몰래 엿보며  
양식공처녀들이 소곤거리네

어쩌면 저렇게 끝끝할가  
해군엔 미남자만 골라 뽑나 봐

갑판에 호각소리 울려 퍼지고  
정들은 해병들 떠나간다네  
잘 다녀 가시라 손을 흔들며  
양식공처녀들이 소곤거리네  
어쩌면 이렇게 허전할가  
해병들 떠나가니 포구가 빈듯

애들아 미역퐁년 마련해 놓고  
해병들 다시 오게 초청을 하자

# 포옹이 뜨거우면 심장은 사랑한다

-20세기 령마루에서 읊은 총련작가들의 조국찬가를 감상하며-

최길상

작가라면 누구든지 처음엔 시를 쓴다. 동서고금 이름난 작가들을 다 더듬어 보아도 이것은 하나의 공리처럼 되어 있다. 또 한창련애할 때에는 누구든지 시인이 된다고들 한다. 왜 그럴까? 시가 문학의 어머니가 되어서일까? 물론 시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아니 보다는 시가 《심장의 문학》인 까닭이 아닐까. 문학에 대한 열망이 타오를 때 심장이 제일 세차게 뛰었을테니까 그리고 한창 사랑 할 때도... 그래서 심장이 탄주하며 시를 탄생시키는것이다. 그렇다. 시는 심장의 울림이다. 그것은 생활에서 가장 격동적이고 충격적인 계기에서 발현되는 인간정서의 메아리이다. 또 그것은 사랑의 소산이며 사랑은 포옹이 뜨겁고 진실할수록 심장을 바치는것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는 시인,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시인이야말로 포옹이 뜨겁고 진실한 사랑의 소유자, 심장으로 사랑하는 참다운 시대의 《련인》이다. 시인은 심장으로 시를 쓴다.

지난 세기 마지막 두해에 총련작가들이 조국을 방문하고 읊은 시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로동신문》에 발표되였다. 총련의 로세대작가들과 새세대작가들이 쓴 이 시들은 세기가 교체되는 력사의 전환점에서 조국의 대기를 호흡하면서 읊은것으로 하여 뜻 깊은 정회를 안겨 준다.

## 1. 포옹은 류달리 뜨거웠다

발표된 시들을 보면 낮 익은 이름들이고 거의 면식이 있는 작가들이다. 그들은 지금 총련문학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그들 또한 조국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조국에 대한 많은 작품들을 썼다.

하다면 이번엔 쓴 시들이 각별한 정서를 자아내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는가. 포옹이 류다르게 뜨거웠기때문이다. 세기의 령마루에서 어머니조국에 대한 그들의 느낌이 새로왔고 위대한 품에 안아 주는 조국의 그 포옹이 더욱 뜨거웠기때문이다.

내 조국에 온 총련시인으로  
조선의 령마루에 높이 올라  
세계를 굽어 보노라  
큰 붓을 들어  
걱정의 나래를 한껏 펼치고  
누리를 향해 큰 목소리로 웨치노라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시 《아, 조선아》(김학렬)의 결구이다.

만일 이러한 청 높은 웨침이 레사로운 때에 들렸더라면 공허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인은 흘러 온 지난 세기에 위인을 만나지 못한탓에 피눈물의 바다, 시련의 고개를 넘어야 했던 조선을 안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누리를 향해 큰 목소리로 웨치는 시인의 진정을 무리없이 받아 들일 요건으로는 되지 않는다. 《아, 조선아》하고 공지에 넘쳐 터치는 시인의 토로에는 세기의 령마루에서 그렇듯 자주와 존엄으로 빛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나라의 해외공민된 공지와 민족적자존심이 숨배여 있다. 또 거기에는 수난 많던 식민지 옛 세월에 《아, 조선아》를 눈물 속에 통탄하여 부르며 붓을 꺾었던 한 시인의 가슴 저미는 력사의 체험이 깔려 있다. 하기에 이 강렬한 서정적호소는 지난 날의 조선과 오늘의 조선, 그것도 20세기 령마루에서 그렇듯 주체의 위력을 떨치는 조선에 대한 강한 대조속에서 더욱 의미 있고 여운있게 울리는것이다.

시인 정화수의 《조국을 떠나면서》의 서정세계에 들어 가보자.

서정적주인공은 이제 날이 밝으면 어머니조국의 품을 떠나 구름 짙은 저 이국의 하늘아래로 다시 돌아 가야 한다. 그 몇번이나 조국을 찾아와 안기였다가 떠나는 일이 여러번 있었건만 어찌하여 시인은 20세기 마지막령마루에서 보낸 길지 않은 나날에 한생을 두고도 느끼지 못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깊어 지는 생각에 잠못 이루는 지...

내 무거운 마음 안고 온 이 길을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노라  
어려울수록 더 억세여 지고  
시련을 맞받아 붉은기 더높이 들고



나날이 번창하는 나의 조국이어

무척 평범한 느낌 같아 보이는 이 시련속에는 실로 시인의 체험속에 체득된 하많은 생활이 비껴있다. 아마도 그는 조국이 겪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간고한 행군길을 이국땅에서 뼈저린 체험으로 느꼈을것이다. 제국주의반동들의 갖은 악선전에 부딪치면서도 신념을 버리지 않은 시인, 하면서도 마음속엔 언제나 모진 시련을 겪고 있을 조국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시인은 《내 무거운 마음 안고》 조국에 온 이 길이었으리라 표현했을것이니, 이 한줄속에 담겨 있는 시인의 체험세계는 너무도 많은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 뜻을 새기며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의 나라/ 내 조국보다 더 좋은것/ 세상에 없iera》하고 시가 끝났을 때 시인과 열렬히 공감하여마지 않는것이다.

우리는 이 두 시를 통하여 조국과 포용한 시인의 새로운 느낌을 감득한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천만시련속에서 더욱 거연히 솟는 조국, 세기의 령마루에서 빛을 뿌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느낌이다. 회색해 보면 우의 두 시인은 여러차례의 조국방문때마다 그리고 이역의 하늘가에서 얼마나 조국에 대한 많은 시를 썼는가. 하지만 세기의 전환점에서 본 조국은 새로운 의미, 새로운 느낌으로 안겨 왔으니 이것이 조국을 포용한 시인들의 시세계를 낳게 하였다.

시대와 포용이 뜨거운 시인은 언제나 시대의 숨결로, 시대의 박동으로 시를 쓴다.

시창작의 이 절대의 진리를 다시금 실증해 주는 시들 대하는 평자의 기쁨을 솔직히 고백한다. 그 기쁨의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 좀 더 고찰해보자.

시인 정화수와 김학렬은 조국방문시에 다같이 백두산에 대한 시를 썼다.

이 나라 조종의 산 전산성악 백두산에 오른 두 시인은 각기 새로운 미학적감수력으로 백두산을 우러른다. 시인 정화수는 장군봉에 올라 세상천하를 굽어 보며 백두산을 지구행성 한복판에 뿌리를 박은 혁명의 성산으로, 시인 김학렬은 조종의 메부리에 올라 천변만화를 부리는 령산의 신비로움을 백두산 새 호랑이의 조화로 감수하였다.

하여 시 《백두산에 올라》(정화수)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지맥이 모여 들고 사람들이 모여 들어 《백두산의 내 나라는 넓기도 하네/ 김정일장군님의 식솔은 많기도 하네》라는 민족적자존심의 긍지높은 서정으로 시형상을 승화시켰고 시 《백두산에서》(김학렬)는 백두산장군의 전설 같은 힘으로 내 나라를 빛내이시고 온 세상을 거느리시고 **김정일**세기를 새겨 가시는 천하제일명장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백두산을 위엄 차고 호기 있게 시

형상을 부각하였다.

옳도다! 이것이야말로 20세기 령마루에 거연히 솟은 백두산의 모습, 조선의 모습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적인 혁명의 성인의 거룩하신 모습이 아닌가.

위대한 력사의 전환점에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른 시인들이 세상천하를 부감하고 새 세기를 바라보며 내려친 환상은 참으로 새로운 미학적의미를 담아 철학적으로 심오한 혁명의 성산의 서정을 창조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시인 정화수와 김학렬은 서정의 물결을 일으키는 시적환상이 자유분방하고 정서적감흥의 진폭이 큰것으로서 동질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자는 보다 더 호기차고 호방한 숨결로 설레인다면 후자는 보다 더 사색 깊은 심호흡으로 서정의 심연을 헤엄쳐 가는것이 특징이 아니겠는지...

이미 지난 세기 중반기부터 총련시인들의 작품을 대하여 증진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두 시인에 대하여 상상했던 필자의 표상은 주체88(1999)년에 총련 로작가대표단으로 조국에 온 시인 정화수를 대해 보고 그리고 주체89(2000)년 총련문에 일군대표단 단장으로 온 시인 김학렬을 만나 뜻 있는 문학담을 하면서 나의 생각이 어느 정도 옳았다는것을 확신했다.

작품은 곧 작가이다. 더우기 시는 시인자신이며 그 개성의 발현이다.

시인 김학렬의 개성을 특징지을수 있는 하나의 사실을 상기해 보련다.

...20세기 인류사의 가장 충격적이고 경이적인 사변의 하나인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했을때 조국에서는 **김일성**경기장에서 성대한 환영 군중대회를 진행했다. 그때 한 비전향장기수는 환영연단에서 자작시 《떡방의 노래》를 읊어 만장을 격동시켰다. 어둡고 캄캄한 감옥, 떡방에서도 한줄기 빛을 바라보며 신념을 잃지 않은 그 장기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에게는 시인 김학렬이 지난 세기 중반기에 쓴 서정시 《철창너머 눈이 내린다》의 그 서정적주인공이 오늘 현실로 되어 연단에서 있지 않는가고 환각했다. 분열된 민족의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 한몸 바쳐 싸우다가 철창속에 갇힌 서정적주인공은 철창너머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비장한 결심을 다진다. 그 랑만적시형상의 주인공이 바로 저 비전향장기수리라!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시인의 높은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는 시적탐구와 사색,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로 호흡하는 시인은 진실한 시적환상속에서 가장 전형적인 서정적형상을 창조한다. 그것은 진실이며 세월이 흘러도 시대의 뒤편으로 살아 있는것이다. 시인의 이러한 면모가 지난해 조국을 방문하여 쓴 조국찬가들에서 더욱 정화되고 세련되었으니 그의 시는 분별

없이 웨치거나 주장을 성급하게 로출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우면서도 엄숙하며 걱정적이면서도 은은하다. 그는 사색적이기를 좋아 하며 말마디마디를 심장속깊이 간직하면서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말한다. 하기에 그의 시에서는 강한 세기의 저력 있는 음조로 서정이 울리며 깊은 철학을 안겨준다. 그래서 여운이 크다.

우리는 두 시인의 개성이 더욱 원숙해 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 2. 단풍은 붉다

인간의 자연적나이에 관계없이 그의 정신육체적 젊음을 가늠하는 기본징표가 무엇이겠는가. 일반적으로 그것은 심장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의 심장이 청춘의 활력으로 뛰면 그는 청춘인것이다. 더우기 이 기준은 작가들, 특히 시인에게는 절대적인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 청춘의 심장은 사랑의 소산이다. 사랑이 심장을 뛰게 하고 그 심장이 시를 낳는다. 그 심장은 언제나 청춘이다.

나는 총련작가들의 시작품들에서 《룡문대굴이 빙긋 웃네》, 《단군룡앞에서》를 특별한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다. 이 시의 작가 박종상은 소설가이다. 우리는 단편소설 《원앙유정》과 장편소설 《봄비》 등을 비롯하여 많은 그의 소설들을 알고 있으며 그는 소설로 조국의 독자들과 친숙해졌다. 그런데 서정시를 썼다. 그것도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아니 그는 저녁노을이 아니라 아침노을속에 있다. 심장이 청춘으로 뛰고 그 심장이 시를 탄생시켰다. 그 사랑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꽃피운 우리 장군님의 시대에 와서 단군조선이 70억 인류를 격동시키는, 동서고금에 일찌기 없는 으뜸가는 나라로 된 조국에 대한 사랑이며 김정일세기의 려명이 동 터오는 시대에 대한 사랑이다.

하늘신의 자손이라는 단군인들  
어찌 생각인들 하였으랴  
대박산을 부는 술바람소리  
단군시조의 거쉬인 목소리  
-아 장하도다!  
아 고맙도다!  
조선의 후손들이여

세세년년 복 받을 김정일조선으로  
무궁토록 번영할지어다  
조선이여!

(시 《단군룡앞에서》)

작가는 단군룡앞에서 감회에 잠긴다. 단군이

나서 조선의 하늘을 열고 조선의 땅을 열어 이 땅에 댈면 5천년, 수천만이 생을 대대로 이어 오며 품어 오던 꿈과 념원은 얼마나 많았으랴. 작가의 눈앞에는 반만년의 력사가 눈아래 굽어 보이며 룡성했던 고조선의 언덕을 넘어 대성산 옛성터에서 강성했던 고구려무사들의 말발굽소리도 들려 온다. 그런데 어인 일인가. 굴욕과 수난의 년대를 넘고 사대와 망국의 력사를 지나며 조선은 어떻게 되었는가. 작가는 시상이 떠올랐다. 그는 시인이 되었다. 심장은 세차게 젊음으로 뛰며 20세기에 빛을 뿌리는 사회주의조선, **김일성**민족에 대한 공지와 자부, 사랑으로 뜨겁게 불 타올랐다. 여기에 묘사의 문학인 소설적인 환상의 나래침이 단군시조에 대한 찬탄의 감정을 시에 핵으로 심어 더 뜻 있고 여운 깊은 시형상을 창조했다. 하기에 그는 주체88(1999)년에 《쓰던 소설 미뤄 놓고 시를 쓴다 붓을 드니/ 서툰 이 솜씨에 주저함도 있건만》 천상천하 황홀경과 신비경을 다 펼쳐 놓은 룡문대굴을 한쪽의 회화인양 시적으로 펼쳐 놓았으리라.

그가 《똑똑한 산문쟁이 붓방아만 쥘으니/ 그것도 시이냐고 룡문대굴 빙긋 웃네》라고 시 《룡문대굴 빙긋 웃네》의 결구를 맺었을 때 우리 독자들은 《산문쟁이》의 그 붓방아에 땅우에도 금수강산이요 땅밑에도 금수강산인 내 나라, 내 조국을 뜨겁게 포용한 작가를 보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깃들었으랴고 서정의 여운을 감득한다.

그의 시에는 이성적인 절도와 지성적인 분석이 뜨거운 감성과 결합되어 더 흥취를 돋구어 준다.

작가 박종상은 20세기 령마루에 빛나는 조선을 뜨겁게 안고 젊음을 다시 불려 왔다. 우리는 최근이 작가의 아동소설도 이채로운 감정을 가지고 읽을수 있었다. 그렇다! 창작적왕성-그것은 청춘의 사랑과 열정의 산아이다.

총련시인들의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에 대한 사랑은 실로 조국에서 체험하는 그 모든것에 미치면서 다양한 시적계기에서 다채로운 시형상을 낳았다.

시인 김윤호는 《내 가슴치는 생각》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천하의 지성이란 지성  
세상의 칭송이란 칭송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두분의 위인께 드린  
진귀한 선물 다 보고  
국제친선전람관을 나서니

한눈에 안겨 오는 묘향산의 절경  
꿀마다 물소리 봉이마다 기암이라  
말도 모자라 붓이 멈춰 서는  
천하절승 너를 바라보니

아, 이 가슴을 치는 하나의 생각

강산이 인물을 낳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오니 그만이지 아니로다  
향산아, 묘향산아  
인물이 강산을 낳는구나  
위인이 있어 너도 빛을 뿌리누나

시인은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기발한 시적감각으로 번뜩이는 정서의 섬광을 포착했다. 그것이 바로 강산이 인물을 낳는것이 아니라 인물이 강산을 낳는다는데 발견이 있다. 이것이 이 시의 사상정서적핵이다. 그는 항상 다양한 생활계기에서 서정의 예각을 도출하여 정답고 친근한 정서로 자기의 시형상을 창조한다. 시《본가집》은 조국의 품을 본가집에 비유하여 노래하고 있는바 자칫하면 범상한 감정으로 흐를수 있는것인데 체험의 진실성과 꾸밈새 없는 감정의 솔직성과 소박하면서도 친근감이 있는 시어의 구사로 하여 참으로 정 깊은 인상을 안겨 준다.

조국땅에서 읊은 총련시인들의 작품은 한결같이 사랑의 서정으로 일관되어 있다. 무릇 자연현상의 현실을 놓고도 수령복을 누리는 민족의 긍지와 기쁨으로, 사람을 만나도 거리를 거닐어도 물을 마시고 공기로 호흡을 해도 존엄 있는 **김일성** 민족의 넋과 자부로 감수하며 서정을 펴나간다. 여기에서 시인 홍윤표의 시《북비가 내리오》와《눈빛》, 시인 정화흠의《평양꽃고추》는 시적발견과 서정의 발산에서 시인의 기치가 번뜩이는 산뜻하고 감칠 맛 있는 작품이다. 시들마다에는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구체적인 생활감정으로 표현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수령님의 서거 5돐 추모대회에 참가했던 시인은 돌아 오는 길에 비를 맞게 되었다. 그해 따라 류달리 가물에 탔던지라 사람들은《이 비야 수령님 주시는 비》,《우리 한울님 내려 주시는 비》라고 하면서 말을 주고 받았었다. 그때 시인은 그들의 말을 가슴 뜨겁게 들으며 자기의 주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생전에도 천만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천만 복을 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영원한 하늘의 복이어

비가 오오 비가 오오  
풍년비가 내리오  
이 땅을 적시며 내 마을을 적시며  
수령님 주신 복비가 내리오

어찌 이것이 조국사람들의 말소리에서 시적계

기를 잡은것이라고 하겠는가. 이것은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성취되는 모든 복을 수령복으로 심장에 받아 들인 시인의 미학적발견이며 세계관의 반영이다. 참으로 시인은 7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도 바로 어버이수령님의 나라, 우리 장군님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현실을 그려한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며 거기에서 서정의 실머리를 찾고 시를 쓴다. 시인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걸어 보자. 시인은 무엇을 보고 있으며 사색을 굴리였는가. 친척방문의 길에서 오랜 날 헤어졌던 누이동생, 조카, 대학생손자를 만나도 딸네 집에 나들이 갔다 온다는 이웃의 로인을 만나도 밤마다 건설장에 지원을 나간다는 아래집처녀를 만나도 시인은 모성애와도 같은 그런 다심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눈빛을 보고 있다.

내 다녀 본 이 땅의 그 어디  
그 누구와 마주 앉아도  
내 사는 이역땅에서  
나쁜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말하던  
그런 흐린 눈빛 여기에는 없구나

인생 칠십 가까이  
내 어디서 보지 못한것 있었으랴  
맑은 호수와도 같은 저 아이들의 눈빛을  
그 어떤 불의와 악이 마주 볼수 있으랴  
내 눈시울 적서 주는 조국동포들의 눈빛이어

래일을 사랑하는 정다운 눈빛  
그 눈빛에 만풍년의 가을이 실려 있고  
그 눈빛 따라 고속도로가 뻗어 가고  
우리의 위성이 하늘높이 날아 오르지 않더냐

(시 《눈빛》)

사람이 천냥이면 눈이 팔백냥이라고 한다. 눈빛에 인간의 모든 생각과 지성과 인품, 사상정신적면모가 다 비끼기때문이다. 시인은 바로 그 눈빛을 예리한 시적감각으로 관찰하고 있다. 하여 그가 확신한것은 불을 뿜으며 열정에 찬 그 눈빛속에서《푸른 기상을 펼치며 일떠서는 으뜸의 강성대국》인것이다. 시인의 확신에 넘친 눈빛을 그려보며 우에서 인용한 시구절을 다시 읽어 보자. 자신의 눈시울을 적서 주는 조국인민들의 눈빛을《그 어떤 불의와 악이 마주 볼수 있으랴》하고 시인이 자신만만한 어조로 노래했을 때 그것은 20세기 마지막년대에 들이닥친《고난의 행군》의 가혹한 시련을 헤쳐 온 조국인민들의 불굴의 기상에 대한 뜨거운 레찬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울려 주는것이다. 하여 우리는 조국인민들의 눈빛을 보는 시인의 눈빛에서 사회주의조국의 오늘과 미래에 대한 시인의 신념에 찬 긍지와 락관의

정서를 절절하게 느끼게 되며 시대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슴 저미게 받아 안게 된다.

우리는 시 《평양꽃고추》를 통하여서는 이국땅에서 한생을 살며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세기의 평마루에 오른 시인들이 조국땅의 모든 생활의 세부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섬세한 시적감각으로 가슴에 안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பெ부로 느낄 수 있다.

고추는 작아도  
맵다고 하거니  
고추의 노래 어이 길가  
땅 좋고 물 맑아  
해빛도 맑아  
빛갈 고운 꽃고추  
입맛 좋은 꽃고추

오늘도 저녁상엔 꽃고추라  
그 맛은 조국의 맛  
그 맛을 잃지 않고  
내 애국의 한길에서  
맵게 살아 왔던가  
이 작은 꽃고추에도  
내 한생을 비쳐 보는  
아, 평양의 꽃고추!

이 시를 읽었을 때 나에게서는 시인 정화흠과 한 식탁을 마주하고 식사를 나누던 때가 언뜻 떠올랐다. 조국에 온 총련의 로작가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을 따라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조국의 문학이 어떻게 전진하였는가를 들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강의를 마친 후 그들과 함께 고려호텔의 민족음식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갖가지 민족음식이 그득찬 식탁에서 특별히 이채로운 것은 첫물꽃고추와 감자음식이었다. 친절한 접대원이 《첫물로 판 평양꽃고추입니다. 맛 있게 드세요.》하고 강조해서인지 모두들 된장에 꽃고추를 찍어 먹으며 좌석은 더욱 활기에 넘쳤다. 그런데 시인 정화흠은 꽃고추를 든채 무슨 골똥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혹시 나이드는 몸이 편치 않은지… 얼핏 보니 눈이 약간 충혈되어 습뻣거리고 있었다.

바로 시인의 그 모습이 그대로 시 《평양꽃고추》에 비껴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시인의 탐구적인 사색의 세계를 존경하며 《내 애국의 한길에서/ 맵게 살아 왔던가》고 하면서 작은 하나의 평양꽃고추에 한생을 비쳐 보는 높은 시적일반화에 경탄을 하였다. 조국의 모든것에 대한 뜨거운 애정의 감정, 그 사랑으로 현실을 대하며 너무도 평범하고도 범상한것에서도 시를 발견하고 찾아 내는 기지, 부드럽고 섬세한 색깔로 무르녹는

정서, 이것이 한편의 시를 통하여 본 젊어 지는 시인 정화흠의 작가적소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단풍은 붉다, 나는 이 말의 참뜻을 시 《늙음을 모르노라》(정구일)를 읽으며 더욱 굳히게 되었다. 이역땅에서 시인을 로작가라고 부른다. 늙었다는 것이다. 누구나 늙었다고 하면 서운해 한다. 그래서 시인도 그렇게 부르는것이 허전했을지도 모른다. 하긴 80고개를 바라보며 백발을 날리는 나인데…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젊음이 그리웠다.

하건만 내 조국땅에 안겨  
젊음도 가벼워 지더라  
빠진 이발도 다시 돈듯 하더라  
맑은 눈빛을 보며  
이마의 주름이 지워 지고  
조국의 맑은 바람에  
백발이 날려 가더라  
그래서 처녀들이 나를 바라보는지…

독자들이여, 탓하지 말자. 고령의 시인이 조국의 못치녀들에게 눈길을 팔며 시를 엮어 간다고… 조국은 늙은 고목에도 질줄 모르는 꽃을 피워 주고 맑은 대기, 맑은 샘으로 백발을 날려 보내주고 청춘의 정기를 북돋아 주거늘 시인의 심장은 사랑으로 높뛰고 젊음으로 설레었다. 하기에 그는 《아서라 날 로작가라 부르던 이들에게 이르노니/ 총련 1세 자랑 많은 이 마음엔/ 늙음을 모르는 노래로 가득찼다오》라고 땀배한 열정을 읊조린다. 얼마나 돈보이는 총련 1세, 영원한 청춘의 모습인가.

시인 고봉전은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고결한 넋을 지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해외공민된 궁지와 영예를 흥겨운 민족장단에 태워 《내 어깨도 으쓱해 지는구려》를 읊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탁월한 령도풍모, 숭고한 민족애로 하여 6월평양상봉이 마련되어 온통 우리 장군님판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격동에 설레일 때 시인의 어깨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으쓱으쓱 올라만 간다.

세상이 우러르는 **김정일**장군  
그분의 슬하에 사는 이 늙은이니  
어찌 어깨가 으쓱거리지 않겠소  
하늘 높은줄 모르고  
내 어깨가 오르기만 하는구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 산다는 이 행운, 바로 그것으로 하여 삶의 희열은 넘치고 민족의 존엄과 기개는 더욱 강성해 시인은 자신을 늙은이라 불렀지만 독자들은 흥얼흥얼 노래가락에 춤 추듯 걸음을 옮기는 그의 모습에서 청춘의 열정과 생

기가 뿔어 저 나움을 느낀다. 그의 시에는 기지가 번뜩이는 시구와 현란한 표현은 없으나 평범한 생활에서 체험되고 흘러 나오는 소박하고 솔직한 느낌, 달작지근하고 향내 풍기는 찌르르한 맛은 없으나 구수하면서도 매움, 짹짹한 감칠맛이 있어 구미를 당기게 한다. 나는 그의 시집 《제일 좋은 꽃》을 받아 보면서도 이러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아마 이것이 해외에서 민족교육의 교단에서 한생을 보내며 시를 창작한 그의 개성의 발현이라고도 말할수 있으리라고 본다. 후에 시집의 전모를 통하여 본 시인의 개성을 더 이해할 기회가 마련되리라는 여지를 두고서...

더 말하지 말자.

총련로작가들의 시에서 우리는 사랑과 열정에 불 타는련인의 뜨거운 심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가장 열렬히 사랑할줄 아는 심장을 지닌 청춘이다.

새 세기의 위대한 태양아래 젊어 지는 조국을 가장 뜨겁게 포옹하고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불덩어리이다.

### 3. 앞날은 창창하다

총련작가들의 조국방문시묵음에는 시 《평양바람》(김유미), 《길》(양금녀), 《하나》(최태순) 등 작품들도 있다. 작가들의 이름을 보아도 처음 듣는 인상이다. 총련의 새 세대 작가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물론 이들이 총련문학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표적인 새 세대 작가들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하는데 대해서는 불문에 붙여 두자. 총련에서도 문예동지의 지도밑에 수많은 새 세대 작가들이 자라고 있다는것을 우리는 여러 기회에 알수 있었다. 하면서도 세련의 시를 통하여 우리는 새 세대 작가들의 전일적인 모습을 비추어 볼수 있고 또 앞날을 전망할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세련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수 있는 기쁜점은 우선 시대의 서정에 대한 감수가 참신하고 절실하고 의의 있는 사회적문제들에서 시를 발견하고 자기의 느낌과 주장으로 정서를 펴나가면서도 시적일반화의 수준이 담보되고 있는것이다.

시 《평양바람》은 시적발견도 이채롭고 감정도 진실하고 새로우며 서정도 참신하다. 시의 제목이 보여 주는것처럼 평양바람에 대한 시인의 환상도 있고 시대의 정서를 일반화해 나가는 시적재기도 엿보인다. 시에서 《검은 단발머리 날려주는 바람이여》라고 표현한것을 보면 서정적주인공은 조국땅에 처음 와서 평양바람을 맞은것이라고 할수 있다. 하기에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을 걸으며 맑고 부드러운 평양바람을 정답게 맞으며 느끼는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세계에서 생동성과 참신성을 인차 맛 볼수 있다.

네가 불어 가면 백화가 만발하고  
열매 주렁진 가지들이 땅에 드리우더라  
네가 한번 어루만져 주고 쓸어 주면  
시름겹던 고뇌의 그림자도 없어 지고  
가슴속 모든 소원 다 풀리더라

네가 한번 불어 가면  
못 넘을 산도 없고  
못 건널 강도 없어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넘어 가더라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을 때 서정적주인공이 감수한 평양바람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 평양바람은 주체의 대기로 민족의 녀를 호홉하게 하며 시대의 온갖 역풍을 밀어 내고 모든 사람들을 자주의 열기로 덥혀 주는 조선의 정신, 조선의 기상의 상징인것이다.

시형상전반이 녀성적인 부드럽고 섬세한 감정으로 이루어 지고 서정의 물결도 매우 정답게 설레이고 시어들도 매우 소박하게 구사되어 있지만 시를 다 읽고 나면 그 바탕에서 세차게 맥박치는 조선의 위대한 정신의 위력과 의미를 감득할수 있게 한 여기에 이 시의 여운이 있고 서정의 깊이가 있지 않겠는가.

시 《길》도 길에 대한 일반적표상으로부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대통로로 상징되는 청년영웅도로에로 시형상을 집중하여 길의 미학적의미를 일반화하여 노래하고 있다. 이 시에서 특히 공감이 가는것은 조국의 현실에서 목격한 가장 적극적인 생활에서 시의 종자를 골라 잡은것이다.

필자가 조국에 와서 조국의 현실을 체험하던 때는 지난해 여름이었다. 그때 우리의 영웅적청년건설자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며 그야말로 맨 주먹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서 시인의 창작적충동은 끓어 올랐다. 시인이 걷는 고속도로에 아직은 포장기 끝나지 않았으나 그는 가장 어려웠던 날에 위대한 장군님의 부름 따라 배낭 하나만을 지고 여기에 달려 와 등짐으로 흙을 나르며 《마대전》을 벌리는 청년건설자들을 뜨거운 마음속에 안아 보며 강성대국의 번영과 총련부흥의 미래를 굳게 확신하는것이다.

내 이 길에서 보노라  
불 타는 젊은 어깨우에  
꿈 많은 배낭우에  
땀 배인 흙집우에  
강성대국으로 일어 서는  
내 조국의 기상을

...

내 이국의 길을 걸어도  
언제나 이 길에 서노라  
이 길을 걷는것처럼 내 걸으리  
불 타는 청춘들의 심장으로 다져 진  
내 이 길을 걸으며  
우리 장군님 펼쳐 주신  
강성대국의 그날을 보노라!

장하다! 총련 새 세대의 신념에 찬 결의가 용  
용히 굽이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든든하고  
미래가 락관된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 시대정  
신이 가장 뜨겁게 나래치는 본질적인 생활속에서  
시상을 잡고 서정을 추구한 시인의 높은 탐구정  
신을 값높이 사고 싶다. 시대의 가수인 시인은  
이처럼 언제나 시대의 한복판에서 시대정신을 심  
장으로 체득하고 시를 써야 한다. 시대의 격류를  
피하여 생활의 변두리에서 아무리 재기를 부려  
도 그는 시대의 가수가 될수 없다. 우리 시대 시  
인의 참다운 창작자세를 이 시에서 볼수 있는것  
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다.

시대적으로 예리한 사회문제들에 적극 관심  
하며 절실하고 의의 있는 문제들을 포착하고 형  
상을 창조하는 새 세대 작가들의 미더운 모습은  
시 《하나》를 통해서도 찾아 볼수 있다.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찬  
란한 위력이 더욱 부각되는 자랑스러운 나날에  
이역땅에 살면서도 해외공민된 궁지와 영예가 열  
마나 솟구쳤던가. 해건만 언제나 조국의 분열이  
라는 민족의 설움때문에 아픈 가슴을 안고 반세  
기를 살아 왔다. 하나로 되여야 할 조국이 둘로  
된 이 비극이 계속될수록 7천만 우리 겨레처럼  
《하나》에 대한 열망을 간직한 민족이 어데 있겠  
는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것- 이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역사적과제이며 최대의 소원이다.  
시 《하나》는 바로 이처럼 가장 절실한 민족의  
숙원에서 종자를 잡고 그것을 시대정신의 견지에서  
해명하고 있다.

하나가 하나로 되지 못하고  
둘이 되는 피로움  
통일만세소리 울려야 할 땅에  
분열만이 깊어 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의 의미를 깊이 새길수록 뼈 저린 고통만  
이 더해 저 동강난 민족의 두 부분을 안고 몸부  
림칠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장 55년/ 수령님  
통일유훈을 받드시여/ 조국통일의 서광을/ 단 사  
흘만에 안아》 오시였다.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  
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이 세상을 진감시켰  
다.

이제는 평양이 부르면  
서울이 화답하고  
대동강이 춤 추면  
한강이 너울너울  
백두산천지가 설리면  
한나산백록담이 출렁입니다

이 대칭되는 표상속에서 뿔어 저 나오는 사상  
정서적주장은 통일조선 강성대국의 지름길을 펼  
쳐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  
인것이다. 하여 시 《하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  
국통일업적을 노래하는 감동적인 화폭을 창조하  
였다.

총련의 신진작가들의 시는 서정시의 기본특성  
을 고수하면서 시인 자신이 조국에서 느낀 체험된  
감정을 진실하게 토로하며 시인-서정적주인공의  
성격을 개방시키고 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것으로서 재일조선인신문학  
의 앞날을 락관하게 하는 좋은 징조이다. 그 앞  
날은 창창하다.

×

21세기의 려명이 밝아 오는 격동의 전환점에서  
조국찬가를 불렀던 총련작가들!

그들은 혁명의 필봉으로 주체문학의 빛나는 자  
욱을 새겨 가는 주체사실주의문학의 창조자들이  
며 그것으로 한생을 보람 있게 살고 있다.

이 소론을 끝내는 나의 눈앞에는 그들의 모습  
이 눈에 선하다.

20세기 려마루에서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령도로 조  
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가시던 그 어려운 행군  
길에서도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지도해 주시며  
우리 문학이 붉은기문학으로 더욱 세차게 펴럭이  
도록 이끌어 주신 업적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려  
도자와 운명을 같이 하며 풀죽을 먹으면서도 위  
대한 장군님과 사회주의제도를 결사옹위하는 쇠  
소리나는 작품을 쓴 조국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대  
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몇번이고 눈물을 흘  
렸다.

그것은 심장의 느낌이였고 사랑의 눈물이였다.

그들은 세기의 려마루에서 조국이 겪은 이 모  
든것을 숭고한 애국의 마음으로 뜨겁게 그려안았  
다. 그 포용과 사랑의 심장으로 새 세기의 번영  
할 강성대국을 확신하였다. 그 시대의 서정으로  
지난 세기를 진감시켰다.

그렇다. 그 사랑의 서정은 새 세기로 깊은  
여운을 남기며 즐기치게 메아리쳐 가고 있다.

나는 그 메아리를 들으며 총련작가들이 영원한  
청춘의 심장으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의 노  
래를 엮어 가리라고 확신한다. 부디 건강하여...

## 병사들이 돌아 왔다 외 1 편

황영

침략의 무리와 맞서  
포연에 검은 머리 날리던  
백병전의 용감한 병사들  
머리에 흰 서리 가득히 엮고  
오늘에야 적후에서 돌아 왔다

돌아 와 안기지 않고는  
살아 한생 땅속에 묻힐수 없어  
꺼져 가는 인생의 불씨  
철의 의지로 키질하며  
끝끝내 돌아 온 장한 아들들

와야 할 병사들 오지를 앓아  
어머니조국이  
 뜬눈으로 지낸 밤 그 얼마더냐  
 품어야 할 아들들 품지 못해  
 조국이 두팔을 벌린채  
 기다려 기다려 그 몇해더냐

적후의 병사들을  
이 세기에 품 안지 못하면  
아마도 조국은 장검을 뽑아  
세월의 흐름 토막쳐 버렸으리

북두칠성 바라보며 싸움길 시작하고  
북두칠성 그리며 인생길 빛내인  
세상이 다 아는 신념의 최강자들  
소꿉시절 베짖병이 다 적시며 뛰놀던  
고향의 시내가 그리워서만  
예 왔으랴

오, 조국이 소리쳐 세상에 자랑할  
마지막병사들이 돌아 왔다  
개신장군인양  
승리의 보고 안고  
전장에서 돌아 왔다  
꿈결에도 그리던 최고사령부를 찾아

## 조국은 두팔 벌려 그대들을 맞이한다

통일열기로 뜨겁게 달아 오른 땅에  
굴함 모른 장한 아들들 돌아 와  
온 나라가 명절이라  
조국은 두팔 벌려  
장기수 그대들을 부둥켜 안았다

찬비 휘뿌려 지고  
눈보라 모질게 불어 와도  
또 창문을 때리고 내닫는 바람소리에도  
기다려기다려 아픔의 눈길 못 떼던  
어머니조국은 가슴을 진정치 못한다

몇알의 감자  
화로불에 파묻고  
아들을 기다리는  
산골녀인의 마음처럼  
없는줄 알면서도  
끼니때마다 더운 밥 떠놓는  
어머니마음처럼

이제나저제나  
그대들을 손 꼽아 기다려 온  
어머니조국이  
기쁨의 물목을 터쳤다

수십년 차디찬 철창속에서

열고 언 가슴들이  
순간에 다 녹으라고  
조국은 장기수들 새삶의 보금자리에  
이 세상 해빛을 다 모았고

언제 한번 소리내여 웃어 못 본 장기수들  
그들이 마음껏 크게 웃으며 살라고  
조국은 살림집 세간살이 하나에도  
극진한 정성을 기울여 왔더라

조국이며 어머니시여  
끝어 안으랴  
그대의 장한 아들들을  
한장 종이와 운명을 바꿀수도 있었건만  
결코 그 길을 택하지 않은 택할수도 없는  
달리는 살수 없는 그대의 아들들을

어머니와 아들  
아들과 어머니  
그 어머니 그 아들들  
보살펴 이끌어 주는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동지  
오 두팔 벌려 아들들을 포옹한  
조국의 하늘가에  
태양이 빛난다 눈 부시다

## 녀성은 다 어머니로 되는가

정해경

나는 집으로 가고 있다. 안해에 대한련련한 마음을 안고 출장에서 돌아 오는 나의 걸음은 급하기만 했다.

다음해 통나무생산계획때문에 도림업총국에 나가 달포나 수산기처럼 수자에 움해 있던 머리가 그 시름에서 해방되고보니 그와 못지 않게 육박해드는것이 안해에 대한 그리움이였다.

나는 여직 숲밖에 모르고 살았다. 산수학적으로 말한다면 《나=숲》, 《숲=나》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정작 안해를 맞고보니 《나=안해+숲》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안해와 가정에 대한 감정이 의지의 계선을 넘어 이다지도 견잡을수 없는 그리움에 취하게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래일 아침에 떠나는 림철기 판차를 기다릴수 없어 견기로 작정하고 숲속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그사이 숲은 얼마나 좋은 계절을 맞이했는가! 옥계천다리우를 건넌 나는 푸른 관유리처럼 반듯한 수면우에 천연색사진처럼 비껴 든 숲의 가을 풍경에 현혹되어 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푸른 탐처럼 번쩍거리며 자연의 무성함을 떨치고 있는 전나무림이며 흡사 초불을 켜들고 수립의 길잡이로 나선듯 싹누렇게 단장한 자태를 뽐내는 이빨나무림이며 어머니 몰래 화장품통을 뒤져 입술이며 불에 빨간 연지칠을 해가지고 제 모양이 보고 싶어 거울앞에 다가선 계집애들마냥 물우에 붉은 잎새를 실어 놓은 붓나무, 고로쇠나무의 군락들이며 특별히 노랑계 단풍이 들어 봄, 여름내 숲을 단장하느라 수고한 값에 받은 훈장 같아 보이는 사스래나무의 군락들을 보노라니 숲의 신비경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어디 그뿐인가. 발밑에 기분 좋게 밟히는 락엽이며 어디선가 가까운곳에서 풍겨 오는 느타리버섯의 독특한 향기는 숲이 그리웠던 나를 막 취하게 하였다. 문득 내가 집을 떠날 때 뒤집에 사는 제선아바이가 해주었던 말이 생각났다.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 오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결혼후 3년동안에 일생 부부가 주고 받는 사랑의 절반을 나눈다고들 하네. 처를 데려다 문패를 달아 놓고 만날 떠다니니 처가 적적해 할걸세. 우리 로친의 말이 임자처의 몸이 이전 같지 않다는거야. 이젠 숲에만 정신을 팔지 말고 제 사람 귀해할줄도 좀 알라구.》

70로인의 이 말은 나를 몹시 흥분시켰다. 결혼후 2년나마 자식을 기다려온 나로서 안해의 몸이 그전 같지 않다니 안해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

졌다. 정말 부부간의 정은 머리흰 로인이거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이거나 다같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소중히 가꾸어야 할 인간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아닐가 생각되었다.

서둘러 산을 내려 곡지바닥에 이른 나는 어디 갔다올 때면 늘 그러하듯 마을쪽을 바라보며 우리집 굴뚝부터 살폈다.

아니나다를가 개울녘에 치우쳐 있는 우리집 굴뚝이 다른 집들 지붕너머로 바라보였다.

이 강대목굴뚝은 프락뜨로운전수를 하는 친구가 두해전에 새집들이기념으로 찍어다 세워준것인데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이 걸작이였다.

《형님처럼 만날 출장을 다니구서야 언제 불장을 보겠소. 불이 잘 들게 굴뚝을 높이 세웠으니 울겨울엔 구들을 뜨끈히 달구어 놓으시오. 숲에서 골라 낸 가문비나무처럼 미끈한 아들 삼태자를 보란말이우다.》

친구의 말마따나 나보다 세살이나 아래인 사람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제법 혼시를 하는것을 보면 부러워 나면서 나도 언제 자식을 안아 볼가, 언제면 아버지란 말을 듣게 될가 하고 은근히 자식생각을 해오느터였다.

그런데 안해의 몸이 그전같지 않다니 바라던것이 멀지 않은것 같았다.

우리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다. 작업소가내리용반에서 일하는 안해가 집에 들어 온 모양이였다. 나는 성급히 배낭을 추슬렀다. 등에 진 배낭에서 《달가닥》하고 사기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나의 심정을 야릇하니 흔들어 놓았다.

출장용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니 인형아기를 만들어 경대앞에 세워놓던 안해생각이 났다. 이것이 집안의 장식만을 위해서이겠는가.

나는 뭔가 수집여하며 인형아기와 이야기를 하던 안해의 음조에서 이제 태여날 자식을 그리는 녀성의 야릇한 심정을 읽을수 있었다.

하다면 아버지가 될 나로서 무엇을 아끼랴. 그래서 이 상점 저 상점 뛰어다니며 갖가지 완구들을 구해서 배낭에 채웠던것이다.

나는 굴뚝을 본 다음 어떻게 집까지 달려왔는지 모른다.

집 앞마당에 이르니 문득 안해와 룡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동해났다. 나는 배낭과 가방을 마루에 놓고 살금살금 발뒤축을 들어 가며 부엌문앞으로 다가가 푹푹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안에서 울려 나올 안해의 목



소리를 초조히 기다렸다.

안에서 반응이 없었다.

나는 손등으로 좀더 힘있게 문을 두드리고 나서  
어성을 바꾸어 위엄있게 말했다.

《주인님 계십니까?》

《...》

여전히 응대가 없었다. 뭔가 허전한 생각이 가슴속으로 솔곳이 흘러 들었다.

나는 마음이 급해서 부엌문을 벌컥 열었다. 그리고 서둘러 부엌과 집안을 둘러 보았다. 허나 안해가 없었다. 가마만이 뚜껑껍도리로 흰 김을 물씬물씬 내뿜으며 기세 좋게 끓고 있었다.

이때 밖에서 집으로 다가오는 발자욱소리가 났다. 아마도 내가 온것을 알고 안해가 급히 달려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어쩔가 생각하다 급히 방으로 올라 갔다. 그리고 벌렁 누워 자는척 눈을 감아 버렸다.

부엌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제 안해의 반가는 목소리가 울릴것이다.

나는 능청을 부리느라 드렁드렁 헛코를 끌기 시작했다.

《어허 이 사람, 문턱을 넘어 서자마자 잠들었나?》

아뿔사, 목소리의 입자는 안해가 아니라 제선아바이였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와닥닥 일어나 어줍게 인사를 하며 제선아바이가 토방에서 들고 들어 온 배낭과 가방을 받았다.

제선아바이는 히무룩이 웃어 넘겼다. 그도 역시 남자인것만큼 안해와 통질을 하려던 내 마음을 리해해 주었다.

《너자들 짐작이란 신통하다니까. 입자 처의 말이 자네가 오늘래일 들어 설것 같다더니...나도 사항샘골나무모발에 갔다가 좀전에 내려와 입자네집 아궁에 불을 지켰네.》

나는 얼떨떨해 졌다. 그러니 아궁에 불을 지핀것은 안해가 아니라 제선아바이란 말인가.

나는 의혹이 실린 눈으로 아바이를 바라보았다. 아바이는 나의 눈길에서 무슨 감촉을 받았던지 흥흥 코소리를 툇구고 나서 입을 열었다.

《진작 말한다는게 이젠 정신을 홀리고 다닌다니까. 입자 처가 곰골 이깔림지에 올라가 있네.》

《예? 곰골 이깔림지예요?》

나는 의문이 실린 눈으로 아바이를 바라보았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심어 품들여 가꾸어오는 곰골이깔림지는 애국주의교양에 대한 직관물처럼 귀중히 여겨오는 림지였다.

《입자가 출장떠난 다음에 새 칠길건설장에 보낼 침목감이 1천㎥이나 추가계획으로 떨어 졌다네.》

《총국에서 그 소릴 들었습니다.》

《그걸 하나작업반이 다 안겠다고 나섰다네. 이왕 새 칠길건설장에 침목감을 보낼바엔 전쟁때 심어 림산사람들이 품들여 가꾸어 오는 이깔나무를 찍어보내자고 지원자들까지 올라가 생산준비를 하고있다네. 입자처도 그래서 곰골이깔림지에 올라가 있다네.》

나는 안해생각과 함께 겹쳐든 침목문제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었다.

침목감을 꼭 이깔나무로 찍어보내야 한다는법은 없거니와 년간계획이 긴장한 때에 작업소의 추가계획을 한개 작업반이 다 안았다니 계획일군으로서 마음을 쓰지 않을수 없었다.

《작업소에선 침목계획을 작업반별로 분할하려고 계획했던 모양일세. 그렇게 되면 이깔침목을 다 보장할수 없게 된다고 하면서 하나작업반이 그 계획을 다 안겠다고 나섰다더구만.》

나는 계획문제도 그렇고 안해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제선아바이는 내 얼굴에 비껴든 실망의 그림자를 보았던지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입자처더러 그만두라고 그만큼 일렸는데도... 작업소에서도 입자가 출장중이니 집이 빈다고 말렸다는만. 그런데도 입자처가 부등부등 산지로 올라 갔다네.》

제선아바이의 말은 어떻든지간에 내가 며칠사이에 돌아올것 같다고 하면서 집을 동네에 맡겨놓고 산지에 올라가 있는 안해의 처사가 맞갖지 않게 생각되었다.

산관에 생소한 그가 왜 분수없이 나섰는지 모를 일이었다. 안해의 마음이 이런줄도 모르고 한시가 새로와 산관길을 타고 달려 온것을 생각하면 허전하기 그지없었다.

《가만 좀 앉아 있게.》

제선아바이는 내가 안해때문에 쓸쓸해 한다고 생각했던지 움쭉 일어나 옷방으로 가더니 경대에서 빨간 머리수건을 꺼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것이였다. 그 수건은 내가 안해에게 약혼기념으로 준것이였다.

제선아바이는 험험 기침을 하며 장대를 들고 굴뚝쪽으로 가는것이였다.

나는 무슨 뚱판지 같은 놀음인지 알수 없었다.

《신호를 보냈네.》

집으로 들어오며 아바이가 흡족해서 하는 말이였다.

《신호?》

아이들 장난같은 놀음에 의혹이 더 커졌다.

《입자처의 말이 이깔림지등판에서 입자네집 굴뚝이 보이더라면서 입자가 돌아 오면 굴뚝웃쪽에 머리수건을 매달라고 했네. 그리구 입자가 빈 집에 돌아오면 썰렁하지 않게 저녁마다 불을 한 아궁씩 넣어달라고 부탁했네.》

아바이는 은근히 내 동정을 살피더니 늙은이다

운 어조로 떠엄떠엄 말을 이었다.

《살아 보면 정으로 사는게 인생이야. 입자 처가 굴뚝이 보이는곳을 찾자고 산을 헤맸겠으니 수고인들 오죽했겠나. 내가 일을 할 때엔 우리 집 로친도 장밤 아궁에 불을 때놓고 나를 기다리곤 했다네. 너자들 마음이란 이런거라네. 그 마음을 잊지 말구 살라구.》

이런 아바이앞에서 내 어찌 안해를 탓할수 있으랴.

나는 하는수없이 저녁을 지어 먹고 나서 팔배개를 하고 누웠다.

무겁게 지고온 배낭이며 가방을 보니 서운한 생각이 구름처럼 몰려 들었다.

안해가 있었더라면 기쁨에 넘쳐 배낭안의 잡동사니들을 꺼내보았을것이고 객지에서 몸이 축갸다느니 옷이 어지러워 졌다느니 하며 정에 주렸던 나를 후덥게 해주었을것이다.

제선아바이도 그렇고 작업소에서도 말렸다는데 왜 약골인 너자가 산에 올라가는지 모를 일이었다.

자연히 생각은 안해를 처음 만났던 4년전 봄으로 돌아갔다.

×

그때 도조림사업소에서 림산사업소들에 종비나무모를 공급해준 일이 있었다.

이 종비나무는 도조림사업소에서 새로 육종해낸 성장률이 빠르고 목질이 좋은 조속종이어서 림산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

나는 그 나무모를 받으려 도조림사업소로 갔다.

그러나 나무모의 수분보장을 위해 받으려온 차례로 양묘장에서 떠주는 바람에 하루이를 기다려야 했다.

나는 새 나무모에 대한 관심도 컸거니와 흑시일이 잘되면 도와준덕에 먼저 받아가는 행운이 차례지지 않을가 하여 양묘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마침 고랑옆에 쓰다놓은 호미가 있었다.

나는 그 호미를 들고 나무모를 뽑기 시작했다.

야들야들한 어린 나무모들이 손에 닿을 때면 유별나게 마음이 즐거웠다.

내가 한참 나무모를 뜨고 있을 때 웬 처녀가 돌연히 앞을 막아 나섰다.

《누구예요?》

한마디 야멸찬 소리를 질러 놓고 가슴을 활짝거리며 서 있는 처녀의 눈길은 나의 얼굴에 구멍이라도 뚫을듯 쫓아왔다.

처녀는 무거운 배낭을 지고있었는데 새빨간게 달아오른 얼굴에 땀이 화락하니 내배어있었다.

처녀는 황황히 배낭을 벗어놓더니 내가 뽑아나온 고랑을 타고나가며 나무모들을 살펴보는것이였다. 그제야 나는 이 처녀가 이 나무모밭의 주인이라는것을 직감하며 어찌지 못하고 서있었다.

《어떻게 키운 나무모라고 이렇게 뿌리가 상하게...》

울상이 된 처녀의 손에 몇대의 나무모가 쥐여져있었다.

너무나도 불시에 일어난 일이어서 나는 어쩔바를 모르고 서있었다. 조금만 건드리면 눈물의 동이 터질것같이 울상이 된것을 보면 남자의 그 어떤 위세나 사과의 말 같은것은 통할것 같지 않았다. 참 일이 맹랑하게 된셈이였다.

《미안하오. 잘못했소. 큰 나무만 다루던 손이다 보니 조심하느라 했는데도 그만...》

이렇게 중언부언 사과를 하며 그 자리를 피할 때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모른다.

그날저녁 합숙으로 돌아 온 나는 그 처녀가 나무모밖에 모르는 김순금이라는 처녀라는것과 나무모를 공급할 때마다 수송도중 뿌리가 마를가봐 산에 가서 물이끼를 뜬어다 싸서 보낸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나는 숲에 사는 사람으로서 나무모를 가꾸는 사업이 숲을 가꾸는 첫 사업이고 또 그 일이 얼마나 품이 많이 드는 일인지를 모르는바 아니였으나 그 처녀앞에 사과와 말 한마디 변변히 못하고 피해온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마음 금할길 없었다.

그 이튿날은 내가 나무모를 받을 차례여서 일찌기 양묘장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 처녀가 벌써 나와 내가 가지고 갈 나무모뿌리를 물이끼로 감싸서 포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어찌 이 처녀는 나무모를 포장할 물이끼를 뜬으려 산에 갔다왔던것이였다.

나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 났다. 인간이란 고상한 감정앞에서 어찌는수없이 숭고해 지기마련인것 같았다.

《수고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인사를 했다.

《벌써 나오셨군요.》

처녀 역시 상냥하게 인사를 받았다.

처녀의 유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비로소 용기가 생겨 어제잘못을 빌고 싶었다.

《어제 미안하게 됐습니다. 한생을 숲과 같이할 림산사람인데도 어쩐지 어린 나무모가 손에 설어서...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어젠 제가 너무한것 같아요. 그제 나무모만 생각하고 밀리서 오신 손님이 도와 주는것도 모르고 아무말이나 실례되게 막 한것 같아요.》

처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제 돌아 가면 도양묘장에 별난 처녀가 있다고 홍보겠지요. 어린 나무만 다루어서 생각도 짧더라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고 했다가도 나무모가 상하는걸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랑해해주세요.》

처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진정에 넘쳤던지 나는

귀로 듣는다고보다 온몸으로 감수하고 있었다.

이런 처녀를 고깝게 여긴다면 결국 내가 시시한 남자일 것이었다.

《아니요. 내가 잘못했소. 그대신 돌아가 나무모들을 잘 키울것을 약속하오.》

나는 비로소 처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둥그스름한 보기 좋은 얼굴, 시원히 들린 목, 단정한 옷차림, 어딜 보나 매우 단아한 처녀였다.

매우 인상 깊은것은 류달리 검은 눈이었다. 순간순간 얼굴에 삶의 희열을 분무하는듯 한 그의 눈은 끝 없는 열정의 저수지처럼 깊고 싱싱해 보였다.

《동문 정말 훌륭한 양묘공이요. 잊지 않겠소.》

나는 진정으로부터 이런 말을 했다.

처녀는 물소리를 잡더니 포장한 나무뿌리에 물을 뿌려 주는 것이었다.

《가서 잘들 크저라. 앓지들 말구.》

처녀는 말해 놓고 보니 자기가 너무 철부지처럼 놀았다고 생각되었던지 부끄럼을 타며 변명 비슷한 어조로 말했다.

《매일 기차에 실려 나가는 통나무를 보면서 조국의 숲이 비지 않을가 근심이 되어 양묘장을 뜨지 못해요. 요것들이 그걸 알거나 할가요.》

처녀의 눈가에 피어 난 미소가 삽시에 얼굴을 곱게 물들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름답고 순결한 녀자인가. 숲의 아침처럼 청신하고 숲의 봄처럼 아름다운 이 처녀앞에서 자신이 인간으로 한결음 더 성숙해짐을 느꼈다.

나는 나무모를 받아 가지고 작업소로 돌아 왔다. 그러나 나무모와 속삭이던 처녀의 목소리가 귀뿌리에 록음되며 있는듯 자꾸 울리면서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단 이틀동안에 받은 인상이 30년나마 살아 온 나의 심혼을 어찌나 강하게 흔들어 놓았던지 이 처녀한테로 끌리는 마음을 돌려 세울수 없었다.

나는 처녀한테 편지를 썼다.

마음같아서는 나의 심장의 첫 고백을 쏟아 붓고 싶었으나 정작 펜을 들면 손이 굳어 지군 했다.

한번, 두번, 나는 열성스레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회답이 오기를 매일 기다렸다. 그러나 소식 이 없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남자의 자존심을 무기로 삼아 네번째 다섯번째 편지를 띄웠다.

그때 첫 회답을 받았던 기쁨이 아직도 가슴속에 고이 간직되어 안해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고 온 편지가 사랑의 전조로 되어 인연이 깊어 지게 되었고 결국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체질이 약해요. 잘 먹고 받들려 자랐는데도 약골이에요. 나같은 약골이 숲에 가서 건디여 내겠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넘려 마오. 든든한 내 팔다리, 내 육체가 순금동무를 대신할테니 언제든지 명령만 내려주오. 내 순금의 충실한 심부름군이 되겠소.》

나는 그와 한 약속을 언제든지 지킬 것이다...

그런데 그 약골이 집을 비워 놓고 산판에 올라가 있으니 어떻게 마음 쓰지 않겠는가.

×

어느새 잠들었던 나는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떴다.

《오셨군요.》

안해가 방금 부엌문을 열고 들어 서며 기쁨을 금치 못했다.

《수고했소. 밤이 깊었는데 어쩔려구...》

나는 안해의 손을 잡아 끌며 어디 측가지 않으나 그의 얼굴부터 살폈다.

《일을 끝마치고 혹시나 해서 등판에 올라가 보니 우리 집 굴뚝에 수건이 걸려 있더군요. 그래서 주먹을 부르쥐고 내리뛰었지요 뭐.》

안해의 눈동자에서는 행복의 불꽃이 반짝거렸다.

하지만 나는 웃는 안해의 얼굴에 피곤이 가문비나무껍질처럼 두텁게 깔려 있는것을 보았다.

내가 있었더라면 안해를 험한 산판에 올려 보내어 수고를 끼치지 않았을 것이었다.

《축값구만. 그만둘걸 그랬소. 제선아바이랑 작업소에서도 말렸다는데...데려다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오.》

나는 이렇게 위로해 주며 안해의 손바닥을 쓸어보았다. 거칠어진데가 몇군데나 있었다.

《나라의 새 철길을 건설하는데 쓰일 침묵감이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라도 보태고 싶었어요.》

마디마디 정답게 울리는 안해의 목소리가 집안을 살뜰히 감싸주며 가정의 화기를 돋구었다.

안해가 고마웠다. 숲을 리해해 주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몰랐다. 그래서 안해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고 싶었다.

《숲에서 하루이를 살것도 아닌데 너무 무리하지 마오. 자, 배낭에 뭐가 들어 있는가 보오.》

나는 안해앞으로 배낭을 밀어 놓았다.

안해는 배낭에서 완구들을 꺼내 놓으며 여간 반가와 하지 않았다.

마치 그것들이 살아 있는 꼬마짐승이기라도 한듯 그 한개한개를 경대앞이며 책상우에 세워 놓으며 그것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살자. 다람쥐 너는 계속 우리 집으로 풍년수레를 끌어 오구 곰 너여기서 계속 떡방아를 찧구 토끼 너여기서 손풍금을 울리며 노래를 불러라.》

완구들을 바라보는 안해의 눈가에 행복에 취한

그옥한 빛이 넘쳐 있었다.

이런 안해를 보니 안해의 몸이 이전같지 않다던 제선아바이의 말이 생각났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들에게 필요한 놀이감을 놓고 저리도 기뻐하라. 하지만 들어 서자 바람에 그것을 물어 붙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행복을 가슴속에 묻어 두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었다.

그럴수록 안해를 산에 보낸것이 마음에 걸려 미안한 생각이 앞섰다.

《래일부터 내가 올라 갈테니 산판걸음을 그만 두오.》

나는 진심으로 권고했다.

안해의 눈가에는 행복의 미소가 한가득 어러 반짝이고 있었다...

아침에 잠을 깨니 안해가 보이지 않았다. 집안을 둘러 보니 내 베개맡에 글썽지가 놓여 있었다.

《이깎림지로 가요. 가마안에 아침밥이 있어요. 당신의 순금.》

나는 숲에 마음을 쏟고 있는 안해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의 건강이 걱정되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는 부랴부랴 아침밥을 차려 먹고 곰팡이깎림지로 올라 갔다.

숲에 주렸던 나는 밤낮을 이어 가며 생산준비를 다그쳐 첫 생산의 날을 보게 되었다.

아름차게 생각되었던 생산준비가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 생산준비속에 안해의 마음도 바쳐 저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명절날처럼 기쁘기만 했다.

그날 저녁 집에 내려온 나는 제선아바이를 집에 청했다.

《하나조업반장네 집에 먼저 들렀댔네. 술을 내놓더군. 작금해방전쟁때 이깎림지를 조성한 덕이라나. 한두 숲에 살면서 이런 재미, 저런 재미를 다 봐왔지만 제손으로 심은 이깎나무를 찍어 나라의 새 철길건설장에 보내게 된 재미보다 더 큰 재미는 없었네. 이런걸 인생의 락이라고 할걸세.》

제선아바이가 좋아하니 내 마음도 즐거웠다.

《임자 처가 나에게 뭐랬는지 아나? <아바이, 나라의 새 철길건설에 우리가 찍어 낸 침목을 보내주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다음에 전기기관차를 타도 마음이 한결 편할거예요.> 하, 이렇지 않겠나. 글썽 그 말에 눈물이 찔끔 나오더란 말일세.》

제선아바이는 이번 생산준비에 나의 안해가 큰 힘이 되었다느니, 게다가 수자에 밝은 계획부원까지 올라 갔으니 일이 빨리 끝났다는니 하며 우리 부부를 추어 올리다가 거나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처를 잘 만났다는니, 숲이 좋으니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뿐이라느니 하면서 어둑속으로 사라

졌다.

이깎림지개발이 끝나고 안해가 집으로 내려 온 데다가 침목생산이 제 궤도에 들어서 작업소적인 연간계획을 오늘래일하게 되자 사무실로 나가는 기본이 좋았거니와 저녁에 집으로 들어 오는 재미 또한 여간 아니었다.

기다려 주고 기다릴가봐 마음 쓰고 부부간의 정이란 이렇게 서로 살뜰히 위해 주는 마음이 아닐가 싶었다.

안해는 하루에도 몇번씩 완구들을 닦았다. 가만 보면 완구앞에 마주 앉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것 같았다. 어찌 생각해 보면 녀자들의 마음 세계엔 저런것도 있는가 싶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내가 밥상에 마주 앉아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안해가 내옆에 다가왔더니 무슨 말을 하려고 좀자르는것이였다.

《무슨 일이요.》

나는 남편다운 어조로 물었다.

《저... 나 래일부터 나무심으러 가겠어요.》

《뭐 나무 심으려?》

《울가울에 잣골막치기만 나무를 심으면 작업소 립지에 빈곳이 없게 된다고요.》

안해의 말을 들으니 잣골막치기 생각이 났다. 잣골막치기는 방금 벌목이 끝나다 보니 정리가 채 안되어 가을식수계획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청년동맹에서 돌격대를 무어 가지고 채벌한 지대정리를 끝내고 울가울에 나무심기를 하겠다고 결기해 나섰던것이다.

《나무심기가야 한해에 두번밖에 못하는데 울가울에 심지 않으면 채벌한 지대가 반년이나 비어 있을게 아니예요. 반년이 어디예요. 반년을 밀지 않아요. 제선아바이까지 나서서 숲을 가꾸는걸 보세요. 70로인이 자신당대에 무슨 덕을 보자고 그러겠어요. 조국의 숲에 나무 한대라도 보태자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안해의 마음이 고마웠다. 이런 마음 고운 안해를 또 험한 산판에 내놓아 수고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식수라는게 산에 배인 남자들도 힘들어 하는 일인데 당신 같은 약골이 건디여 내겠소. 청년동맹에서도 건장한 청년들을 뽑아 돌격대를 조직했다 말어요. 이번만은 내 말을 듣소.》

내 말을 듣는 안해의 눈가에 행복의 미소가 어러 있었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침상을 거두기 바쁘게 안해는 내가 신고 다니던 투박한 립산행장에 내 겨울모자까지 쓰고 나서는것이였다.

《잣골막치기가 어딘지 알기나 하오? 산에 펄펄 나는 산양들도 발톱을 세우고 다닌다는 곳이에요.》

《한번 가보겠어요. 그리고 잣골 앞산에 우리 양묘장에서 떠보낸 종비나무림지가 있다는데 고

것들이 찾아 오지 않는다고 날 얼마나 욕하겠어요.》

가만보니 물러 설 잡도리가 아니었다. 처녀때 배낭 하나를 지고도 땀을 뻘뻘 흘리던 녀자가 어디서 이런 힘이 생겼는지 모를 일이었다.

때마침 제선아바이가 나타나준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떠나보자구.》

마루에 걸터 앉으며 나의 안해에게 하는 말이였다. 케를 보니 나의 안해와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것 같았다.

제선아바이의 힘을 빌어 안해를 제지시켜 보려던 나의 생각은 뒤틀리고 말았다. 그런데다 제선아바이는 묻지 않는 말에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

《살아 보면 죽을 때까지 철이 든다는 말이 맞구만. 우리 장군님께서 나라의 숲을 가꾸자고 그처럼 마음 쓰시건만 여직 우리 마음이 모자랐거든. 하마트면 숲이 얼마나 욕할번했나. 대처에 살던 녀자만도 못하다구 말이야.》

제선아바이의 이 말에 나는 그만 코허리가 쪼그라들었다.

생각해보면 안해도 고맙고 또 제선아바이의 일도 여간 고맙지 않았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인 때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돌보셔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나. 그런데 온 나라를 산림조성사업으로 불러 주시었다네. 그때 심은 나무가 거목이 되어 조국건설에 쓰게 되었으니 이제 후대들이 오늘에 심은 나무를 베어 내게 될 때 또 경애하는 장군님의 국토건설업적을 이야기 하게 될걸세.》

앞산을 마주하고 앉아 점도록 숲을 바라보는 제선아바이의 눈가엔 그윽한 향수가 어려 있었다.

《아바이, 우리 집 사람을 좀 보십시오. 평지에서 죽안에 드는 나무모를 다루던 사람이 나무심기를 꽤 할것 같습니까?》

《하다마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힘들지 않다네. 부강조국의 밑천을 마련하는 일인데 여기에 빠지면 그게 숲에 사는 사람인가 말일세. 어서 떠나세.》

이래놓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안해는 제선아바이와 같이 식수림지로 떠나 갔다.

나는 안해를 두고 하루종일 생각해 보았다. 숲에 마음을 바치는 일은 누가 시켜서는 할수 없는 일이다. 하다면 숲을 생각하는 안해의 마음은 얼마나 가룩한것인가.

숲을 위하는 안해를 생각할 때 안해를 맞은 다음 내가 숲과 멀어 지는것 같아 겁이 났다.

그날 저녁이었다. 산에서 늦게 내려 온 안해앞에 죄를 지은것만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었다. 무슨 말로든지 안해를 따듯이 애무해 주

고 싶었다.

《순금인 내가 아니었다라면 읍에서 편만한 생활을 할수도 있었을텐데 데려다 수고만 끼치니 정말 미안하오. 우리 나라 로동법엔 녀자들의 중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래일부터는 내가 올라갈테니 제발 용감성을 내지 마오.》

나는 진정으로 말했다.

《고마와요. 그 마음을 다 알아요.》

안해의 눈가에서 갑자기 밥상밑으로 눈물이 툭툭떨어 떨어 졌다.

《제가 숲으로 오게 된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런 보람을 어디서 얻겠어요. 정말 고마와요.》

뜨거운 물기가 뽕얇게 어린 안해의 눈가에 행복에 겨운 미소가 피어 올랐다. 숲을 생각하는 안해의 마음은 내가 자기를 생각해 주는 인정보다 더 강한것 같았다.

이런것이 가정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녀자를 안해로 삼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찌기 산으로 떠날 차비를 했다. 물론 나무모를 담을 다래끼며 호미며 안해가 가지고 갈 행장을 갖추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하, 량주 한마음이라더니 내 그럴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나도 로친을 차고 나왔네.》

울바자락에서 제선아바이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아바이, 내 요즘 가정교양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로 우리 집사람의 행장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나는 통삼아 이렇게 말했다.

《그것 보라니. 보태 주고 위해 주며 사는게 부부의 정이라니까.》

제선아바이의 말은 늘 고무적이어서 더 존경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제선아바이며 마을사람들과 어울려 잣꿀막치기 식수림지를 향하여 떠났다.

점심감을 실은 트랙토르가 툭툭 거리며 앞서 달리는가 하면 붉은 기발이며 북통을 멘 가족들까지 나서고 보니 온 마을이 명절 분위기로 들끓었다. 하기가 숲에서 나무심는 날보다 더 의의 깊은 명절이 어디 있겠는가.

잣꿀어구에 들어 서면서 제선아바이는 마음이 흥그러워 질 때면 늘 그러하듯 흥흥 코소리를 토크며 활개를 저었다.

《임자 잣꿀유래를 모를테지.》

제선아바이는 숲 어디에 묻어 두었던 생각을 불러 오는지 푸른 윤이 흐르는 잣나무림을 바라보며 회억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젠 거반 저 세상으로 갔지만 저 잣나무숲을 보면 그들을 잇을수가 없네.》

제선아바이는 진말을 하려는듯 목을 추기고 나서 나의 안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전후시기였네. 방금 조국해방전쟁을 겪고 난 때인지라 나라에 목재 쓸 일이 좀 많았겠나. 온 나라가 숲에 대고 목재를 불렀다네. 그래서 그때 작업소에서는 이 잣골림지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 내라고 돌격대를 무어 벌목공들을 올려 보냈다네. 헌데 나무를 다 베고 내려 왔다는게 산에 여기저기 나무들이 서 있었다네. 성질이 옥하는 작업소장은 벌목공들을 불러 놓고 어쨌는지 아나? 일손이 더럽게 거칠어 졌다고 옥사발을 퍼부었다네. 하기가 나무 한대가 귀한 때에 산판 여기저기에 나무를 남겨 놓았으니 옥을 먹을만도 한일이었지. 그런데 그때 벌목공들이 뭐랬는지 아나?...》

제선아바이는 여기서 말허리를 끊고 입술을 추기더니 다시 말짓을 달았다.

《조국해방전쟁을 겪고 난 우리 아이들손에 사탕 한알 과자 한개 쥐여 주지 못하는걸 생각하면 차마 잣나무에 톱날을 댈수 없더라는거네. 그래서 림산아이들이 후에 잣이라도 푼푼히 따먹으라고 잣나무를 남겨 놓았다는것이였네. 벌목공들의 소행에 크게 감동된 작업소장은 눈물을 툴툴툴 떨구며 자기 잘못을 빌었다질 않나. 그후 온 마을이 달라 붙어 저렇게 잣나무동산을 꾸려 놓아 이제는 한해에 수십톤의 잣을 따들이게 된거라네.》

《그랬됐구만요.》

나의 안해는 탄복해 마지 않으며 진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니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때에 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숲을 가꾼 그들의 진정을 잊지 못해 그러는거네. 이제 두고 보게. 후날에 가서 오늘에 심은 잣골막치기 나무를 베어내게 될 때 온 나라 인민을 나라의 국토건설에도 불러 준 우리 당의 은정을 두고 이야기꽃을 피울걸세. 그리구 읍에서 시집 온 여사 여사한 여자까지 올라 가 심어 가꾼 나무라고 말일세.》

잣골이야기는 나를 크게 감동시켰다. 나도 잣골유래를 모르는바 아니였으나 오늘의 나무심기와 결부하여 생각하니 한편의 잘된 소설처럼 가슴을 울려 주었다.

산에 도착한 나의 안해는 실념을 앓고 서둘러 나무모다래끼를 차더니 나무 심을 구멍이를 빨리 파라고 나를 독촉했다.

어쩐지 나도 힘든줄을 모르고 나무 심을 구멍이를 파기 시작했다. 일이 이처럼 즐겁기는 처음이었다.

내가 파놓은 구멍이에 젖은 부식토를 깔고 어린 나무모를 꼭꼭 묻어 주는 안해의 모습을 보니 어린 아기의 잠자리를 펴주는 다심한 어머니를

보는듯 했다.

나는 안해한테서 눈길을 땔수 없었다. 처녀때 이끼배낭 한개도 힘들어 하던 녀자가 어디서 저런 힘이 생겼는지 모를 일이었다.

어린 나무모를 꼭꼭 묻어 가는 안해를 가만 보면 아름답리나무사이에 끼여 있는 애어린 사시나무같이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땀이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은 방금 봄물이 올라 애일을 피우고 있는 야들야들한 봇나무잎을 방불케 하기도 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 보았다. 이깎나무처럼 혈기 왕성한 남자들에 비해 보면 나의 안해는 산버들처럼 연약해 보이는 녀성이건만 그사이 어떻게 광술처럼 강해 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웃으며 감당해 내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이것을 한 녀성이 가진 육체적힘만이 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점심시간이 되자 제선아바이가 지어 놓은 막이라고 해서 《제선막》이라고 불러 오는 막앞 공지에 점심식사들을 차려 놓았다.

점심을 차려 놓은 나의 안해는 밥을 먹을 생각없이 심어 놓은 어린 나무들을 바라보는것이였다.

《식사를 하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것 같아요. 저 애기나무들이 커서 재목이 될 그날을 생각하니 기쁘기만 해요. 겨울에 얼지 말고 뿌리를 내려야겠는데...》

안해는 행복하기도 하고 근심스럽기도 한 표정을 지으며 심어 놓은 어린 나무들을 바라보는것이였다.

나는 그만 가슴이 그들먹해 올라 밥술을 들수 없었다. 그리고 나무의 신체를 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무가 어떻게 마련되는것인가에 대하여 말해 주고 싶었다....

나무심기가 끝난 저녁 산마루에서 오락회가 벌어졌다.

기쁘고 상쾌하고 즐거운것이 만조처럼 차들며 나의 마음을 못 견디게 띄워 놓았다.

홍겨운 노래타인지 아니면 얼굴을 콧코 찌르는듯 한 숲 특유의 대기타인지 나의 마음은 즐겁기만 했다. 누군가 읊는 즉흥시가 울려 왔다.

숲이여

네 모습 푸름이 어디서 오는것인가

네 싱싱한 자태 어디서 시작되는것인가

네 푸름을 더해 주는 마음들이

한생 너를 놓지 못하고 있기에

네 모습 푸른줄 알아 다오

그래서 네 자태 그리도 싱싱한줄 알아 다오

숲이여

로동당시대를 닮아 푸르싱싱한 조국의 숲이

여

너를 위해 기울이는 당의 심혈  
너를 위해 바치는 인민의 마음  
네 설레임에 실어 다오  
네 설레임이 전해 다오  
...

한해겨울 비여 있을번한 산이 새옷을 입었으니  
작업소에 또 하나의 후계림이 태어난것이 아닌  
가. 그것이 기뻐 마을사람들은 식수림지를 떠나  
지 못하며 기쁜 마음 노래에 실는것이 아닌가.  
...

나는 집으로 향했다. 걸음걸음 발밑에서 복소  
리가 울리는것 같았다.

기다렸다가 안해와 같이 내려 가고 싶은 마음  
없지 않았으나 돌격대는 자기 조직대로 총화가  
있을것이어서 먼저 내려 가 안해의 저녁상을 차  
려 주고 싶었다.

산기슭 활엽수림에 나가 온종일 배를 채운 산  
새들이 잠자리를 찾아 숲으로 날아 들며 즐거운  
목소리를 쏟아 놓았다.

산짐승들이 제 새끼를 불러 들이는 소리가 숲  
의 음향에 화음을 맞추는가 싶었다.

숲은 얼마나 많은 생활을 품고 있는것인가!  
개울물을 타고 내려 오며 잡은 산천어떼미를  
들고 집으로 들어 선 나는 줄에 걸어 놓았던 안  
해의 앞치마를 벗겨 두르고 저녁차비를 시작했  
다.

안해를 위해 잡아 온 산천어로 튀기도 만들고  
농마지짐도 지지고 안해가 내 밥상에 푹푹 받쳐  
주던 참나무버섯을 넣은 감자곱돌장도 잊지 않았  
다. 다행히도 안해가 도착하기전에 밥이 다 되었  
다.

나는 밥을 폈다. 안해가 늘 내 밥을 먼저 푸듯  
이 나는 안해의 밥을 먼저 퍼서 저녁상을 차려  
놓고 안해를 기다렸다.

저녁늦게 집으로 돌아 온 안해의 얼굴은 밤에  
편 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종비나무가 수태 컸더군요. 고것들이 글썽 나  
를 알아 보는지 파랗게 웃지 않겠어요.》

그러니 안해는 내려 오던 길에 종비나무숲에  
들려온것이였다.

《처녀땀 만날 겨울앞에 마주 앉아 제 얼굴치장  
제 옷치장을 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제 일터, 제  
고장 꾸릴 생각을 못했거든요. 가정을 이루고  
보니 처녀때 너무 철부지였다는것이 알려요. 푸  
른 재부를 늘어 가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  
겠어요. 그러니 나도 이젠 어른이 되는가부지요.》

나는 행복에 겨워 웃는 안해의 두손을 꼭 감싸  
쥐었다. 이런 안해를 잠시나마 오해하였던것이  
부끄러워 안해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안해의 손을 끌어 밥상앞에 앉히

고 손에 수저를 쥐여 주었다....

나는 이날 저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그날밤이였다. 나는 결혼후 이날 밤처럼 온  
이 행복에 취하여 잠들어 보기는 처음이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지... 나는 잠결에 뭔가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것이 나를  
애무해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눈을 떴다. 이  
불깃을 푹푹 여며 주던 안해가 내 얼굴을 바라보  
고 있었다.

나는 안해의 두어깨를 꼭 끌어 안았다. 말없이  
우리 두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전 행복해요.》

안해는 겨우 이 한마디를 떼여 놓고는 나의 가  
슴에 얼굴을 묻었다.

《난 이제 녀달이 지나면... 어머니가 될거예  
요.》

《뭐?!》

(그럼 나도 아버지가 된단 말인가!) 나는 무어  
라고 말할수 없이 가슴이 벅차고 빠근하기만 했  
다. 이런 때 안해앞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마음  
이 허둥거리기만 했다.

안해는 달뜬 목소리를 누르면서 마디마디 조용  
히 속삭였다.

《이봐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조국의 첫 모습을 익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자식앞에 어머니는 조국의 한부분이라고  
말할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전 아직 그런 녀성  
이 못돼요. 벌써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면 기쁘  
기도 하고 막 겁이 나기도 해요.》

《아니요. 순금인 훌륭한 어머니가 될거요.》

나는 눈부리가 찡 저려 나면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안해가 숲에 것처럼 극성을 쏟는것은 이래서  
였구나. 그럼 나는? ... 여직 아버지가 되기를 바  
라온 나는?...)

나는 한가슴에 받아 안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걱정을 안고 안해의 말을 음미해 보았다.

내가 누구한테서 조국의 첫 언어를 배웠던가?  
내가 누구의 품에서 이 땅을 향해 첫 걸음을 떼  
였던가. 그것은 어머니였고 어머니품이였다.

어머니는 나에게 우리 말을 처음으로 배워 준  
첫 선생이였고 숲을 익혀 준 생활의 첫 스승이기  
도 했다.

안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후에 자식이 나에게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뭘 했나요 하고 물으면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것처럼 마음 쓰시는 숲에  
나무 한대라도 보태였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생의 희열에 넘쳐 빛나는 안해의 눈가에 눈물  
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내 나이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리성을 가  
지고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가 된다는것이 얼마

나 성스러운 일인가.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도 이름난 영웅도 그뒤에는 한생의 마음을 깔아 자식을 떠받들어 주는 어머니가 있는것이 아닌가.

어머니를 자연에 비길진대 자식을 곳곳이 떠받들어 주는 대지이고 걸음걸음 사랑을 부어 젖품에서부터 나라의 공민으로 키워 주는 봄이고 여름이며 자식의 앞길에 한생의 마음을 깔아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가을이라고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봄날이었다. 봄시위로 하여 골짜기에는 갑자기 홍수가 났다. 산에 올라갔던 나는 떠내려 오는 통나무들을 건지느라고 물참봉이 되었다. 그런데 숨이 턱에 닿아 달려온 작업소부원이 나를 다급히 불렀다.

《계획부원동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의 아주머니가...》

《우리 집 사람이 어쩔다는겁니까?》

나는 물속에서 나오며 다급히 물었다.

《낫참에 병원에서 해산했대요. 막치기에서 프락포르가 기다려요. 빨리...》

나는 허둥지둥 《제선막》으로 달려 갔다. 통나무를 실은 프락포르가 발동을 건채 서 있는데 그 옆에서 누군가 나를 손짓으로 부르고 있었다.

비물에 미역을 감고 난 청신한 숲과 억만구슬을 꿰단듯 빛나는 푸른 잎새들 그리고 눈무지와도 같아 보이는 구름과 조화를 이룬 거인 같아 보였다.

그가 바로 제선아바이임을 확인했을 때 나는 뭔가 거대하고 숭고한 감정에 휩싸여 소리쳤다.

《제선아바이-》

제선아바이도 나를 알아 보고는 한달음에 마주 달려 왔다.

《여보게!》

옛말에 나오는 신신같아보이는 제선아바이의 목소리가 나의 가슴을 울리며 파다히 퍼져 나갔다.

《여보게, 순산일세. 순산이야.》

《뭐라구요?!》

얼어 질듯 달려 간 나는 제선아바이의 말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말 나가는데로 웨쳤다.

《임잔 정말 너자복을 타고 났어. 임자 처가 딸을 낳았네. 우리 대청마울에 임자 처 같은 녀자가 또 한명 늘어 났단 말일세. 자 어서 가세.》

벽찬 감정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 나의 온몸을 화독처럼 달구어 놓았다. 나는 제선아바이를 따라 어떻게 병원까지 달려 왔는지 몰랐다.

《여보게 왜 서 있나. 애기아버지가 앞서야지. 자 어서... 우리 로친네가 들려 준 산꿀이네.》

나는 숲사람들의 후더운 인정을 뜨겁게 느끼며

병원문을 들어 섰다.

《수고했소. ... 딸을 낳아 주어 고맙소.》

《저 애의 이름을...》

나는 오래전부터 새겨 두었던 이름을 말했다.

《림향이 어떻소. 당신처럼 숲의 향기가 되라고...》

순간 안해의 눈가에서 행복의 섬광이 번쩍 하더니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아가야, 네 이름이 림향이다. 서림향.》

안해는 이 세상 가장 진귀한 보물을 안듯 아기를 품에 꼭 껴안았다.

이 순간의 감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단 말인가. 이름할수 없는 거대하고 벽찬것이 뜨거운 시내물처럼 가슴속으로 흘러 들었다.

어머니! 얼마나 훌륭하고 순결하고 숭고한 이름인가! 그 고상한 이름을 가지자고 안해가 숲에 바쳐 온 진정을 생각할 때 나의 가슴은 금방 터질듯 빠근하기만 했다.

뒤따라 들어 온 제선아바이가 벌렁벌렁 굵은 가마뚜껑을 열더니 구수한 냄새가 장기를 흔드는 잣죽을 퍼놓으며 어서 먹으라고 권했다.

이런 때 방으로 쏠아 든 진료소장이며 젊은 패거리들이 어서 잣죽으로 몸 보신을 하라고 야단들이었다.

나는 솟구쳐 오르는 벽찬 감정을 주체할 길 없어 방을 나섰다.

씨원하고 향긋한 숲향기가 분무하듯 물씬물씬 풍겨 왔다.

너성과 어머니! 이 두 단어속에 얼마나 큰뜻이 담겨져 있는가.

나는 몽클해 오는 가슴을 불안고 생각해 보았다. 바라건대 자식을 낳은 어머니들과 어머니가 될 녀성들이여, 자식앞에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자신을 어떻게 바쳤는가를 그리고 자식앞에 어머니라 불리우기 위해 이 땅에 무엇을 남겼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언제나 자신을 조국의 한부분, 조국의 모습으로 익힐수 있도록 마음 다해 살게 되리라.

어찌 어머니들뿐이라. 자식을 둔 아버지들이여, 그리고 장차 아버지가 될 청년들이여, 자식들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바치는 삶에서 행복을 찾으시라.

나는 할아버지들이 가꿔 왔고 아버지들이 가꿔 왔고 우리가 가꿔 가고 또 우리 자식들이 가꿔 갈 정든 숲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나=안해+자식+숲》이라고.

무한대한 생활을 안은 숲은 자기를 삶의 한부분으로 생각하는 나의 안해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듯 설레이며 감미로운 향기를 쏠아 놓고 있었다.



## 추억에 남는 한생

최치성

그가 누구든 걸어 온 자기 한생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주관으로 내릴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또한 한생을 다 살아 보기도전에 중도에서 결론할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명백히 그가 말년에 이르러 사람들의 추억속에 어떤 모습으로 새겨 지는가에 따라 정해 지는법이다.

생활속에는 임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억속에 찍혀 지는 실례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한두명도 아닌 못사람들의 추억속에 꼭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다. 참되고 깨끗한 삶이란 결코 쉽게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땀과 열정, 진지하고도 피타는 노력이 숨배여 있으며 그러한 한생만이 사람들의 기억속에 진하게 자리 잡고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것이다.

조국의 북변 랑림산줄기의 깊숙한 골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고이 깃들여 있으니 그 추억의 주인공이 바로 강제청년발전소의 이전 초급당비서 양운식이다.

내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발전소 부지배인인 전영옥이었다.

잔뼈가 채 여물기도전부터 오십이 멀지 않은 오늘까지 발전소와 함께 살아 오는 그도 비교적 오랜 세대라고 말할수 있었다.

전 초급당비서 양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나의 청을 받은 전영옥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한참만에야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마 처음 임명되어 왔을 때의 양아바이의 심정은 매우 복잡했을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든것이 말입니다. 현대적인 살림집들이나 저 번듯한 사무실청사나 보조건물들이 그때는 단 한채도 없었으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주위를 둘러 보니 산골마을 같지 않게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꾸려진 전력공업지구가 새삼스러운 모습으로 시야에 안겨 들었다.

로동자구 중심에 4층으로 번듯하게 일떠선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과 크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한 3층의 행정청사, 그 량옆으로 조화롭게 들어선 보조건물들이며 산릉선을 따라 아늑하게 들어앉은 살림집들...

지금은 나무랄데 없는 전력공업지구로서 발전소를 찾아 오셨던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상의 기

쁨과 만족을 드릴수 있었지만 양운식당비서가 도착한 스물여섯해전의 그날에는 참으로 할 일이 많은 고장이였다. 전부 단층건물들에 심지어는 건설당시의 목조건물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산골에서 발전소사람들은 살고 있었다.

앞에도 산, 뒤를 돌아 보아도 산, 들리느니 바람에 앞뒤 수림이 좌좌 흔들리는 소리와 골짜기를 씻어 내리는 소연한 물소리뿐이었다.

일부 젊은층들의 심리는 여기를 벗어 나 읍이나 도소재지와 같이 변화한 곳을 지향하고 있었다. 중년기의 덩치큰 사람들속에서조차 이제는 좀 널찍한 곳에 나가서 남들처럼 창조의 보람이 현물화되어 나타나는, 그래서 손맛, 눈맛도 함께 느껴 볼수 있는 그런 생산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은연중에나마 내비치곤 하였다. 한평생 심심산골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 볼수도 없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보면 심분 리해할수도 있는 감정이였다.

바로 그런 때 당비서로 임명되어 도착한 양운식당비서의 심정은 매우 복잡하였다.

할 일은 많고많은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하는가.

...대체로 그러한것처럼 새 당비서를 맞이한 발전소의 각 부서들과 직장들에는 가벼운 긴장이 떠돌고 있었다. 어느 한 도급기관에서 당사업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젊은 새 당비서가 결패가 있고 내밀성이 강하다는데 이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것인가 하는 궁금중이라 할가.

조업후 여러해동안 한건의 설비사고도 없이 정상생산을 보장하였다지만 생산문화와 생활문화의 측면에서는 불비한것이 많고 또 전망적으로 보아도 손이 가야 할곳이 많았다.

일군들은 제 나름대로의 추측에 근거하여 거기에 상응한 준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시각에 양운식초급당비서는 알뜰한 서류 하나를 손에 들고 행정청사옆의 공지를 거닐고 있었다. 그러다가는 공지 한쪽편으로 치우쳐 들어앉은 아담한 2층건물을 한참씩 바라보곤 한다.

불그레한 기와를 가꾼가흔히 없고 회벽도 유난히 눈 부신 그래서 이 골안에서 제일 깨끗하고 덩치가 큰 건물이였다.

그는 손에 쥐였던 서류를 다시금 한장두장 번져나갔다.

주체53(1964)년 4월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계청년발전소 조업식에 몸소 참석하시였으며 2호발전기의 시동스위치를 넣어 주신 역사적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건이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발전소에 주신 가르치심도 기록되어 있었다.

벌써 세번째 서류를 읽어 보고 난 양운식은 눈을 꼭 감았다.

임명 받는 날 저녁에 도인민위원회에서 일하는 가까운 친구가 조언 삼아 들려 주던 이야기가 다시금 귀전을 쟁쟁히 울려 주었다.

《그곳은 생산은 괜찮은 반면에 문화사업의 측면에서는 매우 뒤떨어 져 있다네. 다충건물이라곤 이전 당비서때 크게 마음 먹고 지은 탁아소뿐이지. 그외엔 거의나 자그마한 목조건물에 가설 건물들뿐이랴오.》

공업부서에서 일하는것으로 하여 발전소에도 몇차례 나가본적이 있는 사람이였다. 그때 양운식은 일종의 두려움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물었다.

《그러니까 건설을 많이 해야 한다는거구만.》

《그래, 자네 성미에 거기 가면 아마 한결반은 건설기업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거네. 미리 건설공부를 해두는것도 나쁘지 않을거네.》

양운식은 더 대꾸가 없이 덤덤히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건설공부는 물론 도건설위원회와 자재상사와도 애초에 실무적토론까지 해야 할것을 타산하였다.

그런데 와보니 기본문제는 그것이 아니였다...

양운식은 조용히 문건을 덮었다.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이며 굳게 다문 입귀에 그 어떤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다. 당위원회로 올라 온 그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양운식입니다. 부비서동무, 64년도 조업식때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은 동무들을 전부 찾아 주시오. 그리고 이 고장에 태를 묻은 오랜 로동자동무들도 함께 모이게 해 주시오.》

새 당비서가 내린 뜻밖의 지시에 일군들은 첫순간 어리둥절해 졌다. 한참나가 지나자 예리하고 강렬한 충격이 그들의 가슴언저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직은 무엇이라고 딱히 이름할수는 없으나...

사람들이 당위원회 사무실에 모여 앉았을 때 양운식은 심중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의 사업과 생활에는 근본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모든것의 첫 자리에 그리고 중심에 드립없이 모를 박아 놓아야 하는것이 바로 근본일것입

니다. 그것이 확고하고 든든할 때라야만 생산과 건설이 있고 창조와 기적이 이룩될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삶이란 있을수가 없습니다.》

마디마디에서 무게가 느껴 지는 말이었다. 방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 앉았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무의식중에 하나, 둘 고개를 수그린 사람들은 창너머의 소연한 산골물소리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양운식당비서는 아까의 그 서류를 내려다 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이야기하자는것은 우리 강계청년발전소의 연혁에 어려 있는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가장 절대적이고 충성스러운 높이에서 완벽하게 정립하는 사업을 우선 선차로 시작해야 하겠다는것입니다. 그것으로써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우리 당경제정책관철에 불려 일으키는 사업도 따라 세워야 할것입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듯 천천히 숙였던 머리들을 쳐들었다. 폐부에 가득찼던 더운 숨결들이 조용히 내뿜진다. 불그레 상기된 얼굴들에 는 짙은 회오가 어려 있었다. 새로운 자각으로 높뛰는 심장의 박동에 맞추어 물소리가 다시금 정답게 울려 오기 시작하였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첫 자리에 놓고 우리의 삶을 꾸려야 할것인가.

새로 온 당비서는 사람들의 그 물음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것으로써 자기 사업의 첫 자욱을 내짚었던것이다.

그날부터 발전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지도사적비를 세우는것과 함께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크고 번듯한 4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바로 양운식당비서가 오래도록 바라보던 공지영의 2층건물이였다.

당시로서는 작은 건물이 아니였지만 발전소가 확장되고 그만큼 종업원도 많아 질 태일을 내다보았던것이다. 한편으로 1호직장과 3호직장의 사적물들에 사적자료를 기록하는 사업도 함께 내밀었다.

초급당비서의 의도가 곧 사상, 기술, 문화로 이루어 진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의 반영임을 비로소 절감한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그와 보조를 맞추어 나섰다.

미구에 10여 t 중량의 화강석으로 정중히 세워진 현지도사적비와 훌륭하게 건설되고 꾸려진 연구실청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새삼스러운 격동으로 가슴을 들먹이였다. 지금껏

범상하게 누려 온 생활과 노동의 보람에 그지없이 뚜렷하고 긍지로운 삶의 확신이 배가된 환희로움때문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주체48(1959)년 전국청년사회주의건설자대회에서 강계수력발전소건설을 선포하시고 완공된 다음에는 청년건설자들의 위훈이 후세에 길이 전해 지도록 《강계청년발전소》로 이름지어 주신 뜻 깊은 사연이 새겨진 사적비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산천과 일터에 대한 새로운 애착과 자부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발전소는 아직껏 있어 보지 못한 새로운 양양과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던것이다.

×

《명실공히 책임적이고 이신작착하는 일군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나 찾아 낼수 없는 예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윤식아바이의 좌우명이 무엇인지 압니까. 불가능이라는 어휘가 있기는 하지만 서둘러 입에 담지 말라는것이였습니다.》

황수령을 넘어 랑림호로 올라 가는 차편에 동행하였던 전영옥부지배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였다.

이미 들은데 의하면 전영옥자신도 이때까지 수년간 구조물과장으로, 지금은 부지배인으로 일하면서 발전소내에서는 물론 대외적으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어깨를 들이 밀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 온 사람이였다. 내가 그에 대하여 한마디 하자 《허-그게 다 양아바이에게서 배운 일본새이고 사업작풍이지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것이였다. 부지배인은 그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내가 랑림호를 찾았던 그때는 7월 말로서 년중 강수량이 가장 높은 시기였다. 그래서 해발 1,700여 m 산상의 랑림호는 말그대로 《산중의 바다》라는 자기 애칭에 어울리게 그들먹히 물을 담고 있었다.

평면도를 통하여 내려다 보면 사슴뿔처럼 생긴 호수의 호안에는 울창한 수림이 병풍처럼 둘러 서 있었다.

언제로부터 얼마쯤 떨어 저 취수구(호수의 물이 물길굴로 들어 가는 입구)가 위치해 있는 물면우에는 듅직하게 무어 진 준첩선이 한척 떠 있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뭇 이채로운 광경이였다. 평야지대를 흐르는 강하천들에서 강바닥을 파내고 건설용골재를 퍼올리는데 쓰이는 준첩선이 무슨 용도로 산중의 호수에 떠 있는것인가.

나의 질문을 받는 부지배인은 선뜻 대답이 없이 취수구쪽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때 이르게 희

여 진 그의 머리칼이 바람결에 가벼이 날리고 겹뽕게 그을은 얼굴에는 깊은 회억이 어려 있었다.

《보다싶이 지금은 여기에 푸른 물이 발밑까지 가득 들어 차 있습니다. 그리고 록음이 짙어 산의 절경을 이루고 있지요. 하지만 그때는...》

...그때는 엄혹한 추위가 천고의 밀림속을 사납게 배회하고 있는 겨울이였다. 폭설에 뒤덮인 랑림산줄기에서는 낮에 밤을 이어 광풍이 무섭게 불어 치고 있었다. 몇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혹심한 이상기후현상으로 하여 최대의 갈수기에 부닥친 랑림호는 물량이 급격히 줄어 들기 시작하였다. 일반 생활상식으로서의 가물철은 봄철로부터 초여름에 이르는 따뜻한 계절이다. 그러나 수력발전상의 갈수기는 1~2월이었으니 겨울이라는 불리한 계절로 하여 발전소가 처한 상태는 끔찍 심각한것이였다.

물이자 곧 생산원료이고 그것이 곧 전기인 수력발전소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애로였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찾아 낼수도 있고 만들어 낼수도 있는 기술이나 설비라면 모르겠으나 순전히 자연의 덕택으로 얻어 지는 물인 까닭에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였다. 그저 가만 앉아서 발전기 몇대를 세우고 적은 전기량이나마 생산하는것이 이때까지의 관례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성관례를 정면으로 반박해 나선 첫 사람이 바로 양윤식이였다.

이미 발전소의 생산건설과 문화시설, 살림집건설을 동시에 내미는 나날에도 늘쌍 물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였다. 부임되어 와서 수력발전소의 생리와 운영체계를 연구분석하는 과정에 우선 해결하여야 할 대상이 바로 설비이기전에 물과 물길굴문제라는것을 확신하였던것이다. 동시에 말로만 쉽게 듣고 외우던 정상전력생산이라는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한 물관리, 물질약에 기초해야 하는가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온 발전소가 우울한 침묵에 잠겨 있던 어느 날 밤이였다.

최용일지배인이 혼자 앉아서 무거운 심정으로 떨어 지기 시작한 일생산실적표를 들여다 보고 있을 때 당비서가 불쑥 들어 섰다. 폭 늘려 쓴 털모자의 앞면과 눈섭에 하얗게 성애가 불려 있었다. 방금 암반이 나타나서 애를 먹고 있는 살림집공사장에 나가서 그 암반을 기초로 리용하도록 귀띔해주고 오는 길이었다.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까?》

당비서보다 서너살 아래인 30대중반의 젊은 지배인이 묻는 소리였다.

《허-이거 누가 할 소리를 먼저 하는게요. 지배인동문 왜 아직 안 들어 갔습니까?》

당비서와 지배인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마주

보며 소리 없는 웃음을 지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담배 한대씩 붙여 물고 뒤모금씩 빨았을 때 양윤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무, 래일은 우리 함께 등산이나 좀 해볼가요?》

《?》

다시 침묵...

초급당비서가 속 빈 룡담을 할줄 모르는 성격임을 잘 알고 있는 지배인이었다. 그래서 시뭇이 웃으며 대꾸하였다.

《좋습니다. 가봅시다.》

양윤식은 지배인의 손을 꼭 쥐었다 놓으며 말하였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난 이번 문제앞에 가로놓인 불가능을 인정할수가 없구만요. 그걸 인정한다면 인간이 자연앞에 무력하다는걸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힘으로 비가 내리게 하고 겨울에 땅이 얼지 않게 할수는 없지요. 하지만 지금의 물량을 최대한 효과 있게 리용할수 있는 방법은 여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색하고 탐구하는가에 달렸겠지요.》

어조는 비록 담담하였으나 거기에는 억척 같은 의지가 배여 있었다.

일군으로서의 양윤식의 지론은 바로 그것이었다.

마지막한결음까지라도 사색하고 탐구하여 찾아내 보자. 해보지도 않고 기성관례를 전제로 내세우고 물러 나 앉는다면 도대체 창조와 발전이라는것이 있을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다음날 당비서와 지배인을 선두로 한 발전소의 부직간부들과 기술일군들은 눈 덮인 황수령을 넘어 랑림호에 올랐다. 언제직장과 취수구작업반의 오랜 기능공들과 함께 허리를 치게 쌓인 눈을 헤치며 호안을 편답하고 수역을 조사하면서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였다.

양윤식은 일군들과 기술자들에게 무자비한 《관주의》를 적용하였다.

사색하고 사색하고 또 탐구하자!

그러면 방도가 나질것이다. 무조건 찾아 내자!

드림 없는 그 의지에 떠받들려 드디어 해결책이 섰다.

당시 갈수기로 하여 물량이 거의 절반이나 줄어들어 취수구가 수면위에 드러나기까지 하는 형편이었으나 취수구보다 낮은 부분에는 아직도 수역톤의 물량이 《죽은 물》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대형뿔프들을 리용하여 바로 그 《죽은 물》을 퍼올려 취수구에 넣어 주는 사수위 물푸기를 진행할것을 결심하였다. 또한 조사결과 오랜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취수구입구에 모래와 자갈이 많이 쌓여 갈수기가 아닌 때에도 수압이 약해진다는것이 판명되어 취수구 모래파기작업도 동시에 내밀기로 하였다.

매사에 구체적이고 주도세밀한 양윤식은 우선 공사를 하는 경우 거기에 소모되는 설비와 자재, 로력에 대비한 전력생산비률을 계산하였다. 아무리 창의창발적인 공법이라 해도 막대한 자금을 투하한데 비해 웅당한 결실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마는것이다.

그러한 양윤식의 생각은 매사에 꼼꼼한 성격이기에 앞서 투철한 국가적립장의 발현이었다.

초조한 긴장을 야기시키며 진행된 계산끝에 반갑게도 1대 67이라는 답이 나왔다.

그들과 동시에 서두수, 허천강, 장진강발전소들에서도 결기해 나섰다.

그들의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대형양수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설비와 자재, 전문가들을 보내주시였다.

드디어 대규모의 공사가 벌여 졌다.

뜨겁고 강렬한 불길이 호반우에 타올랐다.

청명, 곡우까지도 녹지 않는다던 랑림산줄기의 얼음이 한겨울에 녹아 내리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그것을 녹여 낸 힘은 다름아닌 피와 살을 가진 인간들이 발휘한것이였으니 그 간고분투의 실상을 상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혹한인데다가 태반이 수중작업량이였기때문에 보통상식으로써는 불가능한 일이 많았다.

수메터 두터이의 얼음장을 깨내고 양수기를 설치하는 일, 역시 얼음우에서 배수관을 부설하고 광풍이 불어 치는 허공중에서 송전선을 늘이는 일, 취수구의 모래를 파내기 위하여 얼음물속에 강철기둥을 박아 세우고 쇠바줄을 늘어 굴착바가지식삭도를 놓는 일...

그때 현지에서 공사전반을 책임지고 있었던 현로인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양아바이를 만나보았습니까? 못 만났다고요? 이제 만나보면 알겠지만 양아바이는 천성이 온후하고 조만해서는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때 우리 발전소에서는 당비서가 언성을 높이거나 그 누구를 꾸지람하는것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저 당비서하면 실농군처럼 근면함과 성실성이 감출수 없이 드러나 있고 늘 웃는 인상을 가진 수더분한 얼굴만이 련상되었던 말입니다.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덮어 놓고 <호인>은 아니였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작업을 총화하면서 나는 목에 피

대를 세우고 적잖게 목청을 돋구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일이 걸음을 뻗지 한주일이 가까워 오는데 날자에 비해 실적이 오르지 않기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견해로서는 그 원인이 다음과 같은것이었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한시간 작업하고는 한시간 몸을 녹이고 조그마한 애로만 제기되어도 자체로 타개하고 해결할 생각은 않고 내가 앉아 있는 현장지휘부로 달려 들어 오고...

그러한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 가면서 나는 사람들을 호되게 닦아 세웠습니다. 옆에 앉은 양윤식당비서는 시종일관 입을 꼭 다물고 앞쪽에 퍼놓은 사업수첩만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푹푹해 보이는 당비서의 인상을 चे나라름으로 해석한 나는 일장 꾸지람을 한후에 단단히 못 박아 놓기까지 했습니다. 래일부터는 아침에 제시된 하루작업량을 끝내기전에는 퇴근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느라니 한시간도 나마 걸려서야 총화가 끝났지요.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 간 다음에 당비서동무는 느닷없이 나를 바깥으로 이끄는것이었습니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 섰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입은 옷까지 벗겨 널뚫한 사나운 바람이 우리를 휩쌌습니다. 게다가 지척도 분간할수 없는 어둠이 무겁게 내려 앉았구요. 랑림산줄기의 봉이봉이가 얼마나 높고 날카로운가를 잘 아시지요?

<아니 비서동무, 이 밤중에 어딜 보자는겁니까?>

뜨아해 진 나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춥소?>

첫 순간 나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찬물을 끼얹은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비서의 어조는 평소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색다른, 일상적인 성격과 음성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서늘케 하는 그런 랭혹하고 비라협적인 어조였습니다.

나는 창졸간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못 박힌듯 서고만 있었습니다. 어렴풋이나마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였다는것이 느껴 지더군요. 그래서 앞서 가는 당비서를 더듬더듬 따라 걸으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작업등이 드문드문 켜진 공사장 가까이에 이르도록 말이 없던 당비서가 마침내 격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동무는 하루 평균 몇시간을 현장에서 보냈소? 그리고 저 물속엔 몇번을 들어 가 보았소?>

<저...>

무엇이든 말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내가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일손을 잡아보지 못한것은 물론 현장을 돌아 본 시간조차 셀수 있을 정도로 짧았기때문이었습니다. 공사전반을 책임졌다는 <본분>으로 하여 지휘부의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었거든요.

<명심해 듣소. 우리 지휘관들의 본분이란 책상머리에 있는것이 아니요.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바치고 땀을 흘리며 이신작척하는것이 일군의 기본자세라는것을 그래 동무가 모른단 말이요?>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순간순간 자각하고 각성하지 못한탓에 망각해 버린것이 지요.

<이것 보오. 지금 기온이 한 령하 40℃쯤은 되겠지? 그런데 아까 동무가 하는 말을 들으려니가 따뜻한 봄철인것처럼 묘사하더군. 얼지도 않은 몸을 한시간씩이나 녹인다, 이런 투더란 말이요. 이게 바로 제 배 부르고 제 몸 더우면 남이 배 고프고 등 시린줄 모른다는 격이 아니요. 만약 동무자신도 이 혹한을 인정했다면 그 추위에도 얼음물속에 들어 가야 할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았어야 하지 않을까.>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앞장에 설 대신 따뜻한 방안에 앉아서 호령질만 하다니... 그네들에게 있어서 들리지 않을 소리를 말이요.>

그 순간에 나는 돌부리에 걸려 비칠거렸습니다. 어느새 당비서의 손이 다가와 넘어 지려는 나를 꼭 붙잡았습니다. 엄격하면서도 따스한 온기와 후더운 인간미를 전해 주는 역세고 든든한 손이였습니다. 그 손의 덕분에 나는 넘어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넘어 지지 않은것은 물론 그 이튿날부터 작업실적은 두배세배로 뛰어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습니까. 초급당비서자신이 또 지휘일군들이 술선 얼음물속에 뛰어들어 진두지휘를 하는데 노동자들이 어찌 분발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 분발은 당일군이 앞장서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감이 아니라 나라의 부강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자신들이 맡아 안은 전력생산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를 바로 당비서의 모습에서 깨닫게 된 랑심과 의리의 발현이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 나의 눈앞에는 감동 깊은 한쪽의 전경이 삼삼히 그려 졌다. 뼈를 에이는 얼음물속에서 달려 나왔지만 웃고 떠들며 우등불 두리에 모여 앉은 사람들, 그속에서 텅텅하고 소박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방금 구워 낸 감자를 사람들에게 한알씩 나누어 준다. 마치도 후방사

업을 맡은 《사관장》인듯 꼭같이 끌고루 나누어 쪼는가를 원심쓰며 한알한알 잘 물렸는가 살펴 보기도 한다. 남 먼저 제 몫을 먹어 버린 애 째은 총각에게는 뒤손질로 슬그머니 더 쥐여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는 언제 한알 맛 보려는지...

바로 초급당비서의 그러한 이신작칙과 상하일치의 정은 온 기업소의 기풍으로 되었고 그리하여 강계청년발전소는 오늘 이때까지, 그전에는 물론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하는 시기에도 나라의 전력생산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다.

그후 양운식당비서는 립시대책이기도 하고 불합리하기도 한 바가지식삭도를 철수시켰다. 그대신 자체의 힘과 기술로 무은 준철선을 취수구에 띄우도록 하였다. 얼마후에는 120여리에 이르는 물길굴우로 흐르던 수십개의 벽계수들이 기발하게 만들어 진 소취수구들을 통해 기본물길로 취입되면서 물량을 대폭 높이게도 되었다.

×

일반기계전문가인 양운식당비서에게 있어서 발전설비는 그닥 파악이 없는 분야였다.

그러나 사업과 생활에 대해 불 같은 정열과 애착을 가진 일군으로서 자기 단위의 기술실무적문제에 정통하기 위해 이악한 노력을 기울였다. 갖마흔에 첫 버선이라고 수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무엇에 대해서나 불가능을 인정할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로 과학기술적원리들을 습득해 나갔다.

어느해인가 발전소에서는 비상사고가 발생하였다. 2호직장의 어느 한 발전기에서 제압기가 터져나간것이였다. 임의의 시각에 발전기가 멎는 경우 수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는데 그 즉시에 가동을 시작하여 물길굴에 들어 차는 물을 유도하여 뿔아 주는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제압기이다. 그것이 있어야만 수문이 닫기는것과 함께 수로에 조성되는 거대한 수압을 낮출수 있다. 제압기는 발전기가 가동할 때에도 정상적으로 물량과 압력을 조절하여 주는데 그것이 터져 나갔으니 발전기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발전소에서 최대로 엄중한 사고는 발전기를 세우게 되는 경우이다. 사정이 그러했으므로 제압기가 터져 나가자마자 인차 비상협의회가 시작되었다.

협의회는 진지하였으나 방도는 나서지 않았다.

그저 기존관례대로 해야 한다는것으로 두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론의의 첫 순간에 물러 나고 말았다. 그것은 외국에 사람을 파견하여 사오는것인데 귀중한 외화가 들어야 하고 시일이 매우 오래 걸리게 되기때문이었다. 결국 한가지 남은 방도는 룡성이나 대안에서 제작해 오는것이였다.

그것 역시 석달 남짓한 시간이 요구되였다. 하지만 쇠물을 녹여 주형에 부어 내야 하는 제압기이므로 발전소에서 자체로 만들수는 없는 노릇이였다.

그런 찰나에 반가웁게도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섰다. 룡성이나 대안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 있는 어느 한 기계공장에서 제압기를 주조할수 있다는것이였다. 설계를 하고 시공에 넘겨 운반하여 조립하는데 꼭 한달이 걸릴뿐이였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정말 탐구와 모색은 샘물과 같은것이로구나, 파고 들면 들수록 좋은 방도는 끝없이 넘쳐 나는구나하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그 시각에 양운식당비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만 그 사색의 세기와 깊이가 달랐다. 그의 욕망은 지금 한달이라는 짧아 진 시간을 일년맛잡이로 보고 있었다.

(그래, 탐구와 모색을 샘물에 비유하는것은 옳다. 하다면 끝없이 파고 들면 들수록 계속 물이 나오는 좋은 샘이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한달이라는 한계선에서 더는 나울것이 없단 말인가. 그렇게도 발은 샘줄기였는가.)

저녁어스름이 내려 앉은 초저녁부터 밤늦게까지 그는 제압기와 마주 앉아 끝없는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달팽이처럼 생긴 제압기는, 아니 이제는 깨여 저 못 쓰게 된 커다란 주철덩어리는 한쪽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전후에 발전소를 건설하다나니 발전기일식을 외국에서 사들여 온 까닭에 제압기 역시 외국제이다.

본체는 통채로 거칠한 주물덩어리이다.

양운식은 지금 그것을 왜 주물화하였을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세기가 강한 강철로 만들었다면 쉽사리 깨여 저 나가지 않았을텐데 말이다. 그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 나 직장을 나섰다. 구내를 벗어 나서 승방하리로 향했다. 강냉이밭에 둘러 싸인 언덕우에 책임기사의 집이 있었다. 마침 저녁상을 가운데 놓고 온 집안식구가 빙 둘러 앉아 있었다. 주인을 찾기는 했으나 미안한 감정으로 하여 그는 잠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역시 고심으로 하여 입맛을 잃은 책임기사도 밥 몇술 뜨는지 마는지 하고 나앉아 있다가 얼른 달려 나와 당비서를 안으로 잡아 끌었다.

양운식은 오히려 책임기사를 이끌고 트랙을 나섰다. 영문을 모르는 그는 덩둘해 진 표정으로 따라 나섰다. 물소리 소란한 개울가에 나와 앉아서야 양운식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책임기사동무, 난 리해가 가지 않는구만. 왜 그놈을 꼭 주조해야만 할가. 강철로 만들면 더

든든하게 아니요. 또 그게 옳다면 주형이나 용선로가 없이두 우리 자체로 만들 가능성도 있을게 아니요.》

사연을 알아 차린 나이 지긋한 책임기사는 허구프게 웃으며 말하였다.

《허허 비서동무, 강철이 더 견고한거야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그렇게 묘하게 배배 꼬인 제품을 어떻게 강판으로 만든단 말입니까. 양철판이라면 몰라두 두터운 강철판을 작은 면적내에서 무슨 수로 교정해 내겠습니까. 형태에 맞게 강판을 채단하기도 불가능합니다. 비서동무, 그걸 만든 사람들두 제 나름대로 심사숙고는 했을겁니다.》

실망한 양운식은 책임기사를 들어 보내고 나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장시간 긴장되고 흥분으로 하여 모든것을 잊었던 육체가 자기 고유의 생리를 되찾자 맥이 쭉 빠지고 나른해 졌다. 눈앞에서는 달팽이처럼 생긴 제압기가 벌렁벌렁 기어 다니는것만 같았다.

(그러니 더이상 방도가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웅근 한달을 무뎌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군.) 터벅터벅 걸어서 집에 들어 서니 중학교에 갔올라 온 막내딸이 전에없이 반기며 달려 나온다.

《아버지, 왜 이제야 오세요. 나 오늘 좋은 일했는데...》

여느 때라면 밝고 명랑한 그 모습에 대번 기분 전환되었을것이지만 오늘은 그렇지 못했다.

《아버지, 왜 그러나 예?》

딸애는 통명스러운 어조로 따져 묻는다.

그제야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모자를 벗어 딸애의 머리에 슬쩍 얹어 준다.

《그놈의 <달팽이>가 애를 먹여서 그런다. 그놈이 어찌나 느렁뱅이인지 글썽 한달만에야 도착하겠다는구나. 헛참, 가만 그런데 좋은 일을 했다는 건 뭐냐?》

딸애는 생긋 웃음을 지었다.

《내가 <창의고안>을 했지요 뭐.》

아버지가 기업소에 나가서나 집에 들어 와서나 입버릇처럼 외우는 말이어서 이젠 열두살난 딸애도 그 어휘를 입말로 사용하는것이다.

《그래? 네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창의고안》이라는 말이 누구의 입에서 흘러 나왔던 관계없이 그 말만 들으면 무작정 반갑고 호기심이 동해 하는 양운식이였다.

딸은 아버지의 허리를 담썩 끌어 안고 웃방으로 이끌었다.

사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재미나는 《창의고안》이였다. 어چه밤 고양이라는놈이 발톱 버리는 훈련을 한답시고 갓 도배한 벽을 박박 긁어 놓아 도배지가 석장이나 못 쓰게 되였었다. 그런데

남은 도배지는 한장밖에 없었다. 생각던 끝에 딸애는 기발한 착상을 궁리해 냈다. 도배지 한장을 통채로 쓰지 않고 그안에 그려 진 네모배기칸들을 하나하나 오려 내어 고양이발톱에 긁히운 부분들만 메워 버린것이였다. 결국 한장도 채 쓰지 않고 쪽무이식으로 맞추어 넣었기때문에 웅근 석장을 새로 붙인것만큼 원상복구된것이였다. 칸살과 꽃무늬까지 세밀하게 맞추었으므로 땀때기 한 부분이 어디인지도 잘 알아 볼수 없었다.

두눈을 부릅뜨고 청명경이나 그것을 들여다 보고 있던 양운식은 별안간 무릎을 탁 내리쳤다.

《옳다. 이거다. 방도를 찾았다!》

깜짝 놀란 안해와 딸이 가슴을 부둥켜 안았을 때 아버지는 벌써 신발을 찾아 신고 있었다. 딸애가 얼른 다쫓아 나가 자기 머리우에 얹혀 있던 작업모를 아버지의 머리우에 올려 놓아 주었다. 양운식은 그 길로 다시 15리길을 달려 2호직장으로 내려 갔다. 그로부터 두시간이 지난 야밤중에 비상소집명령이 내려 졌다. 기사장을 비롯한 기술일꾼들이 전부 현장으로 달려 나왔다.

전기기계설비분야에서 《문외한》이라고 하는 양운식당비서가 그들앞에서 자기의 착상을 설명하였다.

《...이 제압기 본체 전면에 두터운 종이를 붙입니다. 그것은 곧 본체형태와 같아 질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여러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것들을 본으로 하여 꼭 같은 규격의 강판들을 준비합니다. 이 강판들을 다시 순서대로 특수용접을 하면서 가열상태에서 구부림 혹은 퍼기 등의 교정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제압기본체가 될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누구도 반응이 없었다. 과학적리론과 수학적수치로써는 계산할수 없는 착상이였다. 그러나 누구하나 반박하지 못하였다. 너무도 엉뚱하고 단순한것이였지만 너무도 응당한 리치였기때문이였다.

지금 이 시각에 보면 그리도 간단명료한 리치가 어찌면 그리도 깊숙이 숨어 있었는가?

모였던 사람들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것은 결코 깊이 숨어 있어서만 찾아내기 힘들었던것이 아니였다. 찾으려는 의욕과 의지가 부족했던때문이였다.

정녕 당에서 심려하는 전기문제를 위하여 그토록 아글타글 애 쓰고 모지름을 쓰는 사람!

그것을 위하여 낮과 밤을 모르고 침식도 잊은 채 줄곧 뛰고 또 뛰는 일군!

가장 마지막이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고 모두가 손털고 나왔았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걸음, 또 한걸음, 문자 그대로 마지막계선까지

발걸음을 내짚는 초급당비서!

그의 모습앞에서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또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 보았다...

결국 최소 한달이 걸린다던 느린 《달팽이》는 천리마를 타고 사흘만에 자기 위치에 도착하게 되었다.

발전된 나라의 수준 높은 설비라고 하여 절대 화하거나 신비화하지 말라.

명실공히 주체적이고 애국적이며 자력갱생을 제일로 아는 사람들의 의지의 두뇌는 때로 그것을 단호히 부정하기도 하거나 사람들이여, 자기 힘을 믿으라. 우리의것을 첫 자리에 놓으라!

×

양윤식에 대한 사람들의 추억담을 정리하고난 나는 이제는 본인을 직접 만나보아야겠다고 생각 하였다.

그의 집을 찾아 가니 예상외로 집에 없었다. 온 군이 떨쳐 나선 도로공사장에 매일 나간다는 것이었다. 년로보장을 받기전에도 어느때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꼭 발전소를 찾아 오실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으며 강계에서 승방을 거쳐 여기 문암까지 들어 오는 도로에 남 다른 정력을 기울여 왔고 또 랑림까지 울리 뻔은 이곳 도로상에서 제일 먼저 나무다리들을 털어 버리고 그쫘한 콩크리트다리를 건설한 그였다.

자그마하고 단아하게 생긴 그의 부인이 나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령감의 일기책을 꺼내주는것이였다. 거기에는 내가 지금껏 사람들에게서 들은 그 나날들에 양윤식 자신이 겪은 내적체험세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중에 류달리 눈길을 못 떼게 하는 의미 깊은 글줄이 씌여 있었다.

...무릇 늙으면 추억속에 산다는 말이 있다. 인생이 짧지 않은 까닭에 자연 흘러 가버린 자기의 한생을 총화해 보게 되는 로년기의 생리적현상이라 할수 있겠다. 하지만 다 늙어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남의 추억속에, 후배들의 추억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깊숙이 찍혀 질수 있어야만 참다운 한생을 살았다고 몇땀이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 손에서 일을 놓은 다음에도 자기의 과거가 그네들의 추억속에 깊이 새겨 져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자기의 현재를 비교해 보며 자각하고 분발하게 된다면 그 주인공은 어제날과 다름없이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될것이다...

이제는 말년에 이르렀지만 양윤식의 인간적감정은 바로 이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운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못사람들의 아름다운 추억속에 깊이 새겨 져 있는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잊혀 지지 않을것이다.

결국 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인공을 단 한번, 그것도 번잡한 작업장에서 잠간 만나보았을뿐이였다. 그닥 과묵한 성미는 아니라지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도무지 하려고 하지 않아서 대화도 별반 없었다.

하지만 나 자신도 별로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뜻 깊은 추억이 나의 심장에 한가득 들어 앉았는데 구태여 다시 취재수첩을 꺼내선 무엇하랴.

취재를 끝내면서 나는 주체88(1999)년 6월 15일 이곳 강계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았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발전소를 돌아 보니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지난 시기 선배들이 일을 많이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양윤식을 비롯한 로세대들의 한생에 주시는 최상의 평가와 영광이 집약되어 있는 귀중한 말씀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벌써 몇해전부터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 와 있던 이전 초급당비서 양윤식도 몸 가까이 부르시여 영광의 기념 사진을 찍어 주시였다.

그는 끝없이 솟구쳐 오르는 감사의 정, 환희의 격정으로 하여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아-랑림산의 천만봉우리를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사랑의 높이여!

대를 두고 영원히 잊지 못할 영광과 행복의 절정이어!

## 상식

## 학문과 관련한 몇가지 말

-력사는 인간을 현명하게 하고

시는 기발하게 하며

수학은 섬세하게 하고

자연철학은 심사숙고하게 하며

윤리학은 심중하게 하고

윤리학과 수사학은 논쟁할수 있도록 한다.

-음악은 웅변적으로 사고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정밀과학의 두눈은 수학과 윤리학이다.

-음악은 감각의 수학이고 수학은 리성의 음악이다.

-수학은 과학의 너왕이다.